
2017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Contents

2017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일본	3
일·가정 양립	4
양육지원	8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21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23
기타	26
미국	27
일·가정 양립	28
양육지원	32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35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38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42
유아교육·보육 교사	43
아동발달/부모됨	45
캐나다	48
일·가정 양립	49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50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69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74
유아교육·보육 교사	76
프랑스	77
일·가정 양립	78
양육지원	79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81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84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90
유아교육·보육 교사	92



Contents

독일	93
일·가정 양립	94
양육지원	96
저출산	100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02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04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11
유아교육·보육 교사	112
아동발달/부모됨	113
기타	121
스웨덴	132
일·가정 양립	133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36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37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48
유아교육·보육 교사	152
아동발달/부모됨	155
영국	157
일·가정 양립	158
양육지원	160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61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67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75
아동발달/부모됨	177
기타	182
2017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목록 및 조회 분석	185



| 2017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



2017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가별, 주제별)

일본

일·가정 양립		
1	다케오 시, '가족 간병 휴가'와 '손자 돌봄 휴가' 제도 신설	4p
2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보육소 개원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육아세대의 요구 수용	5p
3	여성채용 확대를 위한 일본 정부의 여성우대 기업 지원	5p
4	기후 현, 일·가정양립을 위해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강의 실시	6p
5	교토,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버지들 교류의 장 마련	7p
양육지원		
1	엄마에게 휴식과 상담을...시즈오카 시의 케어서비스 인기	8p
2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 픽업 및 임시 돌봄 서비스	9p
3	요코하마 시, 빈집을 활용한 육아세대 집세 보조	10p
4	도쿄 시부야 구, LINE 앱으로 육아 정보 제공	11p
5	기후 시, 육아지원 앱 실시	12p
6	교토, 육아정보 전달 서비스 개시	12p
7	군마 현 키류 시, 6월부터 산모대상 산후우울증 예방 및 외래진료 실시	13p
8	가나가와 현, 현에서 운영하는 주택에 육아세대 입주를 촉진	13p
9	가나가와 현, 6개국 언어로 지원하는 '외국인 육아 응원 키트' 호평	14p
10	치바 현 후나바시 시, '임신·출산지원계획' 배포를 통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15p
11	산후조리 모자(母子) 지원을 도입하는 정부 지침 발표	16p
12	야마가타 가호쿠, 맞벌이부부 지원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을 함께 돌보는 서비스 시작	17p
13	가고시마 현 아마미 시, '좋은 육아환경 만들기' 육아체험 워크숍 개최	18p
14	오카야마 현 와케 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질문에 24시간 대응	19p
15	오카야마 현 쓰야마 시, 상업시설 내에 육아지원시설 개설	20p
16	우라야스 시, 치바 현에 친정이 있는 산모에게도 산후관리 확충	20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미에 현 츠 시, 내년 9월부터 영유아 의료비를 '창구무료' 형태로 전환	21p
2	정부·여당, 보육료 '공정가격'시설 무상화 추진, 고액시설에는 지원금 상한 설정	22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오이타 현 우사 시, 안전을 위해 보육시설에 방범카메라(CCTV) 설치	23p
2	아타미 시, 보육시설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내달 1일 영광 보육소 개원	24p
3	와카야마 현 다나베 시, 시립유치원 4곳에 보육 확충	24p
기타		
1	교토 지역 전체가 참여한 즐거운 육아축제	26p

❖ 일·가정 양립

1. 다케오 시, '가족 간병 휴가'와 '손자 돌봄 휴가' 제도 신설

지난 2월 14일 사가 현 다케오 시(佐賀県武雄市)가 올해부터 가족 간병이나 손자 돌보기를 위한 휴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매년 5일 간의 휴가를 허용하게 됨. 시 관리직 등 64명은 사회, 조직을 육성하는 상사(보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육아 보스 선언'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휴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가족 간병' 휴가는 가족이나 친척 등을 간호해야 할 때 사용하고, '손자 돌봄 휴가'는 평소 손자를 돌보는 것 외에 멀리 사는 자녀의 출산 시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구상하고 있음. 이를 통해 부하 직원의 육아나 간호, 간병을 이해하는 상사를 목표로 함.

일본 후생노동성의 장려로 전국 지자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쿠보스(イクボス) 선언[1]은 사가 현 내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임. 이쿠보스 선언의 내용은 (1) 육아/간호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을 촉진하며, (2) 근무 방식을 검토하고 업무 개선을 추진하며, (3) '일과 사생활을 조화롭게 즐긴다'를 기억하고 행동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매월 1일의 유급휴가'와 '회의시간은 30분으로 하는 등 업무의 효율을 높여 잔업을 줄이는 방안' 등을 실천해가고 있으며, 이미 관리직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음.

다케오 시는 이 선언을 계기로 지역 기업과 사업장 등에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1] 이쿠보스 선언: 이쿠보스는 양육을 뜻하는 이쿠(育)와 직장상사(보스)의 합성어. 부하 직원의 일과 사생활을 배려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상사를 목표로 한 선언임.

2017년 2월 15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70215-00010002-saga-l41>

2.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보육소 개원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육아세대의 요구 수용

육아 세대의 요청으로 간사이 국제 공항에 보육소가 마련됨. 기업의 직원과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된 기업 주도형 보육소로, 전국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팝핀스'(poppons도쿄)가 운영하며 임시로 아이를 맡아주기도 함.

간사이 공항을 운영하는 간사이 에어포트에 따르면, 간사이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은 약 1만 5천 명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육소 설치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음. 지금까지 직원들은 아이를 맡기려면 집 근처 등 간사이 공항 이외의 보육소를 이용해야 했음.

보육소는 간사이 공항 내 복합 상업시설 '에어로 플라자(AEROPLAZA)'와 인접한 건물의 1, 2층에 있으며, 연면적 약 1,155평으로 구성됨. 일부 창문에서는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보이기도 하며, 룬 칸막이는 비행하는 항공기를 표현한 포물선과 같은 디자인으로 파스텔 컬러를 사용해 따뜻한 느낌을 줌. 또한 0~5세 연령별로 방을 설치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장난감이나 도구를 비치하고 있음. 야외에는 약 200여평 크기의 정원도 있음.

보육소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이며 개장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7시 30분~오후 8시 30분이나, 오전 7시~7시 30분, 오후 8시 30분~10시까지 추가 이용도 가능함.

보육소 대표 시마 치즈루(島千鶴)씨는 '비행기나 철도도 보이고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도 가까이 있다. 여러가지 일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용 직업 체험 시설) 키자니아 같은 보육소'라고 말함. 간사이 공항의 야마야 요시유키(山谷佳之) 사장은 '간사이 수준 정도의 공항에는 이러한 보육시설이 필요하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냄.

2017년 4월 12일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412-00000000-san-l27>

3. 여성채용 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여성우대 기업 지원

일본 각지의 정부 기관에서 잇따라 '여성 우대 채용'이나 '여성 한정 채용'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를 일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음. 국가 주도의 '여존남비(女尊男卑)'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 기관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님. 민간 기업에서도 '신입 및 경력 채용에서 동일한 수준의 능력이면 여성을 우선 채용한다'는 문장을 넣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음.

그 배경에는 2005년 시행된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과 2016년 4월 시행된 '여성 활약 추진법'이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업에게 육아지원이나 여성채용에 대한 '행동계획'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을 후생 노동 장관이 우량 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임.

실태를 살펴보면 '강요'에 가까운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 '여성 활약 가속화 조성금'이라는 제도는 기업이 여성 활약에 대한 '목표수치'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보조금(30만엔, 한화 약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예를 들어 도쿄 도에서는 '여성의 활약 추진 인재 육성 연수'를 개최함. 이를 수강하고 사내에 '여성 활약 추진 책임자'를 지정하면 보조금 30만엔(한화 약 300만원)이 지급됨. 또한 그 '책임자'가 도쿄도의 '팔로업 연수'를 수강한 후 '행동계획'을 신고하며 실행계획에 대한 '사내설명회'를 실시하면 추가로 30만엔(한화 약 300만원), 총 60만엔(한화 약 6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됨. 즉, 일본은 정부 주도 하에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과 '여성 활약 추진법'에 근거하여 여성 우대 기업에게 '당근'을 주면서 여성 채용을 지원하고 있음.

2017년 5월 22일

출처: https://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70522_553461.html

4. 기후 현,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강의 실시

기후 현은 올 해, 부하 직원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생활의 병행)를 배려하면서 실적도 향상시키는 상사, 이른바 '이쿠보스'를 늘리기 위해 지역 내 기업 경영자와 관리직을 대상으로 3곳 이상에서 강의를 실시함. 작년에 실시한 강연회 등과 더불어 기업 간부들이 함께 배우는 자리를 신설하여 각 기업의 참여를 촉진함.

이 강의의 목적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임. 기후 현 여성활약추진과는 우선 조직 리더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일과 가정의 병행 지원을 장려하는 '현 육아 지원 우수 기업' 간부들의 사례를 전하며 참가자가 단계적으로 직장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정을 배우도록 함. 기후 현 여성활약추진과는 '직원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많기 때문에 이 강의가 직장 환경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한편, 육아 지원 우수 기업인 건설회사 '어스 크리에이트(EARTH CREATE)'는 10년 전부터 육아를 위한 2주 간의 유급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들이 서로 육아를 이해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있음. 회의실 벽 한쪽에는 부모와 자녀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음.

이러한 시도들을 돕는 것은 바로 업무의 효율화임. 개별 업무를 줄이고 직원 모두가 같은 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쉽게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함. 이와타 료(岩田良) 영업 본부장은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고생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였다'고 성과를 강조함.

일본 정부와 기후 현이 2012년에 실시한 여성 취업에 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아이가 생기면 일을 그만두고 아이가 크면 다시 취직하는 것이 좋다'는 기후 현의 응답률은 44.0%로, 전국 평균인 30.8%를 웃돌았음. 여성활약추진과는 '기후 현에서는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별에 따른 분담 의식이 전국에 비해 강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함. 또한 육아에 대한 이해는 여성의 취업 지속 및 관리직 비율 향상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함.

2017년 6월 18일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618-00004447-gifuweb-l21>

5. 교토,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버지들 교류의 장 마련

아버지들 간의 교류의 장을 넓혀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토 부 무코 시(京都府向日市) 사회복지협의회는 9월부터 '이쿠맨 LIFE'라는 제목의 이벤트를 연속 개최함. 피자 만들기과 대형 철도 장난감 전시 등 자녀와 함께 참여하기 쉬운 방법을 고안해 육아에 힘쓰는 아버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행사에 참여할 지역 내 아버지를 모집하고 있음.

교토 시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이쿠맨 체크리스트'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가 육아를 힘겨워하는 실태를 보여줌. 한편, 동료 만들기 이벤트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는 저조했음.

이번 기획은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아이와 놀아주는 법 등 아버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벤트로, 참여 장벽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저변을 넓혀갈 계획임. 운영을 돕는 직원도 모집해 친구 만들기과 관련된 인재 발굴을 목표로 함.

첫 개최는 9월 24일, 교토 시 모즈메 씨니 리지에서 개최하며 가족 단위로 피자 만들기에 참여하고 건강지도사에게 자녀와 함께 즐길 체조 등을 배움. 11월 5일과 올 겨울에는 장난감 조립 모형 기차를 달리게 하거나, 골판지로 미로를 만드는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함. 이 기획에 참여할 예정인 케어 매니저 와다 켄지 씨는 '평소 선배 아빠들의 조언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육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냄.

2017년 7월 18일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718-00000006-kyt-hlth>

●● 양육지원

1. 엄마에게 휴식과 상담을... 시즈오카 시의 케어 서비스 인기

민간 숙박시설을 활용하여 만 1세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휴식과 육아상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즈오카 시의 '엄마 케어 데이 서비스'가 인기임. 2016년 8월 말에 시작하여 2017년 1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 109쌍의 부모와 자녀가 이용하였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즈오카 시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 2세 미만의 영유아와 그 어머니임. 시설 이용 시, 어머니는 시내에 있는 여관이나 온천 시설에서 보육사나 보건사 등이 영유아를 봐주는 사이, 온천에 가거나 낮잠을 자는 등의 '휴식'을 취할 수 있음. 그리고 아이 돌봄에는 시가 실시하는 '육아 서포터 양성 강좌'를 수강한 '선배 엄마'들도 참여함. 아이를 맡긴 엄마는 시설에 머무는 동안 선배 엄마와 보육사들에게 육아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음.

시에 따르면 육아 중인 엄마에게 상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도는 현 최초로, 이를 이용한 어머니들은 '육아 고민을 다른 엄마와 선배 엄마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재충전이 된다'고 호평을 하였음.

2015년 9월 시내에서 열린 '시장과의 카페 & 런치 토크'에서 시내 육아 동호회 멤버로부터 '육아 중인 엄마들을 힐링 시켜줄 곳을 시내에 만들 수 없을까'라는 제안이 이 사업의 계기가 되었음. 시즈오카 시 아동가정과의 담당자는 '어머니가 가정이나 지역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는데 일조하고 싶다'며 '출산 후 지원을 확충하면 아이를 한 명 더 낳겠다는 생각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음.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60%가 1세 영유아라는 통계도 있다며 이러한 불행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담겨있음.

한편, 엄마 케어 데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함.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로, 이용료는 약 15,000원 정도임(중식비 및 목욕요금은 별도). 1세 자녀와 함께 미취학 형제가 동행할 경우, 형제도 돌봐줌.

2017년 1월 21일

출처: <http://www.sankei.com/region/news/170121/rgn1701210003-n1.html>

2.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 픽업 및 임시 돌봄서비스

지난 1월 25일 요코하마 시 스즈키 구(横浜市都筑区)의 도시 재생기구(UR) 단지에서 지역 내 육아를 서로 돕는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음. 주민들이 그룹을 구성해 아동들의 픽업 및 임시 돌봄 서비스 등을 담당할 것임. 담당자는 '독박 육아를 막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음.

이 시범사업은 보육 공유 서비스를 실시하는 'AsMama (아즈마마)'가 운영함. 위탁을 받은 지역에서는 일과 육아의 병행에 대해 고민하는 주민이 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커뮤니티 형성에 참여하길 바라는 목적도 있다고 함.

사업 기간은 3년으로, 이용자는 아즈마마에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갑작스러운 야근으로 유치원에 자녀를 데리러 갈 수 없는 경우, PC나 스마트폰 등에서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가입 회원에게 도움을 요청함. 지원자에게는 사례비를 시간당 500~700엔(한화 약 5천원 ~7천원 정도)를 지급하고 지원자가 없을 때에는 아즈마마의 공인 '엄마 서포터'가 도움을 주는 방식임. 또한, 사업 기간 중 월 2회 지역교류회, 월 1회 단지교류회를 실시하여 회원 들끼리 서로 돕는 분위기를 촉진함.

이날, 단지 집회소에서 열린 제1회 지역교류회에서는 18쌍의 부모와 자녀가 참여했음. 지역 별로 3그룹으로 나누어 자기소개를 한 후, 영어와 음악을 접하는 체험 학습을 즐겼음. 26개월 인 딸과 참여한 세키구치씨는 "이웃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나 기쁘다. 주변에 아이를 맡길 시설이 부족했는데 나중에 이용할 수도 있다"며 기뻐하였음. 아즈마마의 코다 게이코 사장은 "재택 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시범사업을 계기로 폭넓은 세대에 걸쳐 상부상조의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 고 밝혔음.

2017년 1월 26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70127-00015224-kana-l14>

3. 요코하마 시, 빈집을 활용한 육아 세대 집세 보조

요코하마 시(横浜市)가 빈집을 활용하여 육아 세대에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시작함.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보조 제도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이 사업은 육아 지원 확충과 지역의 빈집 대책을 위해 동시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임. 먼저, 빈집을 제공할 수 있는 임대인을 모집하고 올 7월을 목표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임.

요코하마 시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임대인을 10여명 정도 모집할 계획임. 제공 주택의 조건으로는 '가장 가까운 역까지 도보 또는 버스로 20분 이내,' '초등학교, 슈퍼, 공원 등까지 1km 이내,' '바닥 면적 55평 이상' 등이 있음. 실제 임대료는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해 임대인과 정하게 됨.

또한 시범사업으로서 임대인이 기존의 빈집을 리모델링 할 때 드는 비용의 3분의 2 (최대 140만 엔(한화 약 1,416만원))을 보조하고,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은 한 채로 한정해 모집함.

한편, 입주자에게는 매달 최대 4만엔, 최장 6년간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임. 이에 대한 조건은 소유 주택이 없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 또는 임산부가 있는 가정으로, 월수입 25만 9천엔(한화 약 261만 9천원)이하인 지역 거주자 혹은 근무자임. 2017년 7월을 목표로 모집을 시작,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할 것임.

한편 요코하마 시는 2012년 기준 빈집이 약 2만 9천 가구로, 현재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대하여 요코하마 시는 전국 최초로 '요코하마 시 빈집 대책 계획'을 세우고 빈집 문제 예방 및 주택의 유통 촉진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사업도 그 대책 중 하나임.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www.city.yokohama.lg.jp/kenchiku/housing/minju/kosodateribuown/>).

2017년 2월 22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70222-00000029-san-l14>

4. 도쿄 시부야 구, LINE 앱으로 육아 정보를 제공

시부야 구(渋谷区)가 무료 통신 앱 LINE(라인)의 공식 계정을 만들고, 친구 등록을 한 주민에게 자녀 예방접종 일정 등 육아 세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 서비스는 운영 회사인 LINE의 기업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회사가 앱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음. 주민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부야 구는 새로운 정보원으로서의 활용을 기대하고 있음.

육아 정보 발신 서비스는 시부야 구가 지난 달 개설된 육아 정보전용 사이트 '육아 편리 수첩'의 LINE '시부야 구 공식 계정'을 통해 제공되는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사용법이 제공됨. 가입 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녀의 생일이나 거주 지역 등을 등록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연령에 맞는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음. 이 외에도 거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육아 지원 시설의 이벤트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음. 시부야 구 경영기획과에 따르면, 3월 24일 기준으로 가입자는 2,228명임.

경영기획과의 야마자키 요시히로(山崎善広) 과장은 "자녀의 예방접종 날짜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만, 보호자들이 이것을 잊을 때도 있다. LINE 앱에서 친구 등록을 하면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놓치는 일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에는 방재 정보 전달 시스템에서도 LINE을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정보 발신원으로서의 기능을 기대를 하고 있음.

시부야 구는 지난해 8월, LINE과 'S-SAP'(시부야 소셜 액션 파트너) 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협정은 시부야 구에 위치한 기업이나 대학 등이 함께 지역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연계 제도로, LINE과 협정을 맺은 지자체는 도쿄가 처음임. 시부야 구는 이 협정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위한 논의를 추진해왔음.

한편, LINE 홍보부는 이 서비스에 대해 "지자체에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26일

출처: <http://www.sankei.com/life/news/170326/lif1703260021-n1.html>

5. 기후 시, 육아지원 앱 실시

기후 시(岐阜市)가 지난 3월 13일부터 '기후 시 육아 응원 앱' 서비스를 제공함.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육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와 비슷한 기능의 앱은 오가키 시(大垣市)에 이어 현에서 2번째 사례임.

기후 시 아동정책과에 따르면, 이 앱은 임신, 출산기, 그리고 취학전 자녀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대상 가구는 약 1만 7천 가구임. 출산 예정일과 자녀의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검진 공지사항 등을 전송해주며, 신장 및 체중을 그래프로 기록할 수 있는 일기장 기능도 있음. 담당자는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2017년 3월 17일

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CMTW1703172200001.html>

6. 교토, 육아정보 전달 서비스 개시

교토부 나가오카쿄 시(長岡京市)가 취학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해 '육아 지원 서비스나가스쿠' 제공을 시작함. '나가스쿠'는 지역 내 보육시설이나 이벤트 등 육아에 관한 정보를 망라한 서비스로 PC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공하고 있음.

육아 시설 맵에는 보육시설이나 병원, 학교 등 관련 시설을 지도상에 표시하여 시설에 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음. 지역 내 공립 보육시설이나 소규모 보육시설, 사립 유치원 등의 시설을 볼 수 있는 페이지에는 인가 보육시설에 한하여 아동 연령별 정원 정보를 게재하고 있음. 어플에 사용자를 설정해두면 자녀 연령에 맞춰 공지 및 이벤트 정보가 표시됨.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보육료는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와 보육시설별 학부모 게시판도 마련함.

한편, 시는 지금까지 홈페이지에서 육아 관련 정보를 게재해왔으나, 게시물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시 어린이 복지과는 '육아정보를 출산 전 여성이나 아빠들도 꼭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함.

2017년 04월 12일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412-00000016-kyt-l26>

7. 군마 현 키류 시, 6월부터 산모 대상 산후우울증 예방 및 외래진료 실시

군마 현(群馬県) 키류 시(桐生市)가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산모 건강 검진 사업'과 '모유 외래 조성 사업'을 6월부터 시작함. 산모의 육아에 대한 불안을 산후 초기 단계부터 의사나 조산사, 보건사가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시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는 최초라고 함.

산모 건강검진은 수유가 충분한지와 신생아의 발육상태에 대한 확인으로 이루어지며,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평가방법인 에딘버러 산후우울증 검사(EPDS)를 통해 산모의 정신건강도 확인함. 대상자는 주소지가 시내에 있고, 6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 2주 이내의 산모로 요금은 무료임. 장소는 키류 후생 병원 등 3개 조산원 외에도 시가 지정한 건강검진이면 시외지역에서도 가능함.

모유 외래 조성 사업은 주소지가 키류 시로 되어 있고 산후 3개월 이내의 산모가 대상임. 유방 마사지를 포함하여 모유 수유지도를 하며 통상 1회 3,000~5,000엔(한화 약 3~5만원)의 본인부담금 중 1000엔(한화 약 1만원)을 최대 5회 지원함. 10명의 보건사가 상담 신청을 받으며 모유 수유 상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배포함. 상담 장소는 시 보건복지회관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계 등 3곳임.

두 사업 모두 임신 신고 시에 진찰표를 교부하고 통지하는 한편, 이미 신청한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함. 키류 시의 작년 출생아 수는 560명으로, 카메야마(亀山) 시장은 '육아에서 어머니의 건강과 치료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을 구상 중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해 갈 것'이라고 말함.

2017년 5월 20일

출처: www.sankei.com/region/news/.../rgn1705200042-n1.html

8. 가나가와 현, 현에서 운영하는 주택에 육아세대 입주를 촉진

어린이 빈곤 대책 강화를 위해 가나가와 현(神奈川県)이 22일, 육아세대의 현영(현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주택 입주 촉진책을 확충하겠다고 밝힘. 자녀의 의무교육 종료 시까지로 되어있던 현행 우대 기준을 고등학교 졸업 또는 20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 등에 적용하는 현행 우대 제도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임.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

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고령화가 심각한 주거 단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임.

현영 주택 육아 지원책은 ‘육아세대를 위한 주택’의 우선 제공과 일반주택의 당첨률 우대 정책이 핵심임. 육아세대를 위한 주택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을 5, 11월 입주자 모집 시, 매회 약 30채를 준비함. 현재는 자녀의 중학교 졸업 시까지 입주할 수 있는 구조로, 현 내 총 217단지(약 4만 5천 가구)에서 약 370 가구가 사용 중임. 당첨률을 높이는 우대 정책은 한부모 가정과 자녀가 셋 이상인 세대를 대상으로 함.

쿠로이와 유지(黒岩祐治) 지사는 ‘아동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육아세대의 입주를 더욱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입주기간 연장 및 당첨률 우대 대상을 확대, 안정적인 삶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한편, 현영 주택 입주자의 고령화 비율은 42%로, 현 전체 평균(24%)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임. 가나가와 현은 육아세대 입주 촉진을 통한 주거단지의 세대 비율 조정으로 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로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임.

2017년 6월 23일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623-00018700-kana-l14>

9. 가나가와 현, 6개국 언어로 지원하는 ‘외국인 육아 응원 키트’ 호평

가나가와 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가나가와 국제교류재단이 작성한 ‘외국인 주민 육아 응원 키트’가 호평을 받고 있음. 임신과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차트와 다국어 의료 문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국 언어로 만들어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보기 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작성 계기는 동 재단이 2015년 7월 ~ 16년 1월에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육아 지원에 관한 조사였음. 행정기관이나 보육시설, 육아 중인 어머니들의 의견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가 외국인에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실태가 드러났음. 이를 바탕으로 ‘임신 초기에 외국인 거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등을 외국어로 정리한 키트를 개발함. 올 5월에 1만 3200부를 제작해 현 내 시정촌의 모자수첩 교부 창구나 일부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음.

‘외국인 주민을 위한 육아 차트’에서는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시간 순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표시됨. ‘모자 건강 수첩 배부’, ‘출산 육아 지원금 절차’라는 설명을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제시함.

또한,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국어 의료 문진표’와 검진 일정 등을 기입하는 ‘산전·산후 확인 시트’ 등도 세트로 준비함. 모두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6개 언어로 소개하고 있음. 이용자로부터 호평이 나오는 것은 물론, 타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의 15년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같은 해 가나가와 현의 출생자 수는 7만 4870명, 그 중 부모 또는 한쪽 부모가 외국 국적인 아기는 약 4.5% (3363명)임. 재단에서 다문화 공생·협동 추진 그룹 리더를 맡고 있는 아마우치 료코씨는 ‘말이 안 통하더라도 키트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함.

한편, 키트는 재단의 다국어지원센터 가나가와 외에도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2017년 7월 2일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702-00018931-kana-l14>

10. 치바 현 후나바시 시, ‘임신·출산 지원 계획’ 배포를 통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후나바시 시(船橋市)가 육아 지원의 일환으로 올 4월부터 임신~6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계획’ 인쇄물 배포를 시작함. 이 인쇄물은 지역 주민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후나바시 보건소 지역보건과와 후나바시 시청 육아지원부 지역육아지원과, 가정복지과의 3개과가 제휴 제작한 것임.

지역보건과 세키네 마키코(関根真紀子) 씨에 따르면 후나바시 지역만의 육아 정보를 담아, 임신, 출산, 육아와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제작했다고 함. B4 반 사이즈 크기에 양면 컬러로 임신, 출산 후 자녀의 유아기와 아동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용한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함. 자신의 계획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의 성장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이유식 서비스 정보’와 같은 정보량이 많은 것은 QR 코드가 적혀있어,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지역 내 보건센터 4곳, 후나바시 시청 후나바시 역전 종합 창구 센터에서 임신 신고를 한 사

람에게 모자 건강 수첩과 함께 배포하며, 수첩을 접으면 모자 건강 수첩 커버에 맞게 들어감. 배포 시에는 임신, 육아 중 궁금한 게 있으면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임신부의 담당 보건 센터와 지역 담당 보건사를 안내하고 인쇄물에도 기입함.

지역보건과의 한 직원은 ‘귀여운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 어필하도록 구성되어, 임신부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 ‘나의 보건 센터’, ‘나의 보건사’라고 친근하게 느끼고 상담했으면 좋겠다’, 또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기입하면서 꼭 활용해 달라’고 당부함.

2017년 8월 17일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817-00000067-minkei-l12>

11. 산후조리 모자(母子) 지원을 도입하는 정부 지침 발표

출산 후 산모와 아이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산후케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올 8월, 후생노동성이 가이드라인을 공표함. 고령 출산이 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어머니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도임.

도쿄 도 스미다 구(東京都墨田区)의 나카무라 미즈키 씨(36)는 올 3월, 첫째아 마사토군을 출산했음. 두 달 후, 유선염에 걸려 열이 오르자 산전·산후관리 센터 ‘도호 사라이’(고토구)를 찾음. 이 후 몇 차례 유방 마사지 등을 받으러 다니며 증상이 개선되었음.

‘사라이’에는 조산사가 상주함. 모유 상담 비용은 초진 비용 포함 6천엔이며, 개인 리도 9개 구비되어 출산 후 바로 산모가 쉬거나 수유 및 목욕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숙박도 가능함. 건물 안에는 보육실과 육아 광장도 병설되어 있음. 나카무라 씨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함.

이 시설은 2년 전 산부인과 의사인 마쓰미네 히사미씨가 만들었음. 지금까지 약 1만 명의 아기를 돌봤는데, 최근에는 고령 출산이 늘면서 조부모도 고령이라 산후조리를 돕기 어려운 상황이 생김. ‘아이를 낳고 끝이 아니라, 산후에 몸을 쉬게 하면서 육아를 배울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작년 8월 출산 시 대량 출혈을 경험한 한 30대 여성은 출산 후 4일째 되는 날 퇴원했음. 지자체로부터 소개를 받은 이 산후조리센터에서 4박 5일간 조산사의 관리를 받으며 요양함.

이러한 시설은 현재 병원이나 조산원 등이 운영하고 있음. 후생노동성은 2014년도에 29개 시정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이용자 개인 부담을 제외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음. 2016년에는 운영 지역이 179개 시정촌으로 늘었음. 그러나 마쓰미네 씨는 '제도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한편, 후생노동성이 8월에 공표한 '산후조리 사업 지침'에는 지자체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업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산후 약 4개월까지 모자를 대상으로 '숙박형', 당일 퇴원인 '데이 서비스형', 가정을 방문하는 '아웃리치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음.

담당자 국립 보건의료과학원의 모리 켄지 명예 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간 온도 차가 있는 것이 나타났다'고 지적함. 산후조리 전문가인 도호대학 후쿠시마 후지코 교수(간호학)는 '기존의 선례들은 지자체장의 판단이 큰 몫을 했다.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여 지역의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선례 중 하나로, 사이타마 현 와코 시(埼玉県和光市)에서 육아세대 포괄지원 센터장을 맡은 사카키바라 씨는 올 3월에 '일본 네우보라 네트워크 연구소'를 설립, 대표를 역임하고 있음.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산전·산후 및 육아 지원을 해 온 사람들이 '행정이나 다양한 직종과의 연계 방법 등 경험을 공유하자'고 참여하며, 페이스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음.

의사와 조산사들도 7월 '일본 산전산후관리·육아지원 학회'(이사장: 린 켄지)를 만들. 강연회 등 산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2017년 9월 16일

출처: www.asahi.com/articles/DA3S13135511.html

12. 야마가타 가호쿠, 맞벌이 부부 지원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을 함께 돌보는 서비스 시작

야마가타 현 가호쿠의 NPO 법인은 20일, 3대가족 등의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빈 집을 지키는 어린이와 노인을 함께 돌보는 서비스를 시작함. 사전신청을 하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신청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2개월의 시범기간을 갖고 구체적 과제와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사업 이행을 목표로 함.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관은 NPO 법인 '가호쿠 육아 어드바이저 센터, 병아리 집'으로, 아이

는 생후 6개월~초등학생, 노인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으나 요개호(要介護: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이 대상임. 어린이와 노인이 친족 관계라면 동거, 별거 여부를 묻지 않으며, 시간은 상담을 통해 결정함.

지금까지 해당 법인은 빈 점포를 개장하고 2006년부터 어린이 임시 돌봄 및 육아 중인 어머니들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활동에 힘써왔음. 이용자로부터 ‘아이를 맡기더라도 집에 어르신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듣고 새로운 서비스를 검토하기 시작함. 이후 현에서 보조금 50만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실행 계획이 마련됨.

한편, 2015년 인구조사에서 아마가타 현은 3대가족 동거율이 17.8%로 전국 1위를 기록함.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와 노인들이 빈집을 지키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보임. 이 법인의 오쿠야마 가츠오 (奥山勝夫) 이사장(76)은 ‘아이들과 어르신 모두에게 집처럼 지낼 수 있는 곳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함.

2017년 10월 22일

출처: www.kahoku.co.jp/tohokunews/.../20171018_53035.html

13. 가고시마 현 아미시, ‘좋은 육아환경 만들기’ 육아체험 워크숍 개최

가고시마 현 아미시(鹿児島県奄美市)가 추진하는 ‘일하면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의 육아체험 워크숍이 30일 시청에서 개최됨.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총 100여 명이 이 워크숍을 수강함. 이날은 남성들이 아기를 안고 장보기 체험을 했는데, 이를 통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음.

육아체험은 행사장 근처 슈퍼에서 열림. 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해 20분이었으며, 예산액 천 엔(한화 약 1만원)으로 정해진 품목을 사는 활동임. 남성 참가자들은 포대기 끈으로 아기를 업고, 한 손에는 아기를 잡고 출발하는데, 사야할 물건을 찾기 위해 잠시라도 눈을 떼면 아이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림. 악전고투 속에서 남성들은 간신히 장보기를 끝냄.

체험 종료 후, 남성 참가자는 아이를 업는게 생각보다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소감을 밝힘. 이 행사를 지켜보던 여성 참가자는 ‘남성은 계산, 물건찾기, 아이돌보기 등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게 서투른 것 같다.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고 말함.

한편, 토론 시간에는 육아 지원 계획의 문제점이 드러남. 시 보건 복지과의 요네다 씨는 ‘열

심히 육아를 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활용해 지역 전체가 육아를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함.

2017년 10월 1일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001-00010000-nankainn-l46>

14. 오카야마 현 와케 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질문에 24시간 대응

오카야마 현 와케 정(岡山県和気町)은 22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육아 지원이나 쓰레기 처리와 같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서비스를 시작함. 무료 통신 어플리케이션 LINE 등을 사용해 문자 정보로 연락을 하는데, 와케 정 설명에 따르면 유사한 서비스를 실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드물다고 함.

이는 미국 IBM의 인공지능형 시스템 '왓슨'을 활용한 자동 회화 프로그램으로, 정보 서비스업 회사 카멜(효고 현)과 공동 개발했음. 예전에 있었던 문의 내용을 AI에게 학습시켜 적절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구조를 구축한 결과임.

각종 신고, 증명서 발급 절차, 개호 지원 사업 안내[1], 관광 정보 등 다양한 질문에 대응하며 이용자는 LINE 등을 통해 지역의 홍보 캐릭터인 와케마로 군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문함. 서비스 이름은 '와케마로 군'.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학습시켜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마을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특설 사이트에서는 PC로 질문하기도 가능함. 사업비는 약 120만 엔임.

와케 정은 지난해 4월, 왓슨이 탑재된 소프트뱅크의 인간형 로봇 '페퍼'를 지역시설에 도입함. 소프트뱅크의 협력사로서 왓슨을 이용한 AI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던 카멜 측에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제안함.

와케 정이 지역창생과는 언제라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지원 서비스로 지역 주민은 물론 이주 희망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함.

[1] 개호 지원 사업: 개호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층의 간병을 도우며 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단위의 개호 지원 관련 서비스 전체를 의미함.

2017년 11월 22일

출처: <http://www.sanyonews.jp/article/630877>

15. 오카야마 현 쓰야마 시, 상업시설 내에 육아지원시설 개설

올 3월, 쓰야마 시(津山市)의 대형 상업시설 '아르네 쓰야마' 내에 개설한 육아지원시설(2곳)의 이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연말연시 성수기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거나 놀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이용이 점차 많아져 육아 중인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임.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시돌봄 룸 싱글벙글'(4층)은 오카야마 현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쓰야마 시가 보육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에 개설함. 보호자가 일이 있거나 쉬고 싶을 때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음. 넓이 약 120평인 시설에는 놀이공간을 비롯해 낮잠을 잘 수 있는 방이나 수유실도 완비되어 있음. 정원은 약 10명(이 중 0세 아동은 2명 정도)에 보육사 2명이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5명이 이용하고 있음.

연주회에 가기 위해 1살짜리 아들을 맡겼다는 쓰야마 시의 주부 하시모토 카오리 씨는 '딸(4세)과 여유롭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어서 기분전환이 되었다. 아이들도 즐겁게 놀아줘서 앞으로 계속 이용하고 싶다'며 만족감을 보였음.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로, 2시간까지는 400엔(3세미만은 700엔)임. 이후 30분마다 150엔씩 비용이 추가됨.

한편, 1일 평균 100명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부모와 자녀 광장 두근두근'(3층)은 넓이 약 550평의 시설 내에 블록과 교육 완구 소꿉놀이나 볼풀장 등 많은 놀이코너가 마련되어 부모와 자녀, 혹은 아이들끼리 즐길 수 있음.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는 무료로 오전 10시~오후 4시에 이용 가능함.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차를 마시면서 육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휴식시간도 마련됨.

쓰야마 시 어린이과는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어서 시 중심부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보임. 두 시설 모두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장난감 왕국(다마노 시)이 쓰야마 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며 화요일과 신정에는 휴무임(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설).

2017년 12월 18일

출처: <http://www.sankei.com/region/news/171218/rgn1712180032-n1.html>

16. 우라야스 시, 치바 현에 친정이 있는 산모에게도 산후관리 제공

치바 현 우라야스 시(千葉県浦安市)가 출산 후 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서비스를 치바 현에 친정이 있는 산모에게도 제공하기로 함. 산후관리를 실시하는 시내 병원이나 호텔 4개 시설에서

연초부터 차례로 시작함. 이 지역에 친정이 있는 여성까지 산후관리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치바 현에서는 드문 일임.

우라야스 시 건강증진과에 따르면, 이 지역 육아세대의 대부분이 부모세대와 떨어져 사는 핵가족이거나 출산 후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는 친족이 적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산후관리 사업을 도입함. 초산이라 육아를 불안해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산사가 상담을 해주거나 산모 마사지 방법 등을 조언하는 등 산모의 심신을 지원함. 우라야스 시에서는 출산 직후 또는 산후 60일 미만인 산모를 대상으로 최대 6박 7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숙박형' 관리를 도쿄 베이 우라야스 이치카와 의료 센터와 준텐도 대학 의학부 부속 우라야스 병원에서 제공함. 산후 120일 이내인 산모를 대상으로 호텔 객실을 이용한 '당일치기 서비스'를 오리엔탈 호텔 도쿄 베이와 호텔 에미온 도쿄 베이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용 요금은 당일치기가 1일 4천엔, 숙박은 1박에 6천엔임. 2017년 4~10월까지의 이용 실적은 숙박형이 총 48명, 당일치기가 총 133명이었음.

우라야스 시에 친정이 있어도 부모세대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출산 후 친정에 돌아와도 가족이 충분히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산후관리 대상을 확대함. 친정집을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당일치기형은 내년 1월 9일부터, 숙박형은 3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함.

2017년 12월 12일

출처: <https://www.chibanippo.co.jp/news/local/460628>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미에 현 츠 시, 내년 9월부터 영유아 의료비를 '창구무료' 형태로 전환

미에 현 츠 시(三重県津市)의 마에바 야스유키(前葉泰幸) 시장이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년 9월부터 영유아의 의료비를 '창구무료' 형태로 바꾸겠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12월 추경 예산안에 시스템 개선비용 약 1천만 엔을 추가함.

츠 시는 현재 영유아 의료비를 자동상환 지불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일단 자기 부담금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면, 몇 달 후 환자 계좌로 비용이 입금됨. 그러나 향후에는 시가 의료기관에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 시에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짐.

대상은 어린이 의료비,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수급 자격을 가진 미취학 아동(각각 소득 제한 있음)임. 9월 15일 기준 대상자 수는 총 1만 3천여 명으로, 이는 시에 거주

하는 0~6 세 아동의 약 83%에 해당함. 한편 초·중학생은 상환 지불 방식을 유지함.

의료비 청구 무료화를 둘러싸고 정부가 실행 지자체에 국민건강보험 감액 조정 조치를 취하자 지방에서는 ‘패널티’라 반발하였음. 따라서, 정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감액 조정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함. 다만, 어린이 의료비 조성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현은 의료비 청구 무료화에 따른 부담 증가분을 밝히고 있지 않음. 과장급이 참석하는 현과 시정촌 검토회에서 현은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할 후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그 후 시정촌에서 의견 청취를 실시, 연말까지 방침을 결정할 계획임.

의료비 청구 무료화에 따른 진료 증가 등으로 시는 유아 의료비가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작년 조성액은 약 3억 5617만 엔으로, 이 중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1억 7800만 엔이었음. 마에바 시장은 이번 정책은 육아 지원과 중증 질병 예방,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고 하며 ‘현이 무언가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담았다’고 말함.

2017년 10월 13일

출처: <http://www.isenp.co.jp/2017/10/13/8741/>

2. 정부·여당, 보육료 ‘공정가격’ 시설 무상화 추진, 고액 시설에는 지원금 상한 설정

일본 정부 및 여당은 21일, 3~5세의 유아 교육 및 보육 비용 무상화를 둘러싸고 시설 허가, 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료를 설정하는 ‘공정가격’ 시설을 모두 무상화 대상으로 하기로 함. 그밖에 자유롭게 보육료를 책정하는 시설에는 ‘상위층 우대’가 되지 않도록 지원금에 상한 기준을 두기로 함. 이 내용을 자민당 ‘인생 100세 시대 전략 본부’(본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 회장)의 종합 제언에 담음.

제언된 안에 따르면 무상화 대상을 ‘공정가격’ 또는 ‘자유가격’이라는 보육료 설정으로 구분함. 유치원의 경우, 2015년 4월에 시작한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를 이행 중인 시설은 공정가격(월 최대 2만 5700엔)으로,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자유가격으로 비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음. 보육시설의 경우 인가시설뿐 아니라 비인가 시설 중에도 공정가격을 도입한 곳이 있음.

자유가격제로 고액의 보육료를 내야 하는 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상한액을 명시하는 것은 일단 연기하고 정부에 검토를 맡김. 다만 상한액에 대한 설정 예시로 비인가 보육시설의 평균 보육료나 유치원의 공정가격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함.

대기 아동의 90%를 차지하는 0~2세 아동의 경우, 당분간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무상화 대상으로 하여 보육시설 확충 등 대기 아동 해소 방안과 동시에 추진함. 보육·교육 비용 무상화는 2020년도부터 실시되며, 5세 아동에 대해서는 2019년 4월부터 우선 도입함.

대학 등 고등교육 수업료 감면이나 급부형 장학금 확충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로 지원 대상을 한정함. 사립대학은 지원액에 일정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함. 한편, 공명당이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건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는 제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17년 11월 22일

출처: <http://www.sanyonews.jp/article/630877>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오이타 현 우사 시, 안전을 위해 보육시설에 방범카메라(CCTV) 설치

우사 시(宇佐市)가 방범 카메라가 없는 시립 보육시설 4곳과 방과후활동이 열리는 공공시설 등 19개 곳에 CCTV를 설치함. 시에서는 인정어린이원이나 사립 보육시설에도 CCTV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임. 지역 내 인정어린이원에서 지난 3월, 직원과 남아가 원내에 침입한 남자에게 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역 내 모든 보육시설에서 방범 태세를 강화함.

이 사건 후 방범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관련 사업비 약 2200만 엔을 포함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6월 의회에 상정, 같은 달 28일에 통과함.

보육시설 4곳과 공공시설 등에는 내년 3월까지 총 약 70대의 카메라와 모니터, 녹화기기, 긴급신고 장치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임. 또한, 인정어린이원과 사립 보육시설 총 29개 시설에는 최대 180만엔 예산을 투입하여 카메라 신설과 증설 등에 관한 비용의 4분의 3을 지원함.

시 가정교육지원과는 'CCTV를 범죄예방에 활용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한 방범 훈련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운용 방법을 찾고있다'고 말함.

2017년 7월 7일

출처:

<http://www.yomiuri.co.jp/search.html?q=%E5%AD%90%E8%82%B2%E3%81%A6&start=30&sort=desc&ch=&path=http%3A%2F%2Fwww.yomiuri.co.jp%2F>

2. 아타미 시, 보육시설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내달 1일 영광 보육시설 개원

9월 1일, 아타미 시 사키미쵸(熱海市咲見町)에 시 최초 소규모 보육시설인 '영광 아타미 사키미 보육시설'을 개원함. 구 사립유치원 '아타미 아동원'의 시설을 시가 빌려 정비하고 카미주쿠쵸에서 영광 아타미 중앙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영광회에 운영을 위탁하는 새로운 인가 보육시설임. 대상은 0~2세 영아로, 정원은 19명임. 아타미 시는 2019년도 개설 예정인 시립 인정어린이원과 함께 대기 아동 해소를 도모하는 보육사업이라고 설명함.

이곳은 정부가 2015년에 창설한 육아 신(新)지원 제도로 새롭게 허가 대상이 된 소규모 보육 시설임.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육시설 대기 아동 문제 해소 및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소규모 보육시설 개설을 위해 현재 아타미 시가 내부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타미 아동원 시절의 구조나 기능을 살리면서 여유있는 보육환경이 되도록 정비하고 있음. 입학 희망자도 접수 중이며, 대기 아동을 중심으로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함.

시내 보육시설은 현재 공립과 사립 각 3곳으로, 사립 인정어린이원 1곳까지 포함하면 총 7 곳임. 아타미 시 학교교육과에 따르면 모든 시설의 정원이 다 차서 올 3월 말에는 약 40명의 대기 아동이 있었음. 특히 유아는 수요가 많아, 이러한 보육시설 개원은 대기 아동 보호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음.

학교교육과의 한 담당자에 따르면 중심 시가지에 위치해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등록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 중인 인정어린이원과 함께 대기 아동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함.

2017년 8월 17일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817-00000004-izu-l22>

3. 와카야마 현 다나베 시, 시립유치원 4곳에 보육 확충

와카야마 현 다나베 시(和歌山県田辺市) 교육위원회가 내년 4월부터 시립 유치원 4곳에 보육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3-5세 3년 보육의 실현과 탁아 보육에 대한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다나베 시는 9월 시의회에 보육 확충에 따른 시립유치원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제출함.

시립유치원은 신조, 미쓰, 가미아키즈, 나카하야의 4곳. 현재 이곳의 보육은 평일 (수요일 제외) 오후 2:30~4:30까지로 여름방학 등 장기휴가 시에는 실시하지 않음. 또한 이 유치원들은 만 4세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2년 보육으로, 만 3세부터인 3년 보육은 제공하지 않았음.

시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보육의 확충은 봄방학 종료 후인 내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까지 조조(早朝) 보육(아침보육)을 새로 시작함. 지금까지 해오던 일반 보육은 오후 6시 30분까지 연장함. 수요일이나 여름방학 등 장기휴가 시에도 보육을 실시할 예정임.

이용료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아침보육의 경우 매월 1천엔, 일반보육은 4천엔 (8월은 8천엔), 그 외에 교재비, 간식비가 필요함. 시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싶은 부모들의 요구에 응하고, 사립 인정어린이원의 수업료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보육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함.

한편 지난 19일, 나가무라 교육장은 마에다 의원(공산당)이 질문했던 만 3세부터 3년 보육에 대해 '시 어린이·육아지원 사업 계획에 의하면 취학전 공·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정원이 예상 수요를 웃돌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재무 행정 개혁을 고려할 때 (시립 유치원에서) 3세 아동 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재 매우 어렵다'고 답함.

2017년 9월 22일

출처: www.agara.co.jp/news/daily/?i=340219

❖ 기타

1. 교토 지역 전체가 참여한 즐거운 육아 축제

지난 3월 20일, 교토 시 미나미 구 교토 테르사(京都テルサ)에서 지역 전체가 육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유대 축제 in 교토'가 개최되었음. 축제는 육아지원 단체의 활동 소개와 전문가 강연, 거리 공연 등으로 구성되었음.

교토 시는 2016년 8월, 육아지원 및 저출산 대책 관련으로 지역 사업을 지원하는 '교토 육아 피어 지원 센터'를 개설하였고, 이에 맞춰 처음으로 축제를 기획하였음. 교토 시 내에 신설된 11개의 육아지원 단체들에 대한 인증식도 이루어졌으며, 각 단체들은 아기 포대기 시착회나 상담, 패널 전시 등을 진행하였음. 또한, 거리 공연 퍼포먼스로 줄타기 등이 이루어져서 축제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

2017년 3월 21일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321-00000011-kyt-l26>

미국

일·가정 양립		
1	캘리포니아 주, 보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모의 경력 단절	28p
2	미국 고용주의 38%가 유급 육아휴직 제공	28p
3	맞벌이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6가지 방법	29p
4	부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기관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	31p
양육지원		
1	미국, 핀란드의 '아기상자(Baby Boxes)' 도입	32p
2	미시시피 주, 어머니를 위한 직업교육과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32p
3	자녀가 있는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시설과 보육서비스 필요	33p
4	미네소타 주, 가정방문 프로그램 확대	34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4세 보육 프로그램 재원 조달을 위해 탄산음료에 세금 부과 고려	35p
2	콜로라도 주, 종일제 유치원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법안 제출	36p
3	만 4세 유치원 프로그램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민간 자금 지원	36p
4	캘리포니아 주의 2017-2018년도 교육부 예산 증가분 사용처	37p
5	신시내티 시, 만 3세까지 보육비 지원 확대	37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워싱턴 D.C., 영아 보육시설(만 3세 미만)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안 제출	38p
2	웨스트버지니아 주, 유치원 입학 연령 기준을 2개월 늘리다	39p
3	오레건 주, 가정어린이집 규제 완화 법안에 반발	39p
4	어린이집-유치원 간 연계를 위한 노력	40p
5	질 높은 보육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다	41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펜실베이니아의 한 대학 내에 헤드스타트(Head Start) 시설 도입	42p
2	유아 수학교육의 중요성	42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뉴욕 시 부모들, 보육교사의 임금 인상 요구	43p
2	장애아동을 위한 교사교육 시범 시행	44p
아동발달/부모됨		
1	시카고,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	45p
2	스크린 화면에 많이 노출된 영유아,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46p
3	영아사망률을 40% 감소시킨 신생아 초기 건강 프로그램	46p

❖ 일·가정 양립

1. 캘리포니아 주, 보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모의 경력 단절

최근 Edsource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부모들이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는 것과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러한 사실이 부모의 경력 단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은 유아교육 관련 재정을 약 25억 원(226만 달러) 삭감하는 등, 현재로서 경력이 단절된 부모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실정임.

Edsource는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640명의 캘리포니아 주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보육비용은 부모의 자녀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43%의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 계획을 늦추고 있다고 답함.
- 2) 보육에 대한 요구 때문에 부모들의 경력이 단절됨. 46%의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고 답함. 3%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업무 일정을 변경하여서 해고당했으며, 7%는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답하였음.
- 3)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보육비용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72%의 부모들이 그들이 지불한 보육시설의 질이 그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함. 56%는 보육시설의 질이 자녀의 성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2017년 2월 15일

출처:

<http://www.latimes.com/local/california/la-essential-education-updates-southern-embargoedfinding-and-paying-for-1487194867-htmistory.html>

2. 미국 고용주의 38%가 유급 육아휴직 제공

미국 인적자원협회(WorldatWork)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인 중 육아휴직 혜택을 받은 비율은 38%임. 정규직 직원의 경우 평균 4.1주 동안 휴직한 것으로 나타남. 육아휴직 제도는 새롭게 부모가 된 고용인들이 출산 후 몸을 회복하고, 동시에 자녀와 애착관

계를 형성하는 것을 도움. 이는 2016년에 WorldatWork 회원 5,428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신을 받은 386개의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임.

컨설팅 회사 Mercer의 파트너 팸 제퍼드(Pam Jeffords)는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에서 기업의 필수과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함. 유급 육아휴직은 단기 병가 및 정부가 지원하는 연가와 같은 다른 휴직과는 다르게 정의되어 왔음. 또한 고용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유급 시간이나 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음.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갖춘 사업주 중 80%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78%는 모든 고용인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고용인 중 47%는 채용된 날짜부터 육아휴직을 갖는 것이 가능했음.

이와 별개로 5월 4일자에 발표한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사기업 종사자는 13%만 유급 육아휴직을 낼 수 있었음. 전문직 및 기술직 종사자, 높은 연봉을 받는 정규직 직원, 큰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일수록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2017년 5월 17일

출처: <https://www.bna.com/survey-38-employers-n73014451081/>

3. 맞벌이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6가지 방법

올해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s) 단체의 미시간 지부에서는 “ALICE”라고 불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ALICE: 취업 상태이지만 재산과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노동빈민층을 일컫는 말). 2015년 기준 부모와 영아, 유아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월 부담해야하는 보육비용은 \$1,108(약 125만원)으로 보고됨.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al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미시간 주에서 영아 한 명에게 종일제 보육을 제공하려면 연간 평균 \$10,000(약 1천 1백만원)이 필요함.

미시간의 380만 가구 중 40%가 기초생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됨. 동시에 미시간의 각종 기업들은 원하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시간 중소기업 협회의 대표 랍 파울러(Rob Fowler)는 5년 전만해도 기업운영에 있어 보육, 교통, 주택 문제는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았다고 말함. 최근 한 광고회사는 직원들이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아래는 맞벌이 부모가 양질의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업 및 미시간 주 차원의 제언임. 해당 내용은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연구원 캐서린 스티븐스(Katharine Stevens)가 지난 6월에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1) 육아지원을 기업의 우선 가치로 둘 것

- 기업의 리더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보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기업운영에 있어 육아지원을 입법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2) 돈을 기부할 것

- 기업은 자선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책과 자료 기증부터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3)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것

- 비용이 많이 들지만 좋은 선례들이 있음. 잭슨 보험회사(Jackson National Life)는 고용인들의 가정 및 육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으며, 이는 직원을 모집할 때 좋은 홍보수단이 되기도 함.

■ 미시간 주가 할 수 있는 일

1) 더 많은 가정이 보육 보조금을 받도록 할 것

- 미시간 주의 보육 보조금은 최빈곤층에게만 지원되며 엄격한 소득기준이 적용됨. 소득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노동빈곤층(ALICE)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보육비 상환율을 높일 것

- 미시간 주의 보육비 상환 금액은 미국 내 다른 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편에 속함. 인건비는 전체 기관운영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는 충당할 수 없으므로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필요함.

3)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

- 보조금 신청 절차를 완화하여 부모가 필요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복잡한 기관 인증 절차도 보육시설의 수요 및 공급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2017년 10월 23일

출처:

http://www.craigslist.com/article/20171023/blog020/642786/6-ways-to-help-working-parents-in-michigan-afford-child-care?mc_cid=aa3c4b9c7e&mc_eid=3037f8c567

4. 부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기관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

히스패닉 어린이 및 가정연구센터(National Research Center on Hispanic Children & Familie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히스패닉 저소득층은 부모의 비표준적인 노동시간으로 인해 유아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시간이 부모의 노동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인종을 불문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주로 나타남. 히스패닉 저소득층 아이들의 75%가 편부모 가정에 속하며, 비표준적인 노동을 하는 양부모의 자녀가 87%에 달함. 해당 보고서는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이외에 근무하는 것을 비표준적인 노동시간으로 정의함.

히스패닉 및 흑인 저소득층 가정의 70%, 백인 저소득층 가정의 73%가 표준시간 이외에 비표준시간에도 노동을 한다고 보고함. 또한 히스패닉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다른 인종에 비해 근무일정이 늦게 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책임자 리나 구즈만(Lina Guzman)은 근무일정이 매주 바뀌는 부모는 임금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지속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함. 이런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이나 만 4세 유치원(Pre-Kindergarten)보다는 운영시간이 유연한 가정어린이집을 선호함. 주말근무나 야간근무가 잦은 저소득층의 부모에게 일반 유아교육기관은 최선의 선택이 아님.

구즈만(Guzman)은 제조업, 농업, 소매업, 서비스 산업 등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이 저소득층 가정에 미칠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함. 연방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육아발전기금(Child Care Development Fund)이 재승인된 2014년에 주정부로 하여금 보육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음. 하지만 각 주마다 이를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상이함.

2017년 11월 13일

출처:

http://blogs.edweek.org/edweek/early_years/2017/11/should_more_early-childhood_education_centers_offer_extended_hours.html?mc_cid=8f20843c10&mc_eid=3037f8c567

● 양육지원

1. 미국, 핀란드의 '아기상자(Baby Boxes)' 도입

핀란드는 1930년부터 영아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아기상자(Baby Boxes)를 예비 부모에게 지급해오고 있음.

미국의 오하이오, 뉴저지, 알라바마 주는 핀란드의 아기상자 지급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아기상자는 매트리스를 붙여 유아용 침대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고, 기저귀 등 신생아 필수품들을 함께 지급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를 돕고 있음. 핀란드에서는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아기상자나 이에 상응하는 현금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아기상자는 영아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아 사망률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음.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유아용 침대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은 아기상자를 사용하여 영아돌연사 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을 낮출 수 있음.

하지만 아기상자의 실질적인 혜택은 이와 결합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음.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부모가 아기상자를 받기 위해서 부모교육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관련 수업을 수강해야 함. 이 프로그램들은 처음 부모가 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기상자 지급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주 정부들은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 부모들의 양육 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함.

2017년 3월 29일

출처: <http://www.care2.com/causes/finnish-baby-boxes-come-to-the-us.html>

2. 미시시피 주, 어머니를 위한 직업교육과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미시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단체(Mississippi Low-Income Child Care Initiative)의 새로운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취업모 가정의 소득이 다른 가정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반면, 여전히 보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건설업 직업교육(Moore Community House Women in Construction)과 같은 프로그램은 미시시피의 취업모들이 고임금을 받으며 고급 제조기술 산업에서 일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줌. 이 프로그램은 여성이 8주 동안 직업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육비를 지원하며,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을 돕는 등 전반적인 도움을 줌.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노동부와 주정부의 가족복지부의 지원으로 마련된 정액교부금으로 운영됨.

해당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업, 고급제조업, 트럭운전 등의 특정 분야는 남성들의 구성비율이 월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야기함.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들은 행정 및 사무직으로 연간 평균 약 2만 8천 달러의 소득을 버는 것에 비해, 비슷한 경력을 가진 남성이 건설업에서 일할 경우 약 4만 1천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건설업 직업교육(Moore Community House Women in Construc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취약계층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저임금을 받음. 만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취업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미시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단체(Mississippi Low-Income Child Care Initiative)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저소득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직업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2017년 8월 8일

출처:

http://www.jacksonfreepress.com/news/2017/aug/08/report-mississippi-moms-need-more-workforce-traini/?mc_cid=57409d7d34&mc_eid=3037f8c567

3. 자녀가 있는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시설과 보육서비스 필요

유타 주의 어반 크로스로드 센터(Urban Crossroads Center)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 노숙인들은 적당한 가격의 주거시설을 찾기 어려우며 보육서비스 혜택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반 크로스로드 센터(Urban Crossroads Center)는 식료품 및 중고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비영리단체로 전 시의원 디다 시드(Deeda Seed)와 함께 여성 노숙인들의 필요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함. 시드(Seed)는 총 202명의 자녀를 둔 77명의 여성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인터뷰에 응한 여성 노숙인 중 79%가 저소득층 주택에 입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66%가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22%는 소득이 전혀 없고, 78%는 어떠한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주거문제, 최저생활임금, 보육서비스, 교통비용 등 생계유지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시드(Seed)는 새로운 쉼터에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

우 더 많은 노숙인들이 한정된 쉼터와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솔트레이크(Salt Lake) 지역에서 방이 두 개인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990달러로 추정되며, 공실률은 2.6%로 지난 16년 동안 가장 낮음. 주거시설의 공급이 줄고 임대료는 증가하는 현재 상황은 노숙인들이 생활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음.

유타 주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에 1,966개의 가정이 노숙인 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 중 70%에 해당하는 1,389개의 가정이 미혼모인 것으로 나타남. 인터뷰에 응한 여성 노숙인들 중 62명에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으며, 그들 중 85%는 보육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함. 시드(Seed)는 노숙인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시간 당 10달러를 버는 일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함. 그녀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성 노숙인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하는 도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에도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인해 여성 노숙인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실정임. 해당 보고서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 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음.

2017년 12월 13일

출처:

https://www.deseretnews.com/article/900005704/report-homeless-utah-mothers-need-better-housing-child-care-access.html?mc_cid=8c6fe6bd65&mc_eid=3037f8c567

4. 미네소타 주, 가정방문 프로그램 확대

미네소타 보건부가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음. 보건부는 지자체 19개와 자치국 2개에 약 4백 87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급하여 약 300가구를 지원하도록 함. 에드 링거(Ed Ehlinger) 국장은 교부금 지원 결정을 발표하면서 “가정방문은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약 3~6달러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효율적이다. 가정방문은 예방 차원의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으로 추후에 발생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함.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는 임산부와 부모에게 건강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 간호사는 만 2~3세 자녀를 둔 가정에 한해 방문함.

에드 링거 국장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가정방문의 이점을 언급함. “가정방문은 임신 중 위험도를 낮추고, 보호 대상자의 수를 낮추며, 학교준비도를 높인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방문은 매우 필요한 서비스이다.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아이의 4분의 1이 건강한 발달을 위한 지원을 받

지 못했다.”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초산을 한 어머니, 정신질환, 가정폭력, 약물남용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을 지원함. 에드 링거 국장은 이번 지원이 2년 안에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함.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의회와 주지사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약 6백만 달러의 기금 증가를 승인했으며, 그 이후 2년 동안 연간 약 1,650만 달러를 사용토록 승인함.

2017년 12월 12일

출처: https://www.mprnews.org/story/2017/12/12/home-visiting-program-expands-in-minnesota?mc_cid=a61fa5bce9&mc_eid=3037f8c567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4세 보육 프로그램 자원 조달을 위해 탄산음료에 세금 부과 고려

최근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 높은 만 4세 보육 프로그램(PreK)을 경험한 유아가 이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고 함.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뉴멕시코 주에서는 2020년 까지 만 3,4세 보육 프로그램 이용률을 현재 30%에서 80%까지 높이려는 목표를 세웠음.

뉴멕시코 주의 산타페 시에서는 위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마련할 예정임.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에너지음료, 과일주스, 프라푸치노 등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료의 각 온스 당 2센트씩을 부과하기로 함.

산타페 시는 이 방법으로 7백만 달러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함. 모인 재원은 어린이 집의 수용 인원과 접근성을 늘리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어린이 집은 뉴멕시코주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2017년 1월 17일

출처: <http://ksfr.org/post/how-pay-prek-soda-tax-proposal>

2. 콜로라도 주, 종일제 유치원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법안 제출

콜로라도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종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콜로라도 주에서는 유치원 비용의 반만 지원하고, 부모가 자녀 한 명 당 최대 \$400 (한화 약 46만 3천 원, 1달러 = 1,158원 기준)을 지불하고 있음.

이에 콜로라도 주의 입법자들은 종일제 유치원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음. 이와 비슷한 법이 2013-2014년 의회에서 다뤄진 적이 있으며, 하위 법령에는 매년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나와 있음.

총 지원액은 5년 동안 4억 달러에 달함. 공화당 대표 윌슨은 올해 4천 2백만, 내년에 4천 8백만을 각각 지원할 것을 요청함. 지난 10년간 교육 지원비용은 16%가 늘었다고 함.

윌슨의 법안은 교육위원회에 송부되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2017년 1월 24일

출처: <http://denver.cbslocal.com/2017/01/24/another-push-to-fund-all-day-kindergarten-in-colorado/>

3. 만 4세 유치원 프로그램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민간 자금 지원

PNC 은행의 재단은 2004년에 3억 달러에 달하는 'Grow up Great' 민간 자금을 마련하여 미국의 어린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돕고 있음. 이러한 PNC 은행의 행보는 다른 자선사업가, 옹호 단체 및 정부가 어린이들의 학교준비도를 높이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음. PNC 재단은 미시건 주에 위치한 디트로이트시를 2009년부터 후원해왔음. 디트로이트시의 공무원들은 PNC 재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미술 및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근처 박물관 외 여러 단체들과 지역연계를 돕거나, 부모의 현장학습, 학교방문 등을 독려하고, 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지원함.

사브리나 이반스(Sabrina Evans)는 2012년에 PNC 재단이 처음으로 후원한 만 4세 프로그램(PreK)이 있던 초등학교의 교장임. 2012년 당시에는 두 개의 PreK 교실 모두 PNC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지만, 2016년에 새로 생긴 세 번째 PreK 교실까지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그 결과 동일한 학교 내에서도 어떤 교실은 민간 자금으로 더 풍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교실과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교장인 이반스가 민간 자금을

받지 못하는 PreK 교실에 현장학습 지원금 2만 달러 예산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자원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이반스는 민간 자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초등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감사해야하지만, 만약 재단 측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면 모든 PreK 교실에 균등히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2017년 6월 19일

출처:

https://www.theatlantic.com/education/archive/2017/06/how-private-funding-creates-disparities-among-detroits-pre-k-classrooms/530628/?mc_cid=cf9be06ad8&mc_eid=3037f8c567

4. 캘리포니아 주의 2017-2018년도 교육부 예산 증가분 사용처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지난주에 2017-2018년도 교육부 예산을 1,800억 달러로 확정했으며, 이 중 32억 달러는 국공립학교, 전문대학, 만 4세 보육 프로그램 (State-funded preschool programs)의 예산을 결정하는 법안 98호에 할당됨. 이는 지난 해 보다 4.4% 오른 것으로 총 745억원 달러임. 그러나 이 중 만 4세 보육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국공립학교와 전문대학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임.

■ 만 4세 보육 프로그램 예산은 총 1억 3천 6백만 달러이며 사용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뉨.

- 84만 달러는 가정보육시설과 어린이집 외의 보육시설을 지원함.
- 44만 달러는 주정부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지출 청구 비율 인상을 지원함.
- 8만 달러는 2,959개의 종일제 보육 프로그램의 추가 설치를 지원함.

2017년 6월 20일

출처:

<https://edsources.org/2017/how-the-2017-18-funding-increase-for-california-education-will-be-spent/>
583440

5. 신시내티 시, 만 3세까지 보육비 지원 확대

보육위원회(Preschool Promise Board)는 보육비 지원이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함. 지원 기준은 연방빈곤수준(FPL)의 200% 이하, 또는 4인가족 연소득이 4만 8천 6

백달러 이하인 가정으로 만 4세 아동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

자비어 대학(Xavier University)의 총장이자 보육위원회의 의장인 마이클 그라함(Michael Graham)은 “선거인단은 신시내티 보육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에 속한 자녀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보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기회 제공은 수혜자의 필요를 기반으로 한 신생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같다. 첫 해부터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함.

보육확대기금은 신시내티 5년 과정 공립학교에 대한 추가 징수액으로 마련됨.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1,500만 달러의 지출을 감독함. 학부모들은 해당 보조금을 자치구 내에 위치한 75개 이상의 공·사립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음. 가정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또는 학교 내에 설치된 시설에 등록할 수도 있음.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통합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2017년 9월 11일

출처:

http://www.xu.org/post/three-year-olds-now-eligible-preschool-promise-assistance?mc_cid=86150d8ae8&mc_eid=3037f8c567#stream/0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워싱턴 D.C., 영아 보육시설(만 3세 미만)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안 제출

워싱턴 D.C. 시장이 영아 보육 프로그램 확대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근 베이비 붐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사안에 긴급성을 더함.

현재 워싱턴 D.C.의 보육 프로그램은 이 지역의 3세 미만 영아 22,000명(2016년 기준) 중 1/3 밖에 수용하지 못함. 이러한 보육시설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자가 늘어나고, 부모들은 보육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가짐.

2018년 예산안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짓는데 많은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책정되어 있음. 또한 워싱턴 D.C. 소유 또는 임대 건물 세 곳에 보육시설을 새롭게 만들 계획임. 이 예산안이 집행될 경우 약 1,300명의 영아가 추가로 보육시설에 등록할 수 있고, 이는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영아 수에서 20%가 증가된 수치임.

2017년 4월 9일

출처: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social-issues/dc-mayors-budget-aims-to-ease-shortage-of-infant-and-toddler-care/2017/04/09/9698a5f6-1adb-11e7-9887-1a5314b56a08_story.html?utm_term=.7227b27436b7

2. 웨스트버지니아 주, 유치원 입학 연령 기준을 2개월 늘리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매 학년이 시작되는 9월 1일 기준 만 5세여야 함. 웨스트버지니아주 하원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에 의하면, 2019년도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7월 1일 기준 만 5세여야 함. 즉, 유치원 입학 연령 기준을 2개월 늘린 것임.

이 기준은 만 4세 교육 프로그램(Pre-K)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Pre-K 등록은 현 제도와 동일하게 의무가 아닌 부모의 선택에 맡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전국적으로 7월과 8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 추세이며, 웨스트버지니아주도 지난 3년간 7,8,9월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 법안을 주도한 하원의원은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만 5세가 된지 얼마 안 되어 학교에 입학하다 보니 또래아이들보다 학교 적응에 힘들어 하며, 이러한 아이들이 종종 학년을 유보하게 된다고 말함.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비해 너무 일찍 학교에 입학할 경우 선생님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법까지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함. 선생님과 부모 모두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임.

2017년 4월 4일

출처:

<http://www.wvgazette.com/news-education/20170404/wv-house-passes-bill-to-up-kindergarten-pre-k-enrollment-age>

3. 오레건 주, 가정어린이집 규제 완화 법안에 반발

오레건 주는 가정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음.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가정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기 위함임. 가정어린이집의 시설장들은 해당 법안이 기관 운영을 용이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찬성함.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지므로, 가정어린이집은 지금보다 적은 교사를 고용하여도 운영이 가능함. 현재 만 2세 반 아동은 영아로 분류되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4임. 새로운 법안은 만 2세 반 아동을 유아로 구분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8까지 올리고자 함. 보육전문가들은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보육의 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기함.

또한 이 법안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등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아 보육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영유아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반발함.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가 후 18개월 내 불시 평가제도가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2017년 7월 20일

출처:

<http://www.pressherald.com/2017/07/19/child-care-advocates-criticize-new-rules-that-would-ease-child-care-regulations/>

4. 어린이집-유치원 간 연계를 위한 노력

최근 뉴아메리카(New America)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 워싱턴, 오레건,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어린이집-유치원 연계(transition)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콜로라도 주는 “Result Matter”라는 시스템을 갖추어 매년 47,000명의 영유아의 발달 및 성취도를 평가함. 이러한 결과는 부모 및 교사들에게 유용한 지표가 되고 있음.

Result Matter 시스템은 2006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 전역의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eaching Strategies GOLD 평가 도구를 사용한 결과를 관리하고 있음. 유치원에서 아동을 평가할 때는 서면이나 컴퓨터를 주로 이용하는 반면,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아동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함.

뉴아메리카 보고서는 Result Matter 시스템이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정보 교환 및 파트너십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함. 반면, 전산 상으로 관련 기록을 넘길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현재는 어린이집 교사가 각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출력하여 유치원 교사에게 직접 보내거나, 부모가 전달하도록 하는 실정므로,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은 보다 나은 정보 교환 방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7년 7월 12일

출처: <https://www.denverite.com/colorado-highlighted-national-report-easing-transition-preschool-kindergarten-39212/>

5. 질 높은 보육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다

디트로이트 북서부에 위치한 윈스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보일러 고장으로 교직원과 부모들이 한동안 어려움을 겪음. 해당 프로그램의 기관장인 샬리 본(Sally Bond)은 “보일러의 잦은 고장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기관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함.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교육환경에서 학습능력이 증가함. 질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계획적으로 설계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교육공간에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웰빙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로도 볼 수 있음. 많은 경우, 교육환경의 질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인가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 경향이 있음. 실내 공기 질, 온도, 출입구, 가구, 단체 활동 공간, 환기구 등에 관한 인가 기준은 질 높은 유아교육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보아야 함.

교육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이 아이들의 학습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음. 한 연구에서 환기가 잘 되며 편안한 온도에서 학습한 학생의 성취도가 더 높았으며, 질 높은 환경은 교직원의 직업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있음.

디트로이트와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의 많은 건물들도 낙후되어 교육시설에 적합하지 않았음. 하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재투자기금(Reinvestment Fund)이 마련되어 시설의 질을 높이고 기관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함. 2014년에 윌리엄 펜 재단(William Penn Foundation)으로부터 450만 달러, 재투자기금으로부터 150만 달러, 그 외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질제고 기금(Fund for Quality)를 마련했음. 2016년 윌리엄 펜 재단에서 1천 5백만 달러를 추가로, 재투자기금에서 760만 달러의 용자 자본을 더했음. 그 결과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약 90%에 달하는 63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까지 1,500개를 더하는 것이 계획임. 대다수의 소규모 교육기관에는 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좋은 시설이 확충되었을 때 교육 프로그램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필라델피아와 디트로이트의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2017년 8월 7일

출처:

http://www.modeldmedia.com/features/IFF-special-report-080717.aspx?mc_cid=0774c20354&mc_eid=3037f8c567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펜실베이니아의 한 대학 내에 헤드스타트(Head Start) 시설 도입

루체른 헤드스타트(Luzerne County Head Start)와 루체른 대학(Luzerne County Community College) 관계자들은 상생협력을 위한 헤드스타트 시설 개관식을 진행함.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대기자 명단에 올랐던 약 30명의 4세 유아들이 대학 내에 새로 설치된 시설에 다닐 수 있게 됨. 루체른 대학의 총장 토마스 리어리는 “대학 내에 헤드스타트를 설치한 것은 훌륭한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시설이 우리 대학의 학생들과 유아들 모두에게 유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함.

루체른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2학년 안젤라 로만(Angela Roman)은 전공 필수로 140시간 동안 유아를 관찰해야 함. 대학 내 헤드스타트 교실이 생겼기 때문에 아동관찰이 용이해졌음. 또한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에게 보육시설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이번에 설립된 헤드스타트 시설은 루체른과 와이오밍 자치구 내의 26번째 비영리기관이며, 여러 세대에게 동시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루체른 대학의 총장 리어리는 이번 기회로 대학이 교육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함.

2017년 9월 21일

출처: <http://www.pahomepage.com/news/head-start-center-opens-at-college/816003298>

2. 유아 수학교육의 중요성

대부분의 부모들은 조기 언어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함. 읽기, 노래하기, 이야기활동 등은 유아 스스로 읽기 전에 그들의 호기심, 공감능력, 독서습관을 기르도록 도움을 줌. 하지만 유아 수학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어 왔음.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데보라 스타이펙(Deborah Stipek)은 생애초기의 수리적 사고능력이 성공적인 교육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함. 2007년 한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 때 측정한 수학 점수가 이후 3학년과 5학년의 수학 및 언어 점수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남. 지속적으로 낮은 수학점수를 받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13% 낮았으며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29% 낮았음.

스타이펙(Stipek) 교수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수학을 즐겁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함. 놀이

와 교육은 양자 택일의 대상이 아니며,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교사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언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처럼 수학적 학습도 충분히 즐거운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음. 교사는 목표, 놀이, 그리고 평가방법에 맞게 교실환경을 구성해야함. 예를 들어, 분류하기가 학습목표라면 교실 내의 장난감을 분류해보는 것으로 놀이 활동을 구성해볼 수 있음.

스타이펙(Stipek) 교수는 계층 간 초기 학습능력의 차이는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아 수학교육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함. 1980년대에 이미 저소득층 자녀와 고소득층 자녀의 어휘구사 능력에 차이가 밝혀진 바 있으며, 수리적사고 능력도 계층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초기 유아교육은 이러한 학습능력의 차이를 좁힐 수 있기 때문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

2017년 11월 13일

출처:

https://qz.com/1125046/a-stanford-professor-says-we-should-teach-more-math-in-preschool/?mc_cid=fef0cda20c&mc_eid=3037f8c567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뉴욕 시 부모들, 보육교사의 임금 인상을 요구

2015년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한 시간 평균 \$9.77 (한화 약 11,300원, 1달러=1,158원 기준), 연 평균 \$20,000을 버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패스트푸드 종업원 및 다른 식료품산업 종사자들의 시급보다 68% 많으며, 소매상인들보다 83% 적음.

1977년 이후 보육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보육교사의 처우는 그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뉴욕시의 부모들은 교사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음.

라이언 씨의 딸은 뉴욕시에 있는 브라이트 호라이즌(Bright Horizon: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에 다니고 있음. 브라이트 호라이즌은 미국 내에 있는 유아교육 회사들 중 매우 큰 규모에 속함. 브라이트 호라이즌은 932개의 위탁 업체에서 100,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비용은 1년에 \$30,000에 달함.

낮은 임금으로 인해 담임교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이언 씨는 다른 부모들

과 함께 보육교사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브라이트 호라이즌의 CEO에게 제출함. 이에 브라이트 호라이즌은 교사들에게 전문교육의 기회 및 복지후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미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음.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3-4세 담임교사들은 영아반 교사들보다 시간당 평균 \$4정도를 더 받지만 이들 중 46%는 정부 생활보조를 받고 있으며, 다른 일을 병행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음.

전국적으로 보육교사의 이직률은 매년 1/3에 달함. 이러한 높은 이직률은 주변 사람들과 애착 형성을 해나가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라이언 씨는 보육 교사의 임금이 적어도 공과금을 납부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설령 그것이 보육비용의 인상을 야기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함.

2017년 2월 23일

출처:

<http://www.cbsnews.com/news/parents-push-for-higher-wages-bright-horizons-childcare-workers/>

2. 장애아동을 위한 교사교육 시범 시행

미국 교육부가 2014년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5,000명의 장애아동이 2011-12년도에 학교로부터 한번 이상 출석 정지(School suspension) 요청을 받음.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로스엔젤레스 국공립 어린이집(Lost Angeles Universal Preschool)단체는 로스엔젤레스 노동기구와 협력하여 특수교육자격증(Exceptional Populations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함.

특수교육자격증 프로그램은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이나 신체 및 감정/행동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위하여 고안되었음. 프로그램 관리자인 엘리 페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동시에, 장애아동들이 가정과 매우 다른 환경인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임.

교사들은 로스엔젤레스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한 특수교육자격증 프로그램을 16주 동안 수강하며 트라우마 돌봄, 장애아동을 위한 각종 법과 사회서비스, 아동관찰 등에 대해 배움. 교사들은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관찰 기법을 사용하여 장애아동의 행동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효과적인 교수법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짐. 해당 교육을 수료한 미셸 샘라드

(Michelle Semrad)는 "특수교육자격증 프로그램에서 배운 관찰 기법은 장애아동의 발달에 맞는 교수법을 토대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다" 라고 말함. 로스앤젤레스 국공립 어린이집 단체는 이 프로그램을 도시권으로 확장하여 더 많은 교사들이 수강하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음.

2017년 6월 12일

출처: <http://www.cbc.ca/news/politics/liberal-government-unveils-child-care-framework-1.4156348>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ottawa-signs-child-care-deal-targeting-families-in-need/article35285367/>
<http://globalnews.ca/news/3520212/liberals-announce-new-child-care-agreement-but-who-will-it-help/>

●● 아동발달/부모됨

1. 시카고,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카고 아동들의 폭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함. 아동의 폭력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빈곤, 학교 부적응, 부모의 실업 등 다양함. 그러나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주요 원인으로 아동과 부모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극한 스트레스가 있음.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또한, 반복적인 트라우마는 아동들의 정서발달을 지연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낮추며, 만성 건강 질환에 노출시킴.

시카고의 상원의원 덕 델빈과 하원의원 대니 데이비스는 “Trauma-Informed Care for Children and Families” 법안을 발의하여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함.

아동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법안은 학교 내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늘릴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각 가정의 실정에 맞는 치료를 제공할 예정임.

2017년 3월 30일

출처: <http://chicago.suntimes.com/opinion/a-bill-to-help-kids-suffering-from-trauma/>

2. 스크린 화면에 많이 노출된 영유아,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연구에서 영유아가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PC를 사용하면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책임자이자 소아과 의사인 토론토대 캐서린 버킨 박사는 최근 모바일 기기 사용이 만연한 것을 원인으로 언급하였음. 소아과 지침서는 영유아들이 스크린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은 아주 흔한 현상이 되었음. 이 보고서는 영유아의 스크린 노출 시간과 언어발달 지연 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연구하였음.

연구결과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18개월 미만 유아의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이 연구는 토론토에 거주하는 영유아들(6개월~만 2세) 약 900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18개월이었을 때 아이들의 약 20%가 하루 평균 28분 동안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진은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스크린에 노출되었을 때 표현적 언어 발달이 지연된다고 밝힘.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이 하루에 30분 늘어날 때마다, 언어지연의 위험이 49% 높아졌음. 반면 모바일 기기 사용과 사회적 상호작용, 신체 언어, 제스처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이 연구는 영유아의 모바일 기기 사용과 언어능력 발달의 상관관계를 어느정도 보여줌. 하지만 이 둘의 확실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2017년 5월 4일

출처:

http://health.usnews.com/health-care/articles/2017-05-04/a-toddlers-screen-time-tied-to-speech-delay?mc_cid=fe1aaae14c&mc_eid=3037f8c567

3. 영아사망률을 40% 감소시킨 신생아 초기 건강 프로그램

응급실 의사이며 볼티모어시의 보건 위원인 웬(Wen)은 최근 첫 아이를 출산하였고 모유수유를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 모유수유의 과학적인 장점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92%가 첫 모유수유 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었음. 웬(Wen)은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몸소 겪으며 육아가 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고, 산모들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초기 건강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기로 함. 신생아 초기 건강 프로그램(B' More for Healthy Babies: BHB)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공중보건도우미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신생아의 안전 수면교육(아기 혼자서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자게 함), 모유수유 교육, 금연 및 주택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2009년에 BHB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신생아 사망률은 거의 40%가 줄었으며, 특히 흑인과 백인의 사망률 차이가 절반 가까이 줄었음. BHB 프로그램은 볼티모어의 모든 병원과 지역사회 단체 및 교회와 연계되어 있으며, 수면 중 영아돌연사 비율이 7년 동안 70% 감소하는 효과를 보임.

BHB 프로그램은 산모의 출산 전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함. 한 연구에 따르면 산전 돌봄을 받지 않은 여성의 자녀의 사망률은 돌봄을 받은 여성의 아이보다 5배 가까이 높음. 웬(Wen)은 임신기간 동안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건강보험이 있었음.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도 초음파 및 혈액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모든 건강보험이 산모들의 추가 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녀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기초보장제도가 확립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들을 도와 그들이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함.

전 세계에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없는 나라는 두 곳인데 그 중 하나가 미국임. 산후우울증 감소, 아기의 질병 감소 등 출산휴가의 건강상 이점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 중 1명의 여성은 출산 후 2주 안에 복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웬(Wen)은 순산했고 이후에도 건강했지만, 아기가 돌봄을 필요로 하고 산모 본인의 몸이 회복단계에 있을 때 복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함. 그녀는 출산 후 8주 만에 복직했으며, 이 또한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그리고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직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말함.

만약 가족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라면, 관련 정책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유급 육아휴직제도, 병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중보건정책이 필요함. 초기 육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각 가정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임. 특별히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출산에서부터 시작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2017년 10월 22일

출처:

http://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7/10/22/559012217/learning-to-care-for-my-newborn-was-a-humbling-experience?mc_cid=aa3c4b9c7e&mc_eid=3037f8c567

캐나다

일·가정 양립		
1	신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	49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이 3년 내에 B.C.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연구결과	50p
2	B.C.주 총선거를 앞두고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의 본격적인 선거 이슈화	51p
3	B.C.주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보육에 있어 퀘벡식 모델은 '결함이 있는 모델'로 밝혀	52p
4	트뤼도 정부, 향후 10년 간 영유아기 보육·교육에 70억 달러 투입	54p
5	앨버타 주 '하루 25달러 보육료 정책' 시행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55p
6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보육정책 대립	56p
7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 간 보육제도 협약 체결	58p
8	퀘벡 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추가 예산 투입 발표	59p
9	IMF,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59p
10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관련 양자협약 체결	60p
11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예산 증액	62p
12	B.C.주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시행을 두고 난항	63p
13	토론토 시민들, 전액 재정지원 받는 공공어린이집에 찬성	65p
14	B.C.주 집권 신민당, 내년 2월 이후 '보편적 보육정책' 구체화 의견 밝혀	65p
15	뉴브런즈윅 주정부, 영유아교사의 급여 인상 위해 2800만 달러 투입	66p
16	2017년 캐나다 보육비용,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올라	67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B.C.주 인가어린이집 확충과 지원에 대한 요구 다시 거세져	69p
2	토론토 시장, 온타리오 주정부의 보육지원 공약 이행을 촉구	70p
3	토론토 시, '보육성장전략' 발표 - 2026년까지 3만명의 보육정원 확충 필요 외	71p
4	앨버타 주 아동서비스부 장관,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보육 현안 논의	73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오타와 시, 비인가 방과전·후프로그램에 대한 6세 미만 아동 이용 금지	74p
2	노바스코샤 주정부, 9월부터 43개 지역에 무료 Pre-primary care 운영계획 발표	75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퀘벡 주 어린이집 교직원, 대규모 파업에 돌입	76p

❖ 일·가정 양립

1. 신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

연방정부의 ‘가족·아동·사회 개발부’ 장관인 장-이브스 듀클로스(Jean-Yves Duclos)는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신생아 부모의 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매달 지원액을 줄이는 대신 18개월로 늘릴 것인지 선택하는 제도를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된 아동의 부모는 오는 12월 3일 이후부터 고용보험의 지원액 총액을 기준으로 기존처럼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선택할지 아니면 매달 지원액을 줄여서 최대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함. 더불어 ‘돌봄(caregiver) 수당’에 대한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이는 중증 질환 및 장애를 가진 ‘성인’의 간병을 위한 15주의 휴직 제도와 중증 질환 및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간병을 위한 35주 휴직 제도를 포함함.

듀클로스 장관은 “휴직제도 선택에 있어 이러한 유연성은 각 가정이 자신의 형편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스스로 내려 만족도를 높이게 한다는 강점이 있다”고 밝힘.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연방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제 분야, 예를들어 은행, 통신회사, 운수회사, 공공 서비스 영역 종사자(추정치로는 캐나다 인구의 약 8%)는 바로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각 주별, 직종별, 직장별 수당 및 휴직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분야의 종사자들은 관련 규정의 변경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함. 근로자의 90% 정도가 주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함.

또 다른 비판은 고용보험 수당의 감소로 인해 휴직기간을 늘리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임. 현재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사람은 평균 주급의 55%를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는데 비해, 18개월을 선택하는 사람은 평균 주급의 33%만을 지원받음. 따라서 실제로 22%나 되는 수당 감소를 감내하고 6개월 더 육아휴직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임. 고용주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훈련시키며 근로여건을 유지하는 등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2017년 11월 9일

출처:

<http://www.cbc.ca/news/business/parental-leave-ei-business-newborns-maternity-canada-1.4395055>

<http://www.cbc.ca/news/politics/parental-leave-announcement-1.4394512>

<http://www.cbc.ca/news/politics/parental-leave-term-extension-1.3840314>

<http://www.cbc.ca/news/canada/prince-edward-island/pei-federal-government-extended-parental-leave-1.4395329>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이 3년 내에 B.C.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이란 연구결과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10-a-day child care policy)"이 늦어도 3년 후부터 B.C.(British Columbia)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경제학자인 Robert Fairholm이 주도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정책은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의 업무효율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Fairholm은 CBC방송의 BC Almanac 프로에서의 대담 중 "보다 많은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취원함에 따라 부모들의 직장생활 내지 학업생활이 더 원활해 질 것"이며, 1990년대 중반 '하루 7달러 보육료 플랜'을 시행했던 퀘벡 주의 경우 플랜 시행 전 어머니 취업률은 현재의 B. C.주와 유사했지만, 플랜 시행 후 어머니 취업률이 크게 상승했던 것에 비추어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역시 B. C.주의 노동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음.

그는 2017년에 이 정책이 도입될 경우, 향후 3년 내에 B.C.주의 노동력 수준은 1.7%가 상승할 것이며, 정책 도입에 따라 신규 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정원이 확충되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일자리가 늘고 소득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Fairholm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 정책은 정부의 재정투입 측면에선 총 1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지만 세금 측면에선 120억 달러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임.

공동저자인 Lynell Anderson에 따르면,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은 비용적정성 측면과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도 많은 부모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며 특히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한편 B.C.주 신민당(NDP) 당수인 John Horgan은 다음 선거에서 집권할 경우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음.

향후 B. C.주의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도입 여부는 캐나다 전체 차원에서도 육아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 이슈라는 점에서, 'Babay Mac'의 사망을 전후하여 다시금 재점화 된 B.C.주의 공공보육지원 및 퀘벡식 보육료정책의 도입 요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2017년 1월 19일

출처 : <http://www.c4se.com/documents/ECEBCreportssummary.pdf>

<http://www.cbc.ca/news/canada/manitoba/manitoba-child-care-association-poll-1.3881658>

2. B.C.주 총선거를 앞두고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의 본격적인 선거 이슈화

5월 9일 실시되는 B.C.주 총선거의 캠페인 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집권당인 B.C. 자유당에 맞서 야권으로부터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10-a-day child care policy)'의 실시 공약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이 정책이 본격적인 선거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경제학자인 Robert Fairholm이 주도한 연구에서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이 시행 후 최소 3년 이후부터는 투입재정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결과가 CBC 방송 대담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음. 특히나 이 정책은 비용적정성 측면과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연소득 4만달러 이하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그러나 자유당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비용에 대한 공적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자유당의 B.C.주정부는 현재와 같은 양육보조금 제도로 충분하다며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유당의 후보 내지 예비후보들에게서도 보육료에 대한 공적지원은 공약의 목록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반면, 야당인 B.C.주 신민당(NDP)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이슈로 만드는 시동을 하고 있음. 2016년 10월, 당수인 John Horgan은 신민당 집권 시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단체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음. 그러나 한편으로 실제 총선 승리 시 어떻게 해당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고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신민당은 조만간 명확한 정책도입 및 기대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임.

한편, 가족정책 연구자이자 '하루 10달러 보육료 플랜'이란 단체의 대변인인 Lynell Anderson은 이 정책이 새롭게 6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B.C.주 GDP에 있어 58억 달러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란 보고서 결과를 인용하며,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

책은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와 이익, 긍정적인 세수 증감과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친환경적 저탄소 일자리 창출 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책대안 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CPA)'에서 발간한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B.C.주 전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해 퇴직하는 부모들로 인한 사업 손실 규모가 연간 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나 후보 외에도 어린이집 비용 부담, 그리고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한 입소 문제를 성토하는 유권자 및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제적 손실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이 보다 본격적인 선거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2017년 2월 23일

출처: <http://www.inews880.com/syn/112/277739/277739>

<http://www.vicnews.com/news/414716843.html>

<http://www.cbc.ca/player/play/857806403937>

3. B.C.주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보육에 있어 퀘벡식 모델은 '결함이 있는 모델'로 밝혀

5월 9일 실시되는 B.C.주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학부모 단체 등에서 퀘벡식 모델을 본받아 B.C.주에서도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싱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에서 발간된 보고서가 "퀘벡의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결함이 있는 정책 모델"이라고 밝혀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97년 퀘벡 주에서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하루 보육료 5달러" 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후, 많은 사람들과 단체, 정치인들이 이것을 '보편적 보육 정책'의 지지 모델로 손꼽고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결함이 있는 정책모형임.

- (1) 비용 및 경제적 효과 측면: 기존의 지지자들과 연구들에서 퀘벡식 모델 시행으로 인한 어머니의 노동시장 진출 효과 등이 경제적 성장과 세수 증대 등으로 정책시행에 드는 비용을 상쇄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해도, 퀘벡주 정부는 매년 12억 달러의 예산을 더 들여야 하는 실정임.

- (2) 아동발달 측면: 기존의 지지자들과 연구들은 퀘벡식 모델 시행으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과 교육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받게 되어서 발달적인 면에서 볼 때도 더 나은 성과를 얻었다고 함. 그러나 장기적인 증거들을 취합해 보면 상충되는 결과들도 많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음. 오히려 과잉행동, 공격성, 불안증상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신체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걱정스러운 결과도 나타남.
- (3) 입소대기 및 접근성 측면: 보편적 보육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입소 대기시간은 여전히 길고 접근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음. 보육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이 낮아 이용가능성이 다른 주에 비해 높다고 해도, 여전히 접근성의 문제나 입소대기의 문제는 눈에 띄는 실정임. 특히 주정부가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하면 비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 (4) 보편성에 대한 평가 측면: 여전히 지역에 따른 어린이집의 수나 정원 등의 격차가 존재하고,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어린이집에 자녀를 더 쉽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universal)'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5) 정책 제안: 주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재정을 지원해서 비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가정에 직접 수당이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대해 B.C.주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 및 관계자들은 해당 보고서와는 다른 시각과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고 반박했음. 특히 지난 1월 경제학자인 Robert Fairholm이 주도한 연구에서는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이 시행 후 최소 3년 이후부터는 투입재정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결과가 CBC 방송 대담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음. 또한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안'은 단순히 퀘벡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퀘벡식 모델이 완벽하다고 추종하는 것도 아니며, 이미 2011년 처음 정책안이 나왔을 때부터 검토를 거쳐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현재 집권당인 B.C.주 자유당은 퀘벡식 보육모델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반면, 야당인 B.C.주 신민당(NDP)은 적극적으로 해당 정책 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를 둘러싼 해석과 평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2017년 3월 28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fraser-institute-10-dollar-day-care-1.4044012>

<https://www.fraserinstitute.org/studies/quebecs-daycare-program-a-flawed-policy-model>

4. 트뤼도 정부, 향후 10년간 영유아기 보육·교육에 70억 달러 투입

지난 3월 22일, 캐나다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총 70억 달러를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연방 재무장관인 빌 머너(Bill Morneau)는 연방의회에서 총 3,050억 달러 규모의 2017 회계 연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특히 보육 관련 예산은 어린이집 수용 정원의 확대에 유용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육 및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음.

(1) 조기교육 및 보육 지원

2016년 연방예산에 이미 잡혀있는 5억 달러를 비롯해 향후 10년간 영유아기 보육·교육 프로그램에 총 70억 달러 배정. 예산 활용의 목적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원 확대에 초점을 둠.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연방예산이 지원된다고 해도 퀘벡 주, 매니토바 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준주(準州) 이외의 지역에서는 연방의 지원 예산이 어린이집 확충 및 정원 확대보다는 보육료 지원에 전용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기대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2) 유급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15년 연방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연장함. 그러나 12개월 육아휴직을 선택할 경우에는 유급 고용수당(Employment Insurance(EI) benefit)을 평균 주급의 55%까지 받을 수 있었던데 비해, 18개월을 선택할 경우에는 33%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함.

유급 출산휴가의 연장은 특히 영유아를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보육료 부담도 큰 상황에서 가정에서 보다 여유 있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미리부터 직장 복귀를 대비해 어린이집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그러나 EI 고용수당을 받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비정규직 중심의 저소득층에게는 이번 개편된 제도의 혜택이 크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우려도 존재함.

(3) 학생 신분 부모를 위한 학비보조금 수령 요건 완화

미취업 상태의 학생 신분 부모들의 학업생활 유지를 위해 '캐나다 학비 보조금(Canada

Student Grants)을 받을 수 있는 수령 요건을 완화함. 특히 소득한도를 상향하여 보다 많은 학생 신분 부모의 보조금 수령을 유도함. 이 조치로 부양해야 할 자녀를 두고 있는 13,000명의 학생 신분 부모들이 새롭게 해당 학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4) 외국인 보모 고용 지원

해외에서 온 보모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보모의 취업 인가증 발급 과정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달러를 공제함. 그러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가구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함.

향후 보다 구체적인 관련 재정 활용계획이 어떻게 구성될지, 그리고 예산의 활용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귀추가 주목됨.

2017년 3월 22~25일

출처 : <http://www.cbc.ca/news/politics/federal-budget-highlights-2017-1.4032898>

<http://globalnews.ca/news/3328107/federal-budget-2017-liberals-extend-parental-leave-to-18-months-boost-childcare-funding/>

<http://news.nationalpost.com/news/canada/canadian-politics/federal-budget-2017>

5. 앨버타 주, ‘하루 25달러 보육료 정책’ 시행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앨버타 주정부가 2015년 앨버타주 총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퀘벡식 공공보육 지원정책, 이른바 ‘하루 25달러 보육료 정책’의 본격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을 공식 발표함.

앨버타주의 레이첼 노트리(Rachel Notley) 수상은 퀘벡식의 공공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고, 보육 수용 정원을 크게 늘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동시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취업과 채용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해 왔음. 이와 관련해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 끝에, 앨버타 주정부는 우선 22개 조기 교육 및 보육 센터(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Centre, 이하 ELCC Centre)에서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4월 6일 발표함.

우선 22개 ELCC 센터에 대한 공적지원을 통해 1,296명의 정원을 확충하고, 119명의 신규 보육인력을 고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257명의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으로 주정부는 예측함. 이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천만 달러임.

앨버타 주정부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앨버타주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으로 '하루 25달러 보육료 정책'을 확대하기 전 단계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하면서, 재정상황이 보다 개선되면 주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날인 5월9일 British Columbia주(이하 B.C.주)의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온타리오주와 함께 보육비 부담이 큰 B.C.주에서는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이라고 칭하는 유권자들의 공공보육료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집권 자유당은 '퀘벡식 모델은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으며, 현재의 수당 지원 체계로도 충분하다'며 공공보육료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 온타리오주의 집권 자유당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음.

앨버타주의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과 그 결과, 그리고 정책의 확대 여부 및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향후 캐나다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2017년 4월 6일

출처:<http://edmonton.ctvnews.ca/province-launches-pilot-program-to-provide-25-day-child-care-1.3357669>
<http://www.cbc.ca/beta/news/canada/edmonton/province-names-centres-to-provide-25-a-day-daycare-1.4058493>
<http://www.cbc.ca/news/canada/edmonton/programs/edmontonam/25-dollar-a-day-childcare-is-coming-to-alberta-1.4060842>

6.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보육정책 대립

노바스코샤 주의 총선거가 오는 5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자신만의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대립하고 있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자유당은 Stephen McNeil 수상이 “만 4세 아동을 위한 Preschool 프로그램을 올해 가을부터는 모두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 현재 노바스코샤주에서는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에 의한 Preschool 프로그램 운영이 혼재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보육비용 역시 천차만별임. 예를 들어 노바스코샤의 주도(州都) 헬리팩스에 위치한 비영리기관 Needham Preschool and Daycare는 4세 아동을 위한 pre-primary program(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오후 5시30분)의 한달 보육료가 830달러(한화 약 93만원)이지만, 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보다 보육료가 높은 편임. 집권자유당은 2020년까지 매년 4900만 달러(한화 약 549억원)를 투입해 9,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자유롭게 preschool 프로

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음.

이에 대해서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공재정을 통해 이것을 무료로 학부모와 아동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4세 아동에 대한 preschool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연령대 아동을 위한 daycare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됨.

한편, 신민당(NDP)은 퀘벡식의 공공보육료 지원 모델을 표방하며 ‘하루 15달러 보육비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움. 노바스코샤 NDP의 리더인 Gary Burrill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① 연간 순수입이 3만 달러 미만인 가구의 경우에는 무료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② 주 전체에 보육정원을 400명 이상 증대하며, ③ 하루 15달러(한화 약 1만7천원) 보육료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5월 16일 발표함. 이를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증가하면서 2021년까지 최종적으로 연간 7,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함. 그는 이 정책을 통해 현재 매달 780달러~830달러 수준인 보육료 부담을 크게 낮추고 나아가 800개 이상의 보육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이에 대해 노바스코샤주 진보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의 리더인 Jamie Baillie은 두 당의 정책이 모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 반면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함.

5월 26일 현재를 기준으로, 밴쿠버가 자리하고 있는 British Columbia주 NDP는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공약을 통해 의석수를 35석에서 41석으로 크게 늘려, 녹색당과의 연합을 통한 연립정부 수립을 노릴 수 있게 되었음. 앨버타주 NDP 역시 ‘하루 25달러 보육료 정책’에 힘입어 2015년 앨버타주 선거에서 승리했고, 해당 정책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음. 이처럼 NDP는 퀘벡식 공공보육료 지원 모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오는 30일 노바스코샤주 총선거에서 각 당의 보육정책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됨.

2017년 5월 3일, 17일

출처 : <http://www.cbc.ca/news/canada/nova-scotia/nova-scotia-liberals-universal-daycare-program-election-1.4097626>

<http://www.citynews.ca/2017/05/16/ndp-defends-plan-to-run-deficits-while-tories-accuse-party-of-reckless-spending/>

7.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보육제도 협약 체결

빈곤층 가족의 아동 보육을 위한 전국 규모의 보육 협약이 캐나다 연방정부와 여러 주정부 간에 체결됨.

가족부장관인 Jean-Yves Duclos는 6월 12일 월요일 오타와에서 각 주 및 준주(準州) 관계자들과 함께 ‘조기 교육 및 보육에 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Multilateral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Framework)’ 협약에 서명함. 이 협약은 우선 취약가족 아동의 보육을 시작으로 하여 ‘완전 포괄적(fully inclusive)’인 보육제도를 캐나다 전역에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평등성, 접근성, 이용가능성, 유연성, 포괄성이라는 5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번 회계연도를 포함해 11년간 연방정부가 배정할 총 75억 달러의 보육 관련 예산을 사용하기로 함.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 3년을 시한으로 하는 개별 양자협약을 체결하게 됨. 3년간 총 12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양자협약은 연방정부의 지원예산 활용에 대한 아웃라인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주별 특성과 필요에 맞게 각 주정부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구성·운영하게 될 예정임. 이 예산은 지난 3월 22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총 75억 달러 규모의 보육 투입 예산안의 일부임. 한편, 협약당사자 중 하나인 매니토바 주 관계자에 따르면, 첫 3년 동안 지원되는 연방예산은 저소득 가족, 원주민 가족, 한부모가족 및 서비스 기반시설이 불충분한 지역 거주가족 등 취약가족의 보육 지원에 우선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총 4만 명의 보육 정원 증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한편으로 Duclos 장관은 연방정부의 최종 목표는 ‘보편성’과 ‘포괄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함.

한편 이번 협약에는 퀘벡주와 B.C.주가 참여하지 않음. 퀘벡주는 자체적인 보편적 보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B.C.주는 5월 치뤄진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관계로 아직 정부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보육제도 개선과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약 체결이 향후 캐나다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2017년 6월 12일

출처: <http://www.cbc.ca/news/politics/liberal-government-unveils-child-care-framework-1.4156348>

<https://www.theglobeandmail.com/news/politics/ottawa-signs-child-care-deal-targeting-families-in-need/article35285367/>

<http://globalnews.ca/news/3520212/liberals-announce-new-child-care-agreement-but-who-will-it-help/>

8. 퀘벡 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추가 예산 투입 발표

퀘벡 주의 집권 자유당 정부가 다가오는 올해 학년도 초부터 4세 아동을 위해 100개의 반을 신설하고,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 계획을 밝힘.

퀘벡 주는 100개의 반/학급 증설을 시작으로, 특히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주 전체에 걸쳐 총 288개 클래스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500명 이상의 저소득층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어린이집과 관련해 지난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2천만 달러 외에 추가로 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구체적인 사용처는 관련 종사자 교육에 900만 달러, 향후 자신이 진학할 학교 방문을 위한 아동 프로그램 관련 400만 달러, 균형 잡힌 영양식 준비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짐.

퀘벡 주는 6월 12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간 보육 관련 다자간 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B.C.주 등에서 집권 자유당이 패배하며 자유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이 드러나고, 퀘벡주 여론조사에서도 집권 자유당 정부에 대한 유권자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16-2017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연방정부와 각 주 간 보육 관련 협약 체결일과 같은 날 발표된 이번 투자계획이 단순한 선심성 공약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공공 육아지원 부분 리더로서 퀘벡 주의 위상을 세울 수 있게 해 줄지 귀추가 주목됨.

2017년 6월 12일

출처: <http://globalnews.ca/news/3521644/quebec-re-invests-in-daycare-and-kindergarten/>

9. IMF,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국제통화기구(IMF)에서 올해 3월 발표된 캐나다 연방정부의 전국 규모의 보육지원 예산 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전망함.

7월 19일자로 발표된 IMF의 Working Paper “Women Are Key for Future Growth: Evidence from Canada”에서는 해당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연방정부는 각 가정의 어린이집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가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당초 집권 자유당정부는 향후 11년간 총 75억 달러의 보육 관련 예산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IMF의 보고서는 매해마다 80억 달러 정도의 가용예산이 생길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캐나다 정부의 전망보다 10배 이상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본 것임.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예산안 실행을 통해 전국 평균 보육비용은 현행 대비 40% 정도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뛰어들 여력을 가짐으로써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게 됨. IMF는 전업주부로 추정되는 약 15만 명의 고학력 여성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해 세금을 내기 시작할 경우 매년 2% 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연방 세수에 있어 매년 약 8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올해 연방정부가 발표한 보육 관련 투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남는 수치라고 보았음. 다만 이것은 보육비 부담 감소가 고학력 여성의 사회활동 진출로 연결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란 점을 덧붙였음.

한편, 동 보고서는 트뤼도 정부가 서명한 새로운 아동수당제도, 즉 CCB(Canada Child Benefit)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음. CCB는 매년 총 23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6세 미만 아동 한명 당 연간 6400달러, 6~17세 아동 한명 당 연간 5400달러가 지급되지만, 가정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 됨. 이 때문에 IMF는 이 제도가 특히 저소득층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들 가정의 여성이 일을 할수록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의 여성들은 오히려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수당과 세금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임.

이번 IMF의 보고서가 향후 캐나다의 보육 관련 정책과 예산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짐.

2017년 7월 26일

출처:

<http://nationalpost.com/pmnews/pmnews/canada-news/pmnews/liberals-can-afford-to-spend-8-billion-a-year-on-daycare-program-imf-says/wcm/adc62117-3f5a-45c7-b05c-4fb19c763ff2>

10. 캐나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간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관련 양자협약 체결

올해 타결된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사이의 다자간 협약 틀 안에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간의 양자 간 협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음. 8월 29일에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이하 P.E.I.) 준주(準州, territory) 정부와 캐나다 연방정부 간에, 다음날인 8월 30일에는 뉴브런즈윅 주(州, province) 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예산 투입 협약이 각각 체결, 발표되었음.

이 같은 양자협약들은 지난 6월 12일 체결된 역사적인 다자간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해

당함.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준주(準州) 정부 각료들은 수도 오타와에 모여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Multilateral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Framework)"이라는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연방정부는 캐나다 전역의 조기교육 및 보육 질을 높이고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향후 11년간 총 7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발표하였음.

먼저 P.E.I.와 관련해서 향후 3년간 P.E.I.의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총 105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됨. 이 예산은 비정규직 가정의 영유아 및 학령전기 연령 아동 자녀를 위한 보육·교육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이용가능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이민자 및 원주민 지역공동체를 위한 특별 서비스에도 투입됨. 또한 전문적인 보육·교육 교사 양성에도 배정됨.

연방정부의 가족청소년사회개발부 장관(Minister of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Development)인 장 이브스 듀클로(Jean-Yves Duclos)는 "연방정부와 P.E.I. 정부의 공동 노력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확실하고 진일보된 성과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밝혔고, P.E.I.의 교육문화부 장관(Minister of Education, Early Learning and Culture for Prince Edward Island)인 덕 커리(Doug Currie)는 "지금 우리가 0~4세 아동과 그 가정에 투자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핵심적 투자"라고 말함.

현재 P.E.I.에는 총 139개의 인가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P.E.I. 정부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에 1140만 달러, 저연령 자폐증 서비스에 150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음.

한편, 뉴브런즈윅과 관련한 양자간 협약 체결 소식의 발표는 연방정부 대표인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와 주정부 대표인 브라이언 갤런트(Brian Gallant) 수상이 직접 8월 30일 뉴브런즈윅 몽튼(Moncton)에 위치한 Wee 대학교(Wee College) 어린이집에서 발표함. 뉴브런즈윅의 경우 향후 3년간 주 내의 모든 학령전기 연령 아동을 위한 보육·교육 분야에 총 7100만 달러가 투입됨.

트뤼도 총리는 이번 예산이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미래에 성공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일종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가 될 것이라고 말함.

양자 협약에 따라 300곳의 어린이집이 '영유아교육센터(early learning centres)'로 지정될 것이며, 이 시설들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면서 프랑수어를 사용하는 소수 지역공동체를 위한 포용적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발표함. 한편, 신생아 및 영유아를 위한 총 200여명 정도의 정원 증원도 이뤄질 예정임.

연방정부는 정책 시행을 위해 약 30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부담할 전망이며, 주정부의 부담은 4100만 달러 규모임.

2017년 8월 29, 30일

출처:

<http://www.newswire.ca/news-releases/the-government-of-canada-and-the-government-of-prince-edward-island-sign-a-bilateral-agreement-on-early-learning-and-child-care-642113803.html>

<http://www.cbc.ca/news/canada/new-brunswick/trudeau-moncton-miramichi-visit-1.4268048?cmp=rss>

11.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예산 증액

지난 8월 29일에는 연방정부와 '영유아 보육·교육(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관련 양자협약을 체결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이하 P.E.I.) 준주(準州, territory)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정책안을 발표하였음.

지난 6월 12일 캐나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준주(準州) 정부 각료들은 수도 오타와에 모여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Multilateral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Framework)"이라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연방정부는 캐나다 전역의 조기 교육 및 보육 질을 높이고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11년간 총 7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발표하였고, 후속 양자협약에 따라 P.E.I.와 관련해서 향후 3년간 P.E.I.의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총 1,05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9월 28일 P.E.I.주 '가족 및 인적 서비스부 장관(Family and Human Services Minister)'인 티나 먼디(Tina Mundy)가 발표한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원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첫째,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금 지원 예산이 증액됨. P.E.I. 정부는 기존 예산에 30만 달러를 증액함으로써 1,600여 가정에 매달 120달러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둘째,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됨.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으려면 기존에는 아이 한 명이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7,400달러 이내여야 했지만 이 기준이 20,280달러 이내로 완화되었음. 또한 기존에는 소득 증빙 서류를 매달 제출해야 했던 것이 1년에 1회로 변경됨. 해당 지원 방안은 9월 1일자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9월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고 P.E.I.는 밝힘.

캐나다 전역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체결된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 간의 협약이 점차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책의 유지 여부와 효과, 각 주별 성과의 차이 등이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됨.

2017년 9월 28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prince-edward-island/pei-child-care-support-1.4311161>

12. B.C. 주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시행을 두고 난항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이하 B.C.)주 총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해 연립내각의 주도권을 쥔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이하 NDP)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육 정책 시행 여부가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이에 따라 각계 각층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연립내각의 파트너인 녹색당과의 의견 충돌 기류도 감지되고 있음.

B.C.주의 총선거는 지난 5월 9일 치뤄졌고, 총 의석수 87석 중 기존의 집권 자유당이 43석, NDP가 41석, 녹색당이 3석을 차지하여 단독으로 과반석을 넘는 정당이 출현하지 않음. 또한 부재자투표 및 근소한 표차가 난 지역구 투표함 재검표 진행이 5월 후반에서야 시작되었고, 제 1당인 자유당의 내각구성에 대해 NDP와 녹색당이 내각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 B.C.주 총독이 집권 자유당 대신 NDP와 녹색당 연합에게 내각구성권을 다시 부여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침. 그에 따라 6월 후반부에 연립내각이 들어섰고 그만큼 2017-2018년 예산안의 검토와 추경이 늦어지게 됨.

새 정부의 보육 정책 및 예산과 관련해, 연립내각의 주도권을 쥔 NDP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첫 번째 어려움은 지난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던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의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지지층에게서 쏟아지는 비난임. NDP의 정책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보육료가 전일제 보육의 경우 하루 10달러, 시간제 보육의 경우 하루 7달러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음. 9월 중순을 전후해 B.C. 주의 주요 언론과 ‘B.C. 건강 연대’, ‘B.C. 보육 옹호자 연대(the Coalition of Child Care Advocates of B.C.)’ 등의 공공보육지지단체 등에서는 새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안과 예산 반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조속한 행동을 촉구함. 지역 언론인

Vancouver Courier는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새 정부에게 “말하는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The time for talk is over. The time for action is now)”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도함. 이들은 9월 11일 업데이트되어 발표된 새 정부의 예산안에서 기존 2017-2018 보육 투자 예산안에 2,000만 달러만 증액된 점을 들어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음.

NDP의 두 번째 어려움은 연립내각 파트너인 녹색당의 소극적인 태도임. 녹색당의 리더인 앤드류 위버(Andrew Weaver)는 “NDP의 총선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녹색당이 NDP의 ‘하루 10달러 보육 정책’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금번 예산안 업데이트 시 구체적인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밝힘. 녹색당은 지난 총선에서 취업여성의 3세 미만 아동에게는 전액, 3-4세 아동에게는 일주일에 25시간 무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업주부 가정에는 한 달에 500달러를 지원하는 보편적 보육(universal childcare) 공약을 내건 바 있음.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B.C.주의 재무장관인 캐롤 제임스(Carole James)는 “이것이 이 소수 정부의 현실”이라며 “하루 10달러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 역시 우리의 공약이 집권 첫 해에 실현될지, 그 다음 해에 실현될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많은 논의와 조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물론 이에 대해서 UBC(University of B.C.)의 인구공공의료대학(School of Population and Public Health) 교수인 폴 커쇼(Paul Kershaw)가 말하는 것처럼 두 정당의 정책이 양립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그렇지만 이 경우 해당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임.

B.C.주의 경우는 내각 구성이 늦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전국적으로 총 75억 달러가 지원되는 연방정부와의 보육예산 지원 협정도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6월 및 8월 동향 참조). 다른 주정부가 속속 연방정부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B.C.주의 집권 신민당 연립내각이 향후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시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주목됨.

2017년 9월 11~19일

출처:

<http://www.timescolonist.com/news/local/no-major-funding-for-relief-on-child-care-costs-1.22628896>

<http://www.vancourier.com/news/parents-advocates-demand-action-on-daycare-1.22811697>

<http://vancouver.sun.com/news/politics/greens-push-reforms-to-ndp-childcare-promises>

<https://beta.theglobeandmail.com/news/british-columbia/bc-greens-wont-vote-against-ndp-plans-for-rent-daycare/article36256620/?ref=http://www.theglobeandmail.com&>

13. 토론토 시민들, 전액 재정지원 받는 공공 어린이집에 찬성

10월 10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광역(Metro) 토론토 시민 중 상당수가 전액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어린이집 계획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장 및 사회경제적 이슈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DART Insight and Communications poll이 9월 1,010명의 광역 토론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응답자 814명 중 70% 이상이 전액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응답자(찬성 64%)에 비해 여성응답자(찬성 75%)의 비율이 높았고, 18세에서 34세 응답자 중 79%가 찬성함. 또한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임차주택 거주자의 찬성 비율이 높았음.

지역별로 볼 때 노쓰 요크(North York) 거주자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구(舊) 토론토시 다운타운, 요크(York), 이스트 요크(East York) 순서로 나타남. 반대 여론은 55세 이상의 연령층, 그리고 중간수준 내지 높은수준의 가구소득이 있는 응답자 층에서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 볼 때는 Etobicoke의 응답자들 중 35%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조사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pm 3.9\%$ 임.

2017년 10월 10일

출처: <http://www.cp24.com/news/poll-most-torontonians-in-favour-of-fully-funded-public-daycare-1.3625744>

14. B.C.주 집권 신민당, 내년 2월 이후 '보편적 보육 정책' 구체화 의견 밝혀

B.C.주 사회개발 및 빈곤감소부 장관(Minister of Social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쉐인 심슨(Shane Simpson)은 '보편적이고 이용가능한 보육(universal affordable childcare)' 정책이 B.C.주에 곧 실현될 것이지만, 우선은 내년 2월 주정부 예산 발표가 되어야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CBC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온 더 코스트(On the Coast)'에서 밝힘.

심슨 장관은 "이것은 주정부의 자원을 투입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시간을 들여서 올바르게 처리하려고 한다. 보육의 위기는 그만큼 고심해야 할 것들이 많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속 연구 중이다.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말하면서 "(내년 2월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보육제도의 새로운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바로 하루 10달러 보육료 모델이 될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함.

심슨 장관의 의견은 하루 전인 11월 21일에 ‘어린이 및 청소년 대변자 연대(a coalition of child and youth advocates)’에서 B.C.주 아동의 20%가 빈곤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 중 상당 비율을 한부모가족 자녀가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 나온 것임. 그동안 지난 5월 선거에서 승리한 신민당 정부는 빈곤 감소 계획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행보를 보여 왔지만,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왔음.

심슨 장관은 “보육 관련 단체가 주장하는 바대로 하루 210달러 보육료 정책을 시행하려면 25억 달러가 당장 필요하다. 하루 아침에 이를 위한 재원을 만들 수는 없는 만큼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보육료 부담을 낮추는 문제만큼, 보육 수용 정원을 늘리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현재 집권 신민당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의 안정,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특히 실업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에 정책의 초점을 둔다는 평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보편적 보육료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는 점에서 추후 어떠한 논의와 정책 실현이 이뤄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7년 11월 22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shane-simpson-child-benefit-1.4413429>

15. 뉴브런즈윅 주정부, 영유아교사의 급여 인상 위해 2800만 달러 투입

뉴브런즈윅 주정부는 2019~2020년 회계연도부터 4년 동안 영유아교사들을 위해 임금 인상 지원을 목적으로 총 2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12월 13일 발표함.

교육 및 영유아 발달부 장관(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Minister)인 브레인 케니(Brian Kenny)는 “양질의 영유아교사를 유치하고 계속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 낮은 임금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예산들을 통해 주 전역의 시설 운영자들에게는 운영과 고용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학부모와 아동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2019-2020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이번 예산지원은 시간당 16달러의 급여 수준을 최종적으로는 2022-2023 회계연도까지 시간당 19달러 수준으로 상향시키는데 활용될 계획임.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뉴브런즈윅은 캐나다 전체에서 영유아교사들의 평균 급여수준이 가장 낮았

는데, 이번 예산 투입을 통해 다른 주들의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수년 동안 뉴브런즈윅의 조기 교육 및 보육 분야(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sector) 이직률은 약 28% 수준이었음. 이처럼 높은 이직률은 아동을 위한 교육의 연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아동 보육·교육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한편, 이날 발표에는 최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투입 세부사항도 함께 포함되었음.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3년간 협약에 따르면 총 7100만 달러가 조기 교육 및 보육의 향상에 사용됨. 구체적으로

- 최소 300개 이상의 보육 제공 기관을 공식적인 뉴브런즈윅 조기 교육 센터(Early Learning Centres)로 전환
-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접근 가능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의 수립
- 영유아들을 위해 더 많은 정원을 확보하고, 영어권 및 불어권 공동체 간의 격차를 감소
- 영유아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임.

2017년 12월 13일

출처: http://www2.gnb.ca/content/gnb/en/news/news_release.2017.12.1596.html

16. 2017년 캐나다 보육비용,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올라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이하 CCP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의 보육 비용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비교했을 때 2016년 기준 71%, 2014년 기준 8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번 보고서는 CCPA가 캐나다 주요 28개 도시의 보육비용 중위값(median)에 대해 발간하는 연간 보고서 시리즈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2세 미만 영아, 2~3세 유아, 4~6세 학령전기 아동의 전일제 보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014년 및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도시는 모두 토론토가 차지했음. 시장 원리에 맡기는 광역 토론토시 지역은 영아 보육비용 중위값이 월 1,758달러였음. 한

편 근교의 미시사가(Mississauga)와 반(Vaughan) 지역은 월 1,400달러 수준이었음. 학령전기 아동 보육비용은 월 1,212달러였고, 그 뒤를 1,000달러 수준인 오타와, 캘거리, 리치몬드, 밴쿠버가 이었음.

2014년부터를 기준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수준과 대비했을 때 토론토는 6배 높게 학령전기 아동 보육비용이 올랐음. 한편으로 리치몬드는 2016년 이후 인플레이션 대비 10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남.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는 퀘벡(퀘벡 주), 위니펙(매니토바 주), 샬롯타운(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준주)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낮은 보육비용 부담을 위한 공적 보육료 지원 제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음. 특히 공적 보육료 지원 시스템을 가진 퀘벡 주의 경우 최근 슬라이딩 스케일 제도(sliding scale)[1] 를 도입함에 따라 2014년 이후 20% 이상의 실질적인 증가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캐나다 전체와 비교할 때 저렴한 보육비용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일례로 몬트리올의 경우 토론토보다 8배 정도 저렴한데, 연령 구분 없이 전체 평균으로 볼 때 몬트리올 부모들이 월 168달러를 부담한다면, 토론토에서 가장 저렴한 학령전기 아동의 보육비 부담은 월 1,200달러 수준이었음.

한편, 보육 자원 및 연구 유닛(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의 상임이사인 마샤 프렌들리(Martha Friendly)는 “2018년 이후부터 연방정부가 주정부들과의 협력 하에 보육비용 분야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게 됨에 따라, 비록 그 지원액 규모는 이용가능한 보육서비스와 접근성 확보에 직접적이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미래를 향한 관점에서 는 보다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각 정부 차원의 태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음.

최근 수년 동안 보육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각 정당과 주정부, 연방정부의 공약과 정책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운데, 실제로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높은 보육비용 증가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면서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한 캐나다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1] 보육료를 가구소득, 물가변동 등과 연동해 차등화하고 변화시키는 방식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B.C. 주 인가어린이집 확충과 지원에 대한 요구 다시 거세져

이스트 밴쿠버(East Vancouver)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6개월 된 영아의 돌연사가 발생한 이후 B.C.주에서는 주정부의 보육지원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다시금 거세게 일고 있음.

지난 2017년 1월 18일 B.C주에서도 생활물가가 높은 광역 밴쿠버 지역, 그 중에서도 주거비 및 보육비 등이 높은 이스트밴쿠버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Macallan Wayne Saini이란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음. 밴쿠버 경찰은 법의학 조사팀과 함께 사인을 분석 중이며 뚜렷한 범죄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1월 말을 기준으로 Macallan이 사망한 어린이집이 인가받은(licensed) 어린이집인지 비인가(unlicensed) 어린이집인지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B.C.주 내에서는 보육제도 전반을 개혁하고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수와 전체 정원을 늘리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가정의 접근성·이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힘을 얻고 있음.

사망한 Macallan, 이른바 ‘Baby Mac’의 부모는 "B.C.주의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린이집에 자리를 찾는 데 있어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면서 B.C.주 보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B.C.주 보육지지자 연합(Coalition of Child Care Advocates of B. C.)의 대변인인 Sharon Gregson은 "다른 부처 및 소관분야 재정투입과 비교할 때 B.C.주의 보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시혜적이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Gregson은 인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입소 허가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2살과 4살 두 자녀를 광역 밴쿠버 지역의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한 달에 최소 2,200달러의 보육비 지출을 예상해야 한다" 면서 비용 문제 또한 가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정된 수준의 보조금만을 받는 저소득 가정에 있어 자녀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입소시킨다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regson은 인가받지 않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재 B.C.주가 매년 2억2400만 달러를 보육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환산하면 약 11만 명의 어린이집 정원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에 의하면 이것은 5세 이하 어린이의 1/4만을 지원할 수 있는 제한된 것임. 수용정원에서도 크게 부족하며,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부모들이 보다 저렴하면서도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비인가 보육시설에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현재 인

가가 필요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한 번에 두 명의 아동 또는 형제자매 그룹만을 보육할 수 있지만,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지 않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B.C.주에서는 주정부에서 이미 몇 차례 거부한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10-a-day child care policy)'에 대한 요구가 재등장하는 등 보육 분야 재정투입 확대와 지원체제 재정비 주장이 다시 커지고 있음. Macallan의 죽음으로 촉발된 보육정책 개편 요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7년 1월 19~29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east-vancouver-toddler-death-1.3944152>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parents-east-vancouver-toddler-say-death-preventable-1.3954137>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affordable-licensed-daycares-1.3955917>

2. 토론토 시장, 온타리오 주정부의 보육지원 공약 이행을 촉구

온타리오 주에서 가장 큰 토론토 시의 존 토리(John Tory) 시장이 온타리오 주정부의 보육 관련 지원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케이틀린 윈(Kathleen Wynne) 온타리오 주 수상에게 전달하여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2월 5일 발송된 서한에 따르면, 존 토리 수상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발표한 '10만 명의 어린이집 정원을 확보하고, 0~4세 아동의 40%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에 따른 투자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단순한 발표나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실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는 특히 최근 토론토 지역 유권자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보육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주정부의 진정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음.

■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대기자 명단에만 18,000명 이상의 아동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4,918건의 새로운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것
- (2) 조기교육이란 교육적 측면과 아동보호라는 보육적 측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추가적인 비용 보조를 현실화하고, 이러한 비용 보조금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

(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게 직접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음.

토리 시장은 이와 함께 "보육문제, 그리고 주택문제는 다른 일반적 사안들과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라면서, "트뤼도 정부가 재정투입을 약속한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토론토 시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 모두 협력하여 아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서한이 보도된 후 보육 관련 단체들과 학부모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음. 특히 현재 토론토시에서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아동 수용률이 전체 대상 아동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향후 이 지역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문제와 어린이집 입소 어려움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향후 토론토시와 온타리오주 사이의 보육 관련 정책공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7년 2월 5-6일

출처: <https://www.thestar.com/news/gta/2017/02/06/john-tory-presses-premier-to-address-daycare-crisis.html>

<http://www.cbc.ca/news/canada/toronto/child-care-john-tory-letter-kathleen-wynne-political-football-1.3970169>

*토리 시장의 공개서한

<https://www.scribd.com/document/338543397/Child-Care-Letter-Mayor-to-Premier-2017-02-05#>

3. 토론토 시, '보육성장전략' 발표 - 2026년까지 3만명의 보육정원 확충 필요 외

토론토시가 향후 10년간의 보육 관련 정책 계획안을 담은 '보육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2026년까지 총 3만명의 보육정원을 신설해야 하며,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도 현재 보다 25~40%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올해 초부터 토론토시의 존 토리(John Tory) 시장은 토론토가 "각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보육 비용 부담의 위기(child-care affordability crisis)'에 직면했다"며 온타리오 주정부와 캐나다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증액을 요구함.

이번 보고서는 존 토리 시장의 이러한 발언 및 재정증액 요구와 맞물려 캐나다에서 보육비용이 가장 비싸면서도 보육시설의 수용률이 가장 낮다고 알려진 토론토시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

한 정책안을 담고 있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육성장전략의 최종 목표는 2026년까지 출생직후~4세까지 아동의 50%를 인가받은 어린이집 체계 안에서 수용하는 것임.
-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3만명의 보육정원 증가가 필요함.
- 또한,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25~40% 감소시켜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최소 11억2천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토론토 시정부는 2억8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그 외에도 추가적인 보육시스템 운영 비용이 약 6억100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 80%인 4억8800만 달러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그리고 나머지 20%인 1억2200만 달러는 시정부가 부담해야 함.
-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0억1천만 달러 가량의 보육 예산 중 80%인 16억1000만 달러 가량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함.
- 추후, 토론토시-온타리오주-연방정부 삼자 대표 사이에서 보육 관련 비용 부담 및 정책 진행 상황 논의를 위한 삼자회담의 정례화를 추천하는 바임.

한편, 토론토시의 '커뮤니티 발전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토론회를 4월 13일에 진행하고, 이러한 전략 실천의 필요성을 시정부에 촉구하였음.

같은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토론토시와 온타리오주, 연방정부 삼자 사이에서 향후 보육재정의 부담에 대한 정책공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7년 4월 13~15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toronto/toronto-child-care-report-1.4064898>

<http://globalnews.ca/news/3376749/report-calls-for-30000-new-child-care-spaces-in-toronto-by-2026/>

4. 앨버타 주 아동서비스부 장관,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보육 현안 논의

앨버타 주정부가 공공 보육지원 정책의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부처의 수장인 다니엘 라리비(Danielle Larivee) 아동서비스부 장관(Minister of Children Services)이 보육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보육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짐. 라리비 장관과 앨버타 주 전역의 기관 관계자들은 보육과 관련한 현안 및 지역별 이슈들을 함께 논의함.

첫 번째 세션에서 라리비 장관은 “보육과 관련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서 필요로 하는지 건설적인 제안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의 가정이 파산되지 않을 적절한 비용 수준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인식을 같이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말함. 라리비 장관은 최우선 순위의 이슈는 바로 감당할 수 있는 보육비용 문제(affordability)라면서 “하루 25달러 보육비 정책은 보육비용 감당 문제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함. 또한 “정부는 또한 보육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더불어 탄력적인 타아시간에 대한 많은 가정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을 가져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브라이어패치 가족생활 교육 센터(BriarPatch Family Life Education Centre)에서 일하고 있는 쉐릴 로버츠(Cheryl Roberts)는 “이번 만남의 자리에 초대되어 놀랍고 기쁘다. 정말 좋은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역시 비용부담 때문에 자녀를 보육 기관에 보내기 어려워하는 가족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 이들을 도울 혁신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함. 더불어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지원하면서도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평가함.

앨버타 주정부는 과거 앨버타주 총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하루 25달러 보육료 정책”의 본격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음. 이 프로그램은 우선 22개의 보육 및 교육 센터를 지정하여 아동정원을 약 1300명 늘리고 신규 인력을 120명 가량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배정된 올해 예산은 1천만 달러임.

본격적인 퀘벡식 공공 보육 지원 모델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보육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이번 앨버타 주정부의 행보가 향후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주목됨.

2017년 8월 14일

출처: <http://www.sherwoodparknews.com/2017/08/14/the-future-of-child-care>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오타와 시, 비인가 방과전·후 프로그램에 대한 6세 미만 아동 이용 금지

기존의 'Day Nurseries Act'를 대체하며 2015년 도입된 'Child Care and Early Years Act'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전·후 프로그램의 폐지를 불러오는 등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을 낳고 있음.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시는 최근 시립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오타와시에서 운영하는 방과전·후 프로그램 중에서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공표함. 오타와시의 '공원, 레크리에이션, 문화 서비스' 총괄 매니저 Dan Chenier는 7월 1일부터 6세~12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운영할 것임을 밝혔으며,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방과 전후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은 6~12세로 하며,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폐지함.
- 아동 한명 당 하루에 총 3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방과전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됨.

이것은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Child Care and Early Years Act의 부작용의 일환으로 평가됨. 2015년 법이 도입될 당시에는 인가받지 않은 각종 시설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수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및 영유아 보호를 목적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반드시 인가받은 어린이집(licensed daycare centres)에서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음. 그러나 이로 인해 시에서 무료 내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던 공공 프로그램 역시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게 되어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방과전후 프로그램이 폐지될 상황에 놓임.

그러나 방과 전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가받은 어린이집'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관련 자격을 가진 인력의 고용과 시설요건 구비 등 심각한 재정지출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용되기 어려운 방안이었다고 Chenier는 밝힘. 이로 인해 향후 방과 전후 프로그램에 아동을 맡겼던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

당초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Child Care and Early Years Act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아동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에 과중한 부담과 규제를 가함으로써 아동과 학부모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과 부담을 전가하게 된 것임. 향후 이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됨.

2017년 5월 17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ottawa/city-ottawa-daycare-dan-chenier-1.4118074>

2. 노바스코샤 주정부, 9월부터 43개 지역에 무료 Pre-Primary Care 운영계획 발표

노바스코샤 주정부가 어린이집 이용에 곤란을 겪는 학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총 43개 지역에 무료로 Pre-primary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7월 18일 교육부 장관인 Zach Churchill은 기자회견에서 올 9월 마지막 주부터 총 43개 지역에서 50개의 pre-primary class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이 프로그램은 만 4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운영되며 첫 해에는 총 41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됨.

이 계획에는 ‘교사 대 학생’ 비율 강화하는 것도 포함됨. 현재 학생 10명당 교사 1명이 한 반에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반에 교사 3명이 20~24명의 학생들을 돌보는 것으로 운영될 계획임. Churchill 장관은 “다른 지역에서는 pre-primary 프로그램에서의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10이지만, 우리에게는 건강과 안전, 보육의 질이 최고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센터에서 최소 1:8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요건과 기한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함.

무료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은 ‘필요성이 가장 크고, 학교 내에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여유가 있으며, 기타 학부모들을 위한 제반 요인’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힘.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선거에서 현 수상인 Stephen McNeil이 내세웠던 공약의 일환임. 주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는 부모들은 1년에 최소 1만 달러 수준의 보육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25%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 5세 미만 아동의 pre-primary program 이용률을 100%까지 올리겠다고 밝힘.

2017년 7월 18일

출처: <http://globalnews.ca/news/3605947/nova-scotia-to-offer-free-pre-primary-care-at-43-locations/>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퀘벡 주 어린이집 교직원, 대규모 파업에 돌입

퀘벡 주 전역에 걸쳐 어린이집 교직원의 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학부모와 어린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퀘벡 주 400여개 비영리 어린이집의 11,000여명 교직원 노조인 CSN은 주 정부와의 협상을 중지하고 지난 10월 23일 목요일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 결과 94%의 찬성으로 파업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함. CSN 위원장인 Jacques Létourneau는 94% 찬성 결과야말로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몬트리올 시에서만 1,000명 이상의 교직원이 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고, 2,000명 이상의 교직원들이 100개 이상의 기관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임. 그 외에도 퀘벡 시 등 여러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짐.

교직원 노조의 파업과 시위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임. 하나는 정년퇴직 연령의 상향임. 주 정부는 정년퇴직 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올리는 동시에 퇴직연금 결손분을 현직에 있을 때 징수하려는 방안을 내놓음. 퇴직을 바라보는 연령층의 교직원이 많은 캐나다에서 이 같은 조치는 많은 이들의 불만을 촉발시켰고, 또한 연금 결손분에 대한 징수 확대 역시 여기에 불을 지폈음. 또 다른 원인은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축소되는 재정지원임(해외동향 2016년 1월 자료 참조).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 인원 규모가 더 커지면서 여러 서비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예산지원은 줄어들면서 교직원들은 업무 가중의 부담과 함께 보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학부모들은 파업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400여개 어린이집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고 있음. 이번 파업으로 약 21,000명의 어린이들이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추산됨.

교직원들은 일단 어린이들과 할로윈 데이를 함께 하기 위해 10월 31일 화요일 어린이집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이후 파업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음. CSN 측에서는 주정부와의 원만한 협상 및 타협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규모 파업을 통해 주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음. 캐나다 공공보육 모델의 산실이 되었던 퀘벡 주에서 최근 표출되고 있는 갈등과 진통이 향후 어떻게 봉합되어 나갈지 주목됨.

2017년 10월 29일

출처: <http://www.cbc.ca/news/canada/prince-edward-island/pei-child-care-support-1.4311161>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daycare-workers-vote-strike-mandate-2017-1.4311807>

<http://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daycare-strikes-1.3400055>

프랑스

일·가정 양립		
1	아버지의 육아휴직 기간은 늘어날 것인가?	78p
2	아빠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엄마	78p
양육지원		
1	영유아 보육을 위한 특별한 전화 서비스	79p
2	쁘띠포레 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여가센터 개원	79p
3	빌뇌브다스크 시, 방학기간 동안 여가시설 이용에 아동 1인당 평균 500유로 지원	80p
4	파리 9구, 보육시설 입소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시작	81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2016년, 프랑스 부모들은 자녀에게 얼마를 지출했는가?	81p
2	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2016년 어린이집 관련 지출 1	82p
3	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2016년 어린이집 관련 지출 2	83p
4	2018년부터 줄어드는 영유아 육아보조금	83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프랑스 북부 임시직 부모들을 위한 보육시설	84p
2	파리 보육시설 배정의 투명성 제고	84p
3	돔루즈 시는 보육시설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85p
4	리옹의 보육시설 파업, 해결책 없는 시위	85p
5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86p
6	2017년 새롭게 바뀌는 교육정책	86p
7	대학 내에 문을 연 프랑스 공제조합 운영 보육시설	87p
8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와 보육시설에 갈 수 없다	87p
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교 및 보육시설 이용 제한은 바람직한가?	88p
10	보육서비스 수급의 경제적 딜레마	89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학교와 어린이집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과정	90p
2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보육시설	90p
3	자폐증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91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2017년 보조보육사 평균 임금	92p

❖ 일·가정 양립

1. 아버지의 육아휴직 기간은 늘어날 것인가?

프랑스 아버지에게 자녀 출생 후 4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75%의 젊은 아버지들은 11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90%의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이러한 이유는 급여 문제 때문임.

한편, 어머니의 경우는 42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함.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등한 육아를 위해 프랑스경제통계연구소(OFCE)는 아버지 육아휴직에 대해 3가지 제안을 내놓았음.

1. 모든 가정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육아휴직을 의무화함
2. 육아휴직의 의무화와 동시에 그 기간을 현재 11일에서 22일로 2배 늘림
3. 아버지 휴직을 어머니 육아휴직과 동일한 42일로 늘림

다른 제안으로서, OFCE는 어머니의 육아휴직 일수를 아버지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구상하기도 했음.

벨기에와 스웨덴에서는 아버지 육아휴직 일수가 10일이며, 스페인은 13일(쌍둥이 등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15일)임. 덴마크는 2주가 주어지며 그리스, 네덜란드는 2일,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음.

2017년 1월 16일

출처: <http://www.parents.fr/Actualites/Le-conge-paternite-bientot-plus-long-2250024>

2. 아바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엄마

노동부 산하 프랑스 연구통계촉진국(Dares)은 3세 미만 영유아를 둔 맞벌이, 외벌이, 혹은 일을 하지 않는 부모들의 가정 양육 실태에 대해 조사함.

맞벌이 부부가 일하는 시간 외에 육아에 쓰는 시간은 엄마의 경우 75%, 아빠의 경우 59%로 조사됨. 주 양육자가 아빠인 경우 하루 평균 2시간 40분, 엄마인 경우 평균 3시간 50분을 육아에 할애함.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사이 일과시간 동안의 한 주 평균 육아 시간은 엄마 12시간, 아빠 4시간이었음.

맞벌이 부부 둘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 그 비율이 엄마가 90%, 아빠가 10%로 나타남.

2017년 9월 15일

출처: <https://www.franceinter.fr/societe/maman-s-occupe-encore-souvent-des-enfants-meme-si-papa-commence-a-s-y-mettre>

● 양육지원

1. 영유아 보육을 위한 특별한 전화 서비스

그랑빌뇌부아 시가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해 특별한 전화를 마련하였음.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질문이 생기면 전화를 하여,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이 19개 시와 관련된 영유아 보육 정보를 제공함.

이 서비스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는데, 첫째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자-공급자 간의 정보 공유이고, 둘째는 보육방식에 있어서 내리는 결정을 단순화하는 것임.

매 년 그랑빌뇌부아에 거주하는 250가구에서 보육시설을 구하지만, 보육시설이나 보모를 단순히 선택하는 데에 그침. 이러한 이유로 그랑빌뇌부아 시는 이 전화를 마련하였고, 영유아 서비스팀 전화(05 53 47 66 76)와 웹사이트(mon-enfant.fr)를 통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 절차를 통해 부모들의 요구 사항들을 정확히 들어주고자 함.

2017년 2월 23일

출처: <http://www.ladepeche.fr/article/2017/02/23/2522843-numero-unique-pour-la-petite-enfance.html>

2. 브띠포레 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여가센터[1] 개원

프랑스 북부의 브띠포레 시는 2011년부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그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는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를 시작함. 이 프로젝트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임. 이 시설은 아이들이 상호 연대감을 가지고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됨.

프로젝트 초기에는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사람이 한 명 뿐이었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수교육자격이 있는 교사들과 전공학생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참여가 계속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듦.

발달장애, 시청각 장애, 자폐스펙트럼, 아스퍼거 증후군, 행동장애 등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1] 여가센터 Centre de loisir :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프랑스 공립 교육기관의 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 국가와 시에서 운영하는 여가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학기 중에는 수요일 오후(수요일에는 오전에만 유치원과 학교 수업이 진행된다)에 운영되며 방학 중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됨.

2017년 8월 3일

출처:

<http://www.lavoixdunord.fr/200218/article/2017-08-03/le-centre-de-loisirs-ouvert-aux-enfants-en-situation-de-handicap>

3. 빌뇌브 다스크 시, 방학기간 동안 여가시설 이용에 아동 1인당 평균 500유로 지원

시에서 운영하는 방학동안 비숙박 아동여가시설 ALSH은 단지 휴가기간 동안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님. 빌뇌브 다스크의 ALSH는 아이들에게 문화와 여행 또한 경험하게 함. 이 시설은 올 7월에는 130명의 인원이 1,200명의 아이들을 보살폈고 8월에는 80명의 인원으로 8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함. 또한 빌뇌브 다스크 아동여가시설은 전문적인 스포츠 교육자들을 섭외하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아이들은 여가로서 더욱 전문적인 스포츠 활동을 체험할 수 있음.

소득에 따라 시설의 이용과 활동 참여의 비용이 차등 적용됨. 이 때 시 차원의 지원금액도 상당한데, 아이 한 명당 평균 500유로 정도, 총 100만 유로의 비용을 지원함.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협회, 동아리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큰 몫을 함.

2017년 8월 19일

출처:

<http://www.lavoixdunord.fr/205946/article/2017-08-19/les-accueils-de-loisirs-d-ete-coutent-500eu-par-enfant-la-ville>

4. 파리 9구, 보육시설 입소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시작

12월 1일부터 파리 9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보육시설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음. 이미 9개의 다른 구에서 경험한 이 서비스를 통해 육아시설에 대한 사전등록 요청을 몇 분 안에 진행할 수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함.

- 보육 기관에 사전 등록 신청
- 등록 요청을 문서화하기 위한 가정정보중계센터(RIF)의 약속 요청
- 등록 요청 업데이트, 확인 또는 취소

가정정보중계센터(RIF): 가정정보중계센터는 보육뿐만 아니라 학업, 건강, 여가 및 사회적 혜택에 대해 알리기 위해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음. 가정정보중계센터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함.

- 적절한 자료 제공을 통한 개별적이고 질 높은 보육 방안 제시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 또는 학교 신청, 건강, 여가, 스포츠 또는 문화 활동, 사회 복지 혜택 등등의 정보 제공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Fund), 파리 가족서비스(Paris Services Families) 및 학업수당(Caisse des écoles)과 같은 지원들과의 연계

2017년 11월 30일

출처: <https://www.paris.fr/actualites/creches-un-nouveau-service-en-ligne-dans-le-9e-5322>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2016년, 프랑스 부모들은 자녀에게 얼마를 지출했는가?

2016년,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얼마의 지출을 했을까?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가정에서 자녀 한 명 당 평균 800유로 (한화 약 98만원 (1 유로 = 1,225원 기준))를 지출하였음. 식비를 제외한 이 지출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음. 작년과 마찬가지로 의복과 놀이, 가족활동, 이 세 부분의 지출이 년 410유로 (한화 약 50만 2천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설문을 통해 자녀의 생각을 반영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음.

자녀들의 과외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는 데에 57%, 장난감에 55%, 가족활동 54%, 그리고 의복에 51%의 비율로 자녀들이 직접 그 소비를 결정했음. 부모들은 식료품, 가족여행, 첨단 기기와 위생용품 등의 소비를 결정했음.

이 조사는 르 피가로지에 의해 2016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만 6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595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2017년 2월 3일

출처: <http://www.parents.fr/Actualites/Combien-ont-depense-les-parents-en-2016-pour-leurs-enfants-2252028>

2. 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2016년 어린이집 관련 지출 1

가족수당지원국은 주로 보육시설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사용되는 보육시설 관련 지출과 관련하여 2017년 예산을 새롭게 책정하기로 함. 가장 큰 이유는 2016년 590억 유로였던 예산에 비해 실제 지출은 540억 유로에 그쳤기 때문임. 2015년에도 550억 유로로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실제로는 520억이 지출됨.

이러한 금액은 앞으로의 예산으로 이월될 것임. 이는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한 보육시설 10만 자리를 위해 주로 쓰일 예정임. 2015년에는 만2천5백24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8천5백84 자리만이 만들어졌으며 4년 동안에는 총 4만6천5백88자리가 확충되었음. 가족수당지원국은 2017년까지 6만개의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17년 6월 26일

출처: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030411244182-creches-le-budget-a-de-nouveau-ete-sous-utilise-en-2016-2097578.php>

3. 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2016년 어린이집 관련 지출 2

2013-2017년 국가예산경영위원회에 의거하여 가족수당지원국은 집행되지 않은 2016년의 예산 중 5억 유로 정도의 잉여금을 국가에 반납할 예정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됨. 첫 번째로는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의 보육시설 확충 미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학사 일정의 변화에 따라 학부모들이 예상보다 휴가 지원금, 여가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아진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가족수당지원국은 4억7천만 유로를 국가에 반납하고 3천만 유로를 부모보육지원과 보육시설의 확충이 우선시 되는 곳에 사회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일각에서는 나머지 비용 또한 미진한 어린이집 설립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함.

2017년 7월 11일

출처:

<http://www.la-croix.com/Famille/Education/Cnaf-narrive-pas-depenser-budget-creches-2017-07-11-1200862178>

4. 2018년부터 줄어드는 영유아 육아보조금

르 피가로 지는 보건부 장관인 아녜스 뷔장의 측근을 통해 정부가 영유아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수당(Paje)을 월 15유로 감액할 계획임을 확인함. 현재 조건을 만족하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월 184유로의 수당을 받았지만 이것이 169유로로 줄어들게 됨. 그러나 이는 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현재 받는 지원 금액을 유지함.

한편 아녜스 뷔장은 지난 화요일, 10월 1일부터 저소득 또는 편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을 30% 증액하여 월 138유로를 추가 지급한다고 밝힘.

2017년 9월 28일

출처: <http://www.magicmaman.com/l-allocation-versee-aux-jeunes-parents-paje-diminue-en-2018,3532742.asp>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프랑스 북부 임시직 부모들을 위한 보육시설

릴, 후베, 뚜흐꼬앙 등의 도시들이 속한 프랑스 북부지방 5개 행정구역 내 21개 보육시설에서 이 지역의 임시직 부모들이 4월 1일부터 연간 400시간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제공받게 됨.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임시직 부모들은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프랑스 북부 보육시설 협의체는 현재 190시간으로 보장되었던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400시간으로 상향조정하고, 만약 부모 양쪽 모두 임시직일 경우 800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

국가의 통합지원기금(PSU)과 가족수당지원국(CAF)은 부모들로 하여금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식사를 포함하여) 시간당 19썬뿔(약 250원)에서 2.91유로(약 3천5백원)의 보육비용을 지불하도록 함.

2017년 2월 28일

출처:

<http://france3-regions.francetvinfo.fr/hauts-de-france/creches-salaries-interimaires-hauts-france-1204919.html>

2. 파리 보육시설 배정의 투명성 제고

보육시설에 등록할 수 있는 영유아 자리는 출생되는 아동에 비해 모자라기 때문에 부모들은 항상 고민에 빠짐. 서류심사를 통해 보육시설의 배정이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이 불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이 일드프랑스 지역의 회계감사원 조사에 의해 밝혀졌음.

보육시설 자리 배정을 위해 만들어진 유아정보시스템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이는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아빠', '현재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두 번째 동거인과 헤어진 상태', '엄마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 '43세 엄마' 등의 개인적인 가족 정보들이 서류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파리 시는 '투명성 우선'에 관한 법령을 발의하였음.

현재 11명의 진보 구청장은 찬성을, 9명의 보수 구청장은 반대하는 입장임. 이는 보육시설의 자리 배정 문제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가족의 인권보장을 위해 통과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됨.

2017년 3월 17일

출처:

<http://www.journaldesfemmes.com/maman/vie-pratique/1817720-attribution-places-en-creches-paris-rapport-crc/>

3. 툴루즈 시는 보육시설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툴루즈(Toulouse) 시 보육시설에는 3년 동안 543개의 자리가 새로 마련되었고, 2020년까지 500개의 자리가 더 생길 예정이다.

툴루즈에는 만 3살 미만의 영유아들이 2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보육시설에는 6058개의 자리가 있음. 현재 보육시설 한 자리를 1.8명의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고, 전체 만 천 명의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음. 이는 프랑스 전체 평균 보육시설 이용률의 두 배에 달함.

툴루즈에는 6,058개의 시 보조금을 받는 보육시설 자리 외에 680개의 사설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전체 보육시설 이용 비용에서 부모들이 지불하는 비율은 12%이며 55%는 국가 가족수당지원금에서, 33%는 시에서 지원을 받음.

2017년 3월 29일

출처: <http://www.ladepeche.fr/article/2017/03/29/2545820-places-en-creche-la-fin-de-la-penurie.html>

4. 리옹의 보육시설 파업, 해결책 없는 시위

지난 월요일 시 운영 보육시설과 노인 보호시설 근로자들은 인력 부족과 그들에게 할당된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리옹 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임.

시 운영 보육시설 소속 보육교사인 악셀 까이야는 병가, 혹은 다른 일로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인원이 배정되지 않음을 지적함. 그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함. 또한 최근 시 의회에 의해 보육시설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함. 이들은 지속적으로 시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위와 파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함.

2017년 4월 3일

출처: <http://www.lyoncapitale.fr/Journal/Lyon/Actualite/Societe/Creches-en-greve-a-Lyon-une-manifestation-mais-pas-de-solution>

5.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아동은 만 3세가 되면서부터 이미 교육의 불평등을 경험함.

싱크탱크 테라노바(Terra Nova) 연구소에서는 보육시설과 관련한 불평등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연구한 결과, 파리 본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보육시설에 4만 개의 자리가 추가로 필요하며,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보육시설 이용 우선권이 주어지고, 선호도가 높은 도시지역에만 들어져야한다고 주장함.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저소득층 가정보다 보육시설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용함. 2013년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상위 20%의 가정은 하위 20% 가정보다 4.4배 더 많은 보육시설 이용기회를 가짐.

테라노바는 리옹시의 선례를 들어 각 가정의 이용기회 균등을 위해 정확하고 공개된 지표를 통해 가정의 경제력을 측정해야한다고 주장함. 새로운 정부에서 테라노바 연구소의 제언을 따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2017년 5월 31일

출처:

<http://www.parents.fr/actualites/etre-parent/vers-un-accueil-en-creche-renforce-pour-les-enfants-de-familles-modestes-165869>

6. 2017년 새롭게 바뀌는 교육정책

새로운 교육장관 장-미셸 블랑개의 취임과 함께 2017년 9월에 시작되는 새학기부터 학교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기존 주당 4.5일이었던 등교일수를 4일로 변경 가능
- 중학교 1학년부터 2개 언어를 사용하는 학급을 운영
- 중학교부터 학습도우미를 둘 수 있음
- '우선교육지역'[1]의 초등준비과정(만 5-6세)은 한 학급당 12명의 학생으로 구성하며 총 2,000 학급이 우선교육대상 학급으로 지정됨.

[1] 우선교육지역(zones d'éducation prioritaires)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교육지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학급은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시간과 교사 수 등 학습환경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됨.

2017년 5월 30일

출처:

<http://www.parents.fr/actualites/enfant/education-nationale-queelles-reformes-pour-nos-enfants-a-la-rentree-165811>

7. 대학 내에 문을 연 프랑스 공제조합 운영 보육시설

6월 23일, 프랑스 공제조합원장 티에리 보데는 페피냥 시에 프랑스 공제조합 프랑스 남부 지부에서 운영하는 대학 보육시설을 설립했음을 밝힘.

총 10명의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이 보육시설은 페피냥 대학 내에 위치하며, 보육시설 자리의 70%는 교직원 및 교수들에게, 나머지는 학생 부모들에게 배정됨. 그리고 페피냥 대학의 정식 학위과정 중이며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 부모에게 우선권이 주어짐. 한 명의 보조보육사와 두 명의 보육사, 그리고 안전관리 요원이 상주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서 오후 6시 까지 운영됨.

2017년 6월 23일

출처: <https://www.mutualite.fr/actualites/perpignan-creche-mutualiste-sein-de-luniversite/>

8.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와 보육시설에 갈 수 없다

보건부 장관 아녜스 뷔진은 2018년 새로 태어나는 아이부터 필수접종[1],[2]에 포함되는 11개의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와 보육시설 입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이것은 공공보건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지만 벌금 등의 금전적인 불이익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현재는 10명의 아이 중 8명이 11개의 백신을 접종받고 있지만, 보건부의 목표는 10명 중 9명이 접종받는 것을 목표로 함.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모든 나라에 권장하는 수준임.

[1] 현재 프랑스의 필수예방접종: 파상풍, 디프테리아, 소아마비(폴리오)

[2] 2018년 1월부터 필수가 되는 예방접종: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B형간염, 뇌수막염,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폐결핵

2017년 10월 23일

출처:

<http://www.ladepeche.fr/article/2017/10/23/2671186-ministre-sante-avertit-ecole-ni-creche-enfants-non-vaccines.html>

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교 및 보육시설 이용 제한은 바람직한가?

건강부 장관 Agnès Buzyn은 자녀의 예방접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물려서지 않을 것을 시사함. 201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시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할 수 없음.

2016년 11월 보고서에서 예방접종에 관한 시민 협의 운영위원회(Citizen Consultation on Immunization)가 이와 같은 조치를 지지함. 의장을 맡은 알랭 피셔(Alain Fischer) 교수는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전략은 예방접종 범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역, 풍진 백신, MMR 백신, 수막 구균 C 백신 및 유년기 동안 필요한 예방 등과 관련하여). 공동체 생활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원칙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동의 위험을 예방하는 정책에 부합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이 정책에 내재 된 현실적 어려움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어린이 중 일부는 3세(보육시설) 또는 6세(의무교육) 이전에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늦게 받을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생후 첫 달 백일해나 세균성 수막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홍역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2018년 1월 2일

출처:

<https://www.la-croix.com/Sciences-et-ethique/Sante/Refuser-non-vaccines-lecole-creche-est-bonne-solution-2018-01-02-1200903120>

10. 보육서비스 수급의 경제적 딜레마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급문제는 경제학자들에게 큰 골칫거리인 동시에 정책의 제안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분야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임.

프랑스에서 보육에 대한 수요를 연구할 때, 전국적인 출산율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발견할 수 있음. 대부분의 젊은 부모는 편의성이 높고 아이들에게 사회적 친목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모와 같은 다른 보육서비스에 비해 보육시설을 더욱 선호함. 또한 이론상으로 보육시설은 민간 부문의 다른 보육방식(소득에 따라 월 약 100~ 500유로)에 비해 저렴함.

그러나 충분한 보육시설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만 3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27만 5천 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 이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50만 자리가 더 필요한 상황임.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데 주요 원인은 운영비용임. 보육사 한 명은 2~3명의 아이들만을 돌볼 수 있지만 그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은 많지 않음. 보육시설은 최대 40명의 아이들을 수용하지만, 현재의 지원으로는 높은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음. 예를 들면 현재 보육시설은 영유아에게 침구들까지 제공해야 함. 보육시설은 지역사회에 연간 약 1만 5000유로의 비용을 발생시킴. 하지만 보육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음.

매우 까다로운 기준 또한 지방 당국의 비용을 증가시킴. 3배나 비싼 특수가구나 영유아들을 위한 특수 화장실과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한정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더함.

2017년 12월 13일

출처:

https://lejournaldeleco.fr/news_abonnes/places-en-creche-un-vrai-dilemme-economique/#.WkyhYCN7T
OQ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학교와 어린이집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과정

아이들에게 있어 유치원 교육과정 입학(프랑스의 정규교육과정으로서의 학교는 유치원 (École maternelle)부터 시작됨)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는 두렵게 느껴짐. 이러한 변화에 조금 더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플뢰랑스 시의 시립사회운동센터에서는 종합보육기관인 'Au pays des merveilles'와 시립 공공유치원 간의 중간과정을 만들.

2017년 9월 유치원에 입학할 하는 아이들은 6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이 다니게 될 유치원에서 모이게 됨.

빅토르위고 유치원과 라크루즈 유치원은 새로 지역사회에 편입되는 부모들을 위한 모임 또한 조직하고 있음. 그들은 이 모임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으며 학교의 환경을 둘러볼 수 있음. 이러한 계획들은 모두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

2017년 7월 17일

출처: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030411244182-creches-le-budget-a-de-nouveau-ete-sous-utilise-en-2016-2097578.php>

2.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보육시설

프랑스에서는 한 해 8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며 만 3세 미만의 아이는 2백만 명을 넘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시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표적인 세 가지 쟁점에 관심을 가짐.

- 1) 영유아와 관련된 전문직의 직업 환경
- 2) 보육시설 활동의 환경적 영향
- 3) 어린나이에서부터의 생태적인 기질을 발전시키는 것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임. 하지만 보육시설 활동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에너지 절약과 세탁 가능한 옷가지, 침구를 쓰는 등의 환경적인 요인임.

이미 270개의 기관이 이 생태보육시설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 이는 환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 자연환경에 가까운 장소에서 생태학적인 관점을 배우고 이러한 활동을 체득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됨.

2017년 10월 22일

출처: <https://www.franceinter.fr/emissions/social-lab/social-lab-22-octobre-2017>

3. 자폐증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프랑스 적십자가 운영하는 파리 17구의 에른스트 메이 보육시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12명의 자리를 배정해 둬. 정부의 장애인 업무 담당관 소피 끌뤼젤은 11월 20일 국제 아동 권익의 날을 맞이하여 영유아를 담당하는 적십자의 60개 기관 중에서 이 보육시설을 모범 사례로 선정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보육시설은 일반적인 공공시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모자보건센터(PMI)와 영유아 사회의료활동센터(CAMSP), 정신의료학습센터(CMPP) 등의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적십자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같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부모들뿐만 아니라 여러 보육, 의료 전문가들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심지어 이러한 기관들을 이용할 때 시간을 지정하거나 하루의 절반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프랑스 적십자 대변인은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적응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아이들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2017년 11월 20일

출처: <https://informations.handicap.fr/art-creche-autiste-croixrouge-853-10355.php>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2017년 보조보육사 평균 임금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보육사들의 월 평균임금이 2015년 월 1,588유로에서 2016년 1,595유로로 0.5% 증가함.

이들 중에서도 의료보조업무를 하는 이들이 평균 1,697유로로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고, 장애인 보조업무를 하는 보조보육사는 1,554유로, 영유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1,574유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보육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보육사들도 월 평균임금이 2015년 1,480유로에서 2016년 1,488유로로 0.5% 증가함.

2017년 4월 20일

출처:

<http://grouperandstad.fr/wp-content/uploads/2017/04/cp-barometre-appel-medical-des-salaires-de-la-sante-2017-1.pdf>

독일

일·가정 양립		
1	부모수당 도입 등 아버지 양육참여를 위한 정책 노력 지속	94p
양육지원		
1	독일의 산모보호법 개정	96p
2	FDP 정당 어린이 예방접종 의무화 합의	98p
3	어린이집 검색의 디지털화	98p
저출산		
1	여성의 무자녀율 감소 추세	100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외국인을 위한 아동수당, 절반으로 감축	102p
2	보육시설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함부르크의 노력	103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기관 운영시간, 30분만 늘어도 도움이 된다	104p
2	30만 명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106p
3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유치원 신고 의무화	107p
4	어린이집 자리를 두고 소송을 거는 부모들이 적은 이유	108p
5	독일 최고의 보육·교육기관 선발대회	110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종교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	111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남성 유치원 교사의 증가	112p
아동발달/부모됨		
1	Babywatching 프로젝트, 엄마가 영아를 돌보는 모습을 관찰한 아동의 공감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113p
2	독일 아기들이 다른 나라 아기들에 비해 덜 운다는 연구 결과	114p
3	1백 60만 명의 아이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115p
4	여섯 명 중 한 명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116p
5	독일 아동의 여가시간 미디어 활용 - 아동 미디어 연구 2017	117p
6	많은 부모들이 책 읽어주기를 너무 늦게 시작한다	119p
7	좋은 유치원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킨다	120p
기타		
1	남성 동성애자 교사가 근무하는 베를린의 한 유치원, 논쟁을 불러일으키다	121p
2	동성애자의 권리 현황: 독일은 오히려 퇴보	123p
3	독일의 대가족 현황에 관한 조사	125p
4	동성애 부부의 아동 입양	127p
5	출생신고서에 제 3의 성을 기록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127p
6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 선지불에 관한 법안 개정	129p

❖ 일·가정 양립

1. 부모수당 도입 등 아버지 양육참여를 위한 정책 노력 지속

십년 전, 독일에 부모수당(Elterngeld)이 도입되었고, 이는 좀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임.

튀링엔(Thüringen)에 위치한 대학도시인 예나(Jena)에서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익숙한 일임. 독일 어느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부모수당지원을 받고 육아휴직을 하는 곳은 없는데, 이는 2016년 통계에 의하면 60%에 달함.

하지만, 겔젠키르헨(Gelsenkirchen)에서는 아이들과 놀고 있는 아버지들이 보이지 않음. 역 주변에는 유모차를 끄는 히잡을 쓴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놀이터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나무배가 모래에 푹 박혀있으며, 노는 아이도, 노는 아이를 도와주는 이도 없음. 겔젠키르헨 도시에는 단지 12%의 아버지들이 부모수당을 지원했고, 이는 독일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2007년 1월 당시 가족부 장관이었던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CDU 정당)이 자녀양육비(Erziehungsgeld)를 폐지하고 젊은 가족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부모수당(Elterngeld)을 도입하였음. 부모수당은 자녀 출생 전 수입에 따라 한 달에 300유로(한화 약 37만 4천원, 1유로=1,246원 기준)에서 최고 1800유로(한화 약 224만 4천원)까지 지원이 됨. 부모수당은 부모 중 한 명만 지원 시, 12개월까지 지원이 되며 부모 중 다른 한 명도 지원할 경우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음. 여기서 그 부모 중 다른 한 명은 대부분 아빠인 경우가 많음.

부모수당의 정치적 목적 또한 좀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 의의가 있었음. 이러한 부모수당은 양적인 통계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음. 2005년, 독일 아버지들의 3%만이 자녀 양육비를 지원했다면, 2010년 부모수당을 지원한 아버지들은 4명 중 1명이었고, 2015년에는 3명 중 1명이었음. 그러나 지역 간의 차이는 예나 시와 겔젠키르헨 시처럼 60%에서 12%까지 달함.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예나 시에 거주하는 33세 교사 라스 벨터(Lars Velter)에게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아버지들이 많지만, 대부분 직장에서의 경력이나 단절될까봐 두려워함. 독일 청소년연구소(das Deutsches Jugendinstitut: DJI)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

와 같이 아버지들이 부모수당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력단절인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는 벨터 씨에게는 없음. 그는 부모수당을 아내와 똑같이 7개월 지원받음. 그의 아내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여름에는 여러 학술대회에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생활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힘든 일임.

벨터씨는 다른 아버지들이 지원하는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3.1개월 보다 많은 7개월을 지원 하였음. 그는 "다른 아빠들도 분명 심적으로는 육아휴직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이나 고용인이 어떠한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다," 고 말함.

예나시는 가족적인 도시에 관한 자긍심이 있음. 10년 전 예나시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0개 이상의 연구소, 회사들 그리고 시가 함께 "가족연합 (Bündis für Familie)"을 결성하였음. 이 후 예나시는 육아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이곳에서는 13개월 이상의 모든 아동들이 육아시설 즉,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돌보미에 의한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 도시의 실업률은 6%에 불과하며, 10만 8천명의 인구를 둔 예나는 소도시이지만 급성장을 하고 있음. 또한 매 해 1천1백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반면, 사망자는 800명에 불과함.

겔젠키르헨 시 또한 출생자 수는 높으나, 출생자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더 높음. 몇 년 전부터 겔젠키르헨시는 과거의 광산 도시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경제연구소들의 미래 전망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음. 실업률은 예나의 두 배 이상인 15%에 달함. 즉, 가족정책에 있어 기본조건이 다른 상황인 것임.

가족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겔젠키르헨 시에서는 2014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시내에 가족사무실 (Familienbüro)을 개설하였음. 이곳에는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토요일에는 무료로 아동들을 돌봐주기도 함. 이곳의 몇몇 직원들은 불가리아어와 루마니아어를 할 수 있는데, 이는 EU연합의 연장으로 남동유럽에서 오는 노동이민자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조치임. 가족사무실은 아버지와 자녀들을 위한 수업과 그룹 모임을 제공하기도 함. "이런 수업이나 그룹 모임에는 수업을 하는 산파 (Hebamme) 외에는 여자금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족 사무소의 세바스티안 베스트팔 (Sebastian Westohal)씨는 말함.

3, 5살 자녀들과 함께 가족사무실에 방문한 모라드씨는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는 자녀들과 함께 아내를 직장에 데리러 가는 등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함. 그는 자신이 부모수당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동

사무소의 서류상 언어들이 익숙하지 않음. 모라드씨는 노동 이민자로 독일에 온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함. 모라드 씨의 이런 삶의 방식은 쾰젠키르헨에서는 특이한 것임. "그러나 저희는 지난 몇 년간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가족 사무소의 베스트팔씨는 말함.

도르트문트 (Dortmund) 공대의 스테파니 아우코퍼 (Stefanie Aunkofer)와 벤야민 노이만 (Benjamin Neumann)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거주 지역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 수입이 낮은 가족 또는 실업자의 경우 부모수당이 다른 사회수당에 통합되어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쾰젠키르헨과 같은 도시의 부모수당의 비율이 낮게 나옴.

가족부 장관인 마누엘라 슈베지히 (Manuela Schwesig)는 부모수당 정책을 수정하였음. 자세하게는 2015년 이후 부모 두 사람이 28개월까지 일과 병행 하면서 육아휴직을 나눌 수 있음. 수정된 부모수당인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를 제대로 혜택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여러 부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임.

2017년 01월 27일

출처: <http://www.zeit.de/2017/03/elterngeld-vaeter-elternzeit-modell-kinderbetreuung>

●● 양육지원

1. 독일의 산모보호법 개정

65년이 된 산모보호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산모가 학생일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산모가 노동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게 조절할 권리도 갖게 됨. 산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작년에 내각에서 결정 되었으나, 논쟁을 일으킨 세부적인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었음. 이번 주 국회에서 산모보호법 개정 통과에 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며,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학생신분의 산모에게 확장되는 산모보호법:

중고등 학생, 대학생 그리고 실습생이 임신 시에도 산모보호법이 적용됨. 산모보호법 즉 출산전후 휴가시기에 학생 신분의 산모는 중요한 수업, 시험 또는 실습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 (예외)상황을 적용 시킬 수 있음. 지금까지 학생 신분의 산모들에게 관한 산모보호법안이

몇 가지 있었지만, 교육부 산하 해당 학교청 (Schulamt)에 제안서 (추천서)를 제출 했을 시에 적용되었음. 새로운 개정안으로 인해 학생 신분의 산모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게 됨.

(2) 장애아 출산:

장애아를 출산한 산모는 휴가를 4주 연장 받아, 출산 후 총 12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3) 유산:

새로 도입된 산모보호법안 중 하나는 유산 후 해고 금지에 관한 것임. 임신 12주를 넘긴 여성이 유산을 경험했을 경우, 유산 후 4개월 내에 해고당할 수 없음.

(4) 노동금지 관련 임신부의 의지 존중: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노동금지[1]가 이루어져 왔음. 앞으로는 임신한 여성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할 경우 고용주가 쉽게 휴직을 시킬 수 없으며, 그 대신 고용주는 노동환경을 산모에 맞게 변형하거나 산모 상황에 맞는 업무분야에 투입시켜야 함.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경우, 산모 또는 모유 수유 하는 여성의 노동금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함.

(5) 업무시간 제한:

업무시간 조절에 있어 앞으로는 여성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더 많아졌음.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산모들은 앞으로 일요일 또는 휴일에 업무를 할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 지금까지의 산모보호법에 의하면 산모나 모유 수유하는 여성들은 저녁 20시에서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업무를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왔음.

(6) 공무원:

공무원, 판사 그리고 군인 여성들의 경우 해당 주정부의 규율에 맞춰 산모보호법이 적용됨.

[1] 태어나 산모의 건강이 업무나 노동환경으로 인해 위태로울 경우 산모는 노동금지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함. 노동금지를 받은 산모에게 고용주는 지속적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함.

2017년 3월 31일

출처: <http://www.spiegel.de/karriere/mutterschutz-das-bringt-die-neuregelung-a-1141194.html>

2. FDP 정당 어린이 예방접종 의무화 합의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결과 홍역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FDP정당(자유민주당)은 14세까지 아동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비과학적인 선입견과 예방접종에 관한 불감증등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건강까지 해친다는 것이 안건 제출의 이유임.

평균 37%의 어린이들만이 제 때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고 있으나 전염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95%에 달해야함.

중앙정부 보건부 장관인 헤르만 그뢰에 (Hermann Gröhe)에 따르면,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올 해에는 지난해 총 325건보다 많은 410건의 홍역환자가 발생했음.

FDP정당은 필수 예방접종 질병은 담당 연구 기관인 로버트-코흐-연구소(Robert-Koch-Institut)에서 결정하고, 소아과 의사들은 부모들에게 예방접종 의무에 관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함.

바이어른 주 보건부 장관인 멜라니 훔을(Melanie Huml: CSU정당(기독교사회당))은 이런 행보는 최후의 수단이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정보와 상담이라고 말함.

2017년 04월 29일

출처: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64130660/FDP-einigt-sich-auf-Impfpflicht-fuer-Kinder.html>

3. 어린이집 검색의 디지털화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찾는 시간과 노고를 덜어줄 소프트웨어- “리틀 버드 (Little Bird)”

부모들이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을 찾을 때, 긴 대기자 리스트가 있는 것은 보통이고, 여러 군데 신청서를 보내고, 케익을 직접 구워 방문하기도 하고,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함. 안케 오드리히 (Anke Odrig) 씨는 이혼 후 어린 아이와 베를린으로 이사 왔을 때, 이런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안케 오드리히 씨는 그녀의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독일 전역의 100개가 넘는 행정지역에서 육아시설 업무를 처리함. 안케 오드리히씨는 35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그 중 15명이 컴퓨터 과학 전문가인 리틀 버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2009년 창업한 이 회사는 새가 동지를 찾기 위한 것처럼 시와 공동체가 어린이집 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당시 어린이집 자리를 찾는 노고를 함께 겪고, 그 이유로 회사를 창업하게 된 아이는 곧 만 11살이 됨. 그리고 이젠 5살 된 아들도 있고, 새 남편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음.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아이디어만 팔 것인지 고민하던 그녀는 우선 비행기표 티켓이나 렌트카를 찾는 포털 사이트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았음. 어린이집(육아시설)을 찾는 것은 그보다 훨씬 개인적인 것이었고 분산된 정보가 많아서 한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음.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찾는 부모들을 도와 줄 플랫폼 정도로 생각했으나 작센 주 하이텐아우(Heidenau)시의 교육청장인 실비아 뢰더(Sylvia Röder)씨를 만난 후 그녀는 어린이집과 관할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어린이집 인원과 부모와의 계약서 양식에서부터 교사 수까지 알게 해 줄 어린이집 회계와 비슷한 양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했음. 관할구청들은 그녀의 아이디어에 대해 대부분 재정적 지원을 거절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면 고려해보겠다는 반응이었음. 은행에서 용자를 받았지만, 그녀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데는 현저히 모자라는 금액이었음.

베를린 투자은행의 테크닉 부분의 개혁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Pro FIT 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고, 2010년 그녀는 100만 유로에 가까운 지원금을 용자로 받게 됨. 2010년 여름에는 그녀의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지켜 봐왔던 하이텐아우 교육청장이 일하는 관할청에 처음으로 리틀버드 소프트웨어를 도입함. 현재는 84개의 시와 지방 자치제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20개 관할청이 신청한 상태임. 최신 리틀버드를 도입한 가장 큰 고객은 쾰른임.

리틀버드라는 모델은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세계와 굳은 행정체계의 충돌을 발생시킴. 관할청들은 당연히 이 작은 회사에 청탁할 것인지 고민하기 때문에 그녀는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설득에 관한 일 또한 하고 있음. 한편으론 행정에 관련된 업무나 오래 지연되는 결정으로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시나 지역 단체 관할청들은 생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직한 고객이라고 함.

“리틀버드”를 도입하려는 새로운 관할청들에게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여 줄 수 있게 되자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2014년 이후 리틀 버드는 흑자선에 들어섰고, 올 해는 120만 유로의

이익을 창출함.

리틀버드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बैं크를 가진 포털사이트라 할 수 있으며, 관할지역 청과 어린이집의 IT 시스템을 통해 작동되는 것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집들은 다음 몇 달간의 자신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불러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신청서, 대기자 명단, 계약서, 어린이들의 내부 데이터 그리고 지원서 등의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음. 부모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거주 하는 시의 각각의 어린이집을 알아 볼 수 있고, 자녀의 입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음. 관할청은 이 데이터 बैं크를 통해 각 어린이집 인원 수와 수용 가능한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한 자리 당 몇 명이 지원 했는지(경쟁율)와 한 어린이집 지원자 중 채택이 되었을 경우, 대기자 명단은 그에 따라 맞게 변형됨. 시스템 비용은 각 관할청에 속한 어린이집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몇몇 도시들은 이미 추가적 행정 시스템인 방과후 수업과 아이 돌보미 찾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자리에 관한 시스템이 곧 도입될 예정임.

안케 오드리씨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통해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을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은 부모들도 도울 예정임. 리틀버드는 앞으로 이런 엄마, 아빠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어린이집 자리를 받을 권리를 내세울 것임.

2017년 8월 21일

출처: <http://www.faz.net/aktuell/beruf-chance/die-gruender/little-bird-eine-software-gegen-den-kitaplatzmangel-15160018.html>

❖ 저출산

1. 여성의 무자녀율 감소 추세

독일은 수년 간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최근에 그러한 경향이 줄어들고 있음. 무엇보다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여성들의 무자녀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약 다섯 명 중 한 명의 여성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런 추세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되고 있음.

이런 현상에는 가족과 직업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체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육아시설 확장으로 인한 기여가 크다고 해석됨. 독일은 오랫동안 무자녀인 여성들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1937년 출생한 여성들 중 11%가 무자녀였고, 1967년 출생한 여성들의 무자녀율은

21%까지 다다랐음.

통계청 부대표인 게오르크 티(Georg Thiel)씨에 따르면 대졸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은 지난 몇 년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40세에서 44세 대졸 여성들의 무자녀율은 2016년에 25%로 2012년보다 3% 감소함.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비율 또한 지난 8년간 증가함. 현재만 1세 자녀를 둔 엄마의 44%가 일을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36%였음. 가장 어린 자녀가 2세일 경우 일하는 엄마들의 수는 더 증가하여 반 이상인 58%에 달함(2008년에는 46%). 아빠들의 경우는 자녀 출산으로 인한 직장일과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91%가 일을 함.

2016년 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체 취업모의 비율은 70%로 유럽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중경보다 조금 더 높음. 스웨덴이 86%로 가장 많고, 그리스가 54%로 가장 적음.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동독과 서독 간, 또 도시와 지방간의 차이가 현저함. 함부르크의 경우 45세에서 49세 여성들의 무자녀율은 31%에 달하는 반면 베를린의 경우 27%임. 구 동독의 주정부인 튀링겐(Thürigen), 작센(Sachsen) 그리고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무자녀율은 11%로 가장 낮음.

이민자 여성들의 경우 평균 자녀출산율은 높은 편이지만, 학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임. 학력이 높은 이민자 여성들의 평균 자녀 출산율은 1.9명으로 고학력의 독일 출생 엄마들과 비슷한 출산율을 보임.

독일은 2015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출산율이 1.5명으로 증가하였음. 이런 통계수치는 우리가 15세에서 49세 여성들의 평균 행동을 전제 했을 때, 앞으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출산할지 예상하게 함. 2015년 독일에는 73만 8천명의 남아, 여아가 태어났고, 이는 2014년 보다 2만 3천명 더 많은 수치임.

2017년 7월 26일

출처:

<http://www.spiegel.de/gesundheit/schwangerschaft/geburten-in-deutschland-statistisches-bundesamt-je-de-fuenfte-frau-bleibt-kinderlos-a-1159787.html>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외국인에 위한 아동수당, 절반으로 감축

유럽연합국가에서 온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아동수당[1]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논의 되어왔음. 이 수당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안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독일중앙 정부 내 여러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 국가에서 온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줄이자는 안건을 법안에 도입하자는데 중앙정부 재정-경제부가 의견 일치를 보였음.

이 정책법안의 주요 핵심은 폴란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온 외국인에게 지금까지 아동수당의 절반만 지급되는 것임. 중앙정부재정부 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CDU정당)는 이로 인해 1억 5천9백 유로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쇼이블레 장관은 부모가 독일에서 일하고 있지만, 자녀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대략 18만5천명이라 예상함.

이 가정들은 지금까지 받은 아동수당의 절반만 받게 됨. 즉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각각 한 달에 96유로(한화 약 117,800원(1유로 = 1,227원 기준))가 지급됨. 셋째 자녀에게는 99유로(한화 약 121,500원)가. 넷째 자녀부터는 111.50유로(한화 약 136,800원)가 지급됨.

이 정책은 오래 전부터 논의 되어온 것으로, 2년 전에 국가정부 차원에서 이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검토되는 듯 했으나, 아무런 구체적 결과가 없이 끝나 다 있었음.

지난 2016년 12월에는 당시 경제부 장관이었던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SPD정당) 총괄 아래 경제부가 재정부와 합의점을 찾았음. 정부는 이 새로운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유럽연합 전체에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함.

[1]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녀의 주 거주지는 다른 나라인 유럽연합 출신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수당

2017년 2월 10일

출처: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161977438/Deutschland-will-Kindergeld-fuer-EU-Auslaender-kuerzen.html>

2. 보육시설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함부르크의 노력

보육시설 이용 금액이 현저히 상승하였고, 특히 만 3세 미만의 경우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독일 보육시설(유치원과 어린이집: 이하 키타 Kita)은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수적인 면이나 시설의 질적인 면에서 도시들 간, 키타 간에 큰 차이가 있음. 부모들이 내야하는 비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한 푼도 안내도 되는 한편, 다른 곳에서는 몇 백 유로를 내야 하는 상황임. 베를린의 사회학자들이 독일 전체 부모들이 내야하는 보육시설 비용, 특히 만 3세 이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2005년에는 만 3세 이하 아동의 부모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98유로를 부담해야 했는데, 10년 후에는 171유로를 부담해야 했음. 만 3세 이하 어린이들에 드는 일반적 비용 또한 1996년에서 2015년까지 71유로에서 97유로로 상승함.

독일의 여러 지방정부나 자치체에서 지난 몇 년 간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여러 노력을 시도함. 함부르크의 경우, 출생에서부터 입학 전까지 하루에 5시간까지는 키타 비용이 없음. 자녀를 하루에 5시간 이상 맡길 경우에는 부모들의 수입, 가족의 크기 그리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시설비용이 다르게 부담됨. 독일 경제 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의 연구원인 카타리나 스피스(Katharina Spieß)씨에 따르면 키타 비용 절감은 다른 도시나 지자체에서도 시도되고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 전 몇 년 동안이고, 만 3세 이하 아동의 어린이집 비용 절감을 시도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임.

만 3세 이하 어린이 보육시설 비용의 상승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보육시설 증축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임. 특히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시설은 교육수준이 높고, 수입이 높은 부모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비용이 부모수입에 따라 책정되면서 평균적으로 상승함. 스피스 씨는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원 비용의 감소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들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

상승하는 키타 비용의 상당 부분은 수입이 높은 가족들이 부담함. 저소득층 가족이나 빈곤 위험이 있는 가계의 경우 다른 가계와 큰 차이 없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저소득층의 유치원 비용 부담은 감소한 편임. 그럼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키타를 다니냐 마느냐는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비용 부담이 현저히 감소되어야 한다고 스피스 씨는 말함.

2018년부터 베를린과 라인란드-팔쯔(Rheinland-Pfalz)주에서 모든 가정에게 무상으로 키타를 제공할 계획인데,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함. 고소득층 부모들은 자녀교육

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재의 비용 부담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낼 마음이 있기 때문임.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Stiftung)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독일 전체 유치원들이 동일한 교육환경 조건을 갖길 원하고 있고, 설문 조사에 응한 부모들의 2명 중 한 명은 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용을 더 부담할 마음이 있다고 답함.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상교육은 여러 부모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 또한 10명중 8명의 부모들이 보육시설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 중 52%는 비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48%의 부모들은 더 많이 낼 마음이 있다고 응답함. 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부모들의 2명 중 한명은 질적 향상을 위해 비용을 낼 마음이 있다고 응답함.

육아,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독일 유치원 전체의 기본 환경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러 지방 자치제의 반대에 부딪쳐 기준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기타 증축과 확장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본 환경기준 설정이 생기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또 다른 이유는 지역 간에 환경 기준에 대한 시각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임.

SPD의 가족부 장관이었던 마누엘 슈베지히(Manuel Schwesig)씨는 주정부들과 함께 기타 환경기준법을 마련함. 이 기준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체가 중앙정부에서 준 재정을 교사 증원에 쓸 것인지, 시설 이용시간 연장에 쓸 것인지, 교사교육에 쓸 것인지 아니면 기타비용 절감에 쓸 것인지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음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이에 동의 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음.

2017년 10월 11일

출처:

<https://www.abendblatt.de/politik/article212197905/Kita-Kosten-fuer-Unter-Dreijaehrige-haben-sich-fast-verdoppelt.html>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기관 운영시간, 30분만 늘어도 도움이 된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RW)주에 사는 대부분의 부모들의 일상생활과 육아시설의 운영시간이 서로 맞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 도시가 변화의 첫 시도를 하였음.

NRW주의 부모회 회원인 아틸라 귀무스 (Attila Gümüs)씨의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오후 4시 30분이면 문을 닫음. 자녀들을 데리러 가는 길, 그녀는 대도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음. 그녀는 "어느 때에는 뒤셀도르프와 쾰른 사이의 고속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며 그냥 서 있기도 한다" 라고 함.

이렇게 고정된 유치원 운영시간으로 인해 다른 많은 부모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음. 그녀는 유치원이 기존의 운영시간외에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여러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이와 같이 탄력적인 기관 운영시간이 필요함. 아침과 오후의 30분만 더 되어도 큰 도움이 될 것임.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현실은 이와 같지 않음. 전체 보육·교육시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의 2%도 안 되는 곳만이 2015/16년에 17시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였음. 4분의 1의 보육·교육시설이 16시까지만 운영을 하였음. 2016년 12월 베르텔스만 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육아시설의 운영시간이 실제 필요한 운영시간과 맞지 않는다고 60%에 달하는 부모들이 응답하였음.

시와 지자체는 육아시설 운영시간에 대해 재정적인 문제로 설명함. 아동교육법 (Kinderbildungsgesetz: Kibiz)에 의하여, 한 아동 당 수당으로는 융통성 있는 운영시간에 필요한 교사수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임.

에슈바일러 (Eschweiler)의 특별한 유치원

아헨 (Aachen)시 근교의 에슈바일러에 위치한 부모공동체 유치원인 임엔호퍼킨더 (Immenhoferkinder)는 부모들의 필요에 맞춰 융통성 있는 운영시간으로 운영됨. 예를 들어, 2개의 그룹에 44명의 아이들이 오전 5:30에서 오후 8:45분까지 필요한 시간에 따라 시설 사용이 가능하며, NRW주에서 가장 긴 시간 운영되는 곳이기도 함.

이는 무엇보다도 교대근무를 하는 부모들을 위한 조치임. 이마네 라즈라크-디즈다레비치 (Imane Lazrak-Dizdarevic)씨는 늦게 근무를 시작하는 관계로 늦은 오전에 그녀의 딸인 나일라 (Naila)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 8시까지 일을 함. 나일라는 저녁 내내 유치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일이 끝나고 대략 오후 7시 정도에 자녀를 데리러 옴.

대부분의 부모들은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시설을 이용한다고 유치원 원장인 사브리나 슈마허 (Sabrina Schumacher)씨는 말하며, "일반적으로, 운영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다른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라고 함. 두 그룹의 유치원에서는 보통 5명의 교사들이

일하는 반면, 이곳에서는 6명의 교사가 일을 함.

"현실적으로, 가족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 둘 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예슈바일러 청소년청의 청장인 유르겐 테르마트 (Jürgen Termath)씨는 말함. 예슈바일러시는 앞으로 융통성 있는 운영시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치원을 증가하려 하며, 유치원 등록 시 부모들에게 일반적인 운영시간 외에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유치원 사용이 필요한지 조사할 계획임. 시의원 슈테판 케퍼 (Stefan Käfer)는 "인건비 외에도 시설 관리비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교육정책에 의한 아동수당에 의해 감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함.

2017년 01월 18일

출처: <https://www.welt.de/regionales/nrw/article161287476/Halbe-Stunde-mehr-wuerde-oft-helfen.html>

2. 30만 명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쾰른의 독일 경제연구소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IW)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보육시설 공급이 아직도 미비함. 특히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레주 (NRW)와 브레멘주의 경우 문제가 심각함.

IW의 연구결과에 대한 빌트(Bild)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93,486명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특히 서독의 만 3세 이하 유아들은 262,436명, 동독은 그에 비해 31,050명이 입소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레주는 문제가 심각해서 신청한 유아 중 16.2% (77,459명)가 보육시설에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브레멘의 경우는 20.2%(3,763명)에 달하며, 라인란트-팔츠주 (Rheinland-Pfalz)와 바이어른주 (Bayern)의 경우 각각 16,704개와 52,131명이 대기하고 있음.

IW연구소의 경제학자 비도 가이스(Wido Geis)는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어린 유아들을 시설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줄어들었고, 점점 많은 여성들이 점점 일찍 직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추세이므로 보육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4월 말에 국회는 10만개의 새로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적으로 투자프로그램을 승인하였음. 이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2020년까지 11억 유로(한화 약 1조 4천억원) 이상이 증가함. 중앙 가족부에 의하면 다음 해에도 총 25억 유로(한화 약 3조 1천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함.

2017년 05월 17일

출처:

<https://www.zeit.de/gesellschaft/familie/2017-05/kinderbetreuung-kitaplaetze-betreuungsluecke-deutschland-nrw-bremen>

<http://www.spiegel.de/lebenundlernen/job/betreuungsluecke-300-000-kleinkinder-finden-keinen-kita-platz-a-1148012.html>

3.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유치원 신고 의무화

독일의 보건부 장관인 그뢰에(Gröhe)가 제출한 예방접종을 의무화에 대한 법률 초안에서 육아시설의 통제(control) 기능이 새로 포함되었음.

부모들이 예방접종에 관해 소아과 의사에게 상담 및 정보를 받고 육아시설에서 이를 검사해야 하는 것은 현재도 의무화되어 있음. 새롭게 추가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육아시설)에서 예방접종 상담을 입증하지 못하는 모든 부모들을 보건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임.

보건청은 예방접종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들에게 최대 2,500유로(한화 약 31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음. 이전에도 부모가 예방접종에 관한 상담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 감염예방법 34조항 10항에 따르면, 육아시설에 처음으로 입원(입학)이 될 경우 부모(양육자)는 입학 직전에 자녀의 예방접종에 관한 의사의 상담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보건청은 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또 서류 미제출 또는 제 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규위반으로 최고 2,5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감염예방법 73조항에 명시되어 있음.

문제는 지금까지 보건청이 이런 점을 주의깊게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법률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서류 미제출시 육아시설의 원장은 시설이 속하는 보건청에 알려야 하며, 해당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청은 양육자를 상담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좋은 육아는 시설의 교사들과 부모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예방접종 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런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라는 주장임.

의사들은 다양한 입장을 밝힘. 독일의사 연합회는 신고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독일 공공의료보건 의사연합은 이와 반대로 좀 회의적임. 오펜바흐

(offenbach) 시 보건청 청장인 베른하르트 보른호펜(Bernhard Bornhofen)은 완강한 예방접종 반대자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이와 다른 경우는 주로 잊어 버렸거나 이미 예방접종을 한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함.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거절할 경우 육아시설이 보건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예방접종이 법적 의무는 아님. 소아과 의사 연합은 아동이 육아시설을 다닐 수 있는지 여부를 예방접종의 여부에 따르도록 하려고 함.

2017년 5월 26일

출처: <http://www.tagesschau.de/inland/impfen-debatte-101.html>

4. 어린이집 자리를 두고 소송을 거는 부모들이 적은 이유

2013년 8월 이후 만 1세 이상 모든 아동이 공공시설의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도입되었음.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올해 만 3세 이하 어린이들 중 76만 3천명의 아동이 육아시설이나 돌보미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고, 이는 작년 대비 약 4만 1천 3백 명이 늘어난 것임. 또한 2017년 3월 기준으로 독일에 55,266개의 육아시설이 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0.6% 증가한 것임.

관할청의 이러한 노력과 통계청의 긍정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한 부모들이 상당수임.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약 29만 명에 달함.

연구저자인 비도 가이스(Wido Geis)씨는 육아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기 전 독일은 육아시설 확충에 너무 오랫동안 안이했으며, 권리 도입 후 건물이 빼곡하게 지어진 도시권에 육아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봄. 결국 어린이집이 모자라거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시설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일터의 전문 여성인력들이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함.

지난 5월 라이프찌히(Leipzig)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드러났음. 백 명이 넘는 부모들이 자녀를 대기리스트에 올리기를 위해 아직 공사 중인 어린이집 앞에 줄을 선 모습임. 라이프찌히는 현재 베이비붐이 일고 있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그 곳의 부모들은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

라이프찌히에 사는 만 2세 아들의 엄마인 베티나 바일(Bettina Weil)씨는 어린이집에 자리

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매니지먼트가 필요할 정도라고 말함. 그녀는 아들이 태어난 직후 라이프찌히시의 육아시설 포탈에 입소 신청을 하였음. 돌보미에게 맡기는 것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했고, 1년 전부터 어린이집을 알아 보기 시작했음. 집 주변 15개의 어린이집의 이름, 문 여는 시간, 신청마감일, 담당자 이름 등이 적힌 표를 만들었으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봄까지 모든 어린이집에서 자리를 받지 못함.

라이프찌히시에 바일씨는 상담을 요청했고,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함. 이런 불이익을 당한 라이프찌히의 세 명의 엄마들이 소송을 걸어 결국 승소함. 어린이집에 자리를 받지 못하여 복직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시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불해야 했음.

6월 초 작센 주 고등법원은 관할청은 현 어린이집의 자리에 상관없이 1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어린이집 자리를 배당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함. 또, 이번 주 뮌스터(Münster)의 담당 재판소는 주거지 근처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을 경우 담당 시가 부모에게 돌보미로 대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처가 아니라고 판결함.

변호사인 로레나 멜헤르트(Loreena Melchert)씨에 따르면 부모들이 관할청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으며, 관할청은 충분한 육아시설 확충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불이행 시 법에 기소될 수 있음. 그러나 독일 전체에 있어 법적 대안이 통일적이지 않음.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 돌보미를 쓰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먼 거리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에 드는 교통비에 관한 정산과 대응 방식이 지역마다 다름.

멜헤르트씨는 어린이집에 자리를 못 받는 부모가 많은 데도 소송은 아주 적다는 것에 대해 소송은 문제제기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고 주장함. 베티나 바일씨는 변호사 보험도 필요하고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의 분위기나 또 질적으로 좋은지 직접 확인하고 싶을 뿐 아니라, 소송을 걸어 아무데나 자리를 받고 싶지는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원치 않음.

2017년 7월 28일

출처: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67128060/Warum-so-wenige-Eltern-den-Kita-Platz-einklagen.html>

5. 독일 최고의 보육·교육기관 선발대회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올 해의 보육·교육기관 (Kita des Jahres)” 상을 받기 위해 많은 영유아 기관에서 지원함.

독일 어린이 청소년 재단(Die Deutsche Kinder- und Jugendstiftung)은 베를린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연구소(das Berliner Kita-Institut, BeKi)와 함께 이 선발대회에 지원한 1,400개의 기관들을 심사했고, 그 중 30개의 기관들이 2차 선발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됨. 2차 선발에 진출한 기관 중 6개는 독일 북부에 위치하고 있음. 유아교육의 측면, 돌보기 측면, 양육의 측면에서 우수한 기관은 내년 5월 3일에 베를린에서 상을 받으며, 1등은 2만 5천 유로를, 그 외 4개의 우수 기관들은 각각 1만 유로의 상금을 받게 됨.

독일 북부의 경우, 니더작센주의 카톨릭 기관인 상 프란지스쿠스 (St. Franziskus)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기관으로는 노이뮌스터(Neumünster)에 위치한 가르텐 슈타트 (Gartenstadt) 어린이집·유치원(Kindertagesstätte), 베델(Wedel)에 위치한 AWO 기관인 “한나 루카스” (AWO Kindertagesstätte “Hanna Lucas”), 킬(Kiel)에 위치한 룬머란드 기관 (Kita Lummerland)과 노르트슈테드(Norderstedt)에 위치한 포르스트벡 기관 (Kindertagesstätte Forstweg)이 선정 됨.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 후보 기관들은 자신들의 장점과 자세한 소개가 담긴 자료를 보내야 함. 후보에 오른 기관들은 특히, 어떻게 아동들을 교육활동에서 중심에 두는지 보여줘야 함. 선발과정에서 보여줘야 하는 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아동과 부모들을 활동에 참여시키는가? 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회의실, 교사 휴게실 등의 사회공간(Sozialraum)이 성공적인 일과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등이 있음.

30개의 후보 기관들 중 올 11월에 10개의 최종 후보가 가려지고, 올 해 말에 전문가들이 직접 10개의 후보 기관을 방문, 조사를 하게 됨. 최종 후보 중 최고의 5개 기관은 심사위원들의 판단과 공식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됨.

2017년 9월 27일

출처:

<https://www.abendblatt.de/hamburg/article212061961/Beste-deutsche-Kita-Hamburger-Einrichtung-ist-nominiert.html>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종교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

서로 다른 종교(크리스찬, 무슬림, 유대교)를 가진 어린이들을 한 유치원에서 지내도록 하기 위한 “세-종교-유치원”이 베를린에서 오픈될 예정임. 이런 컨셉을 생각한 랍비(Rabbi)인 게사 에스 에더베르그(Gesa S. Ederberg)씨는 인터뷰를 통해 한 무슬림 여성과의 만남에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밝힘. 무슬림 여성과의 협동 작업을 통해 이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유치원을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 세 번째 파트너를 만남.

종교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올 해 초 유대인 가족 출신의 한 14세 학생이 터키와 아랍출신의 학생들로부터 종교로 인한 갈등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학교를 그만 둔 일이 베를린에서 일어남. 인권보호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교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비할 만한 세미나나 양성교육에 좀 더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음.

베를린-모아빗 (Berlin-Moabit)구에 설립될 예정인 이 유치원은 아동기부터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력과 존중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함. 아동들은 소속된 종교에 따라 반이 결정되며, 각 종교 그룹에 따라 45명의 아동을 수용할 계획임. 각 반 활동 외에 모든 아동들이 서로 만나 공동 활동을 하게 되며, 이는 큰 강당에서 실행될 예정임. 기독교 교회연합의 질케 라도쉬-힌더(Silke Radosh-Hinder)씨는 “이 공동 활동(강당)의 목표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그들이 속한 종교와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고 또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함. “이 공동 활동에서 아동들은 함께 만나며, 식사도 하고, 놀이도 할 예정입니다. 함께 자란다는 것이 긍정적인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함.

강당에서 함께 잔치와 축제도 할 예정임. 소속된 종교와 무관하게 종교마다 가진 여러 축제들을 아이들 모두 함께 즐기는 것은 중요함.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의 종교잔치를 경험함으로써 친구가 어떻게 잔치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됨. 이를 통해 아동들이 다른 문화를 알게 되고, 또 존중하게 됨. 소속 종교가 다른 유치원 교사들 또한 함께 팀 안에서 일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함께 하는 것의 가치 즉 평등성, 존중, 진실성 등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임.

베를린 무슬림 협회 DMK의 이맘(imam)인 안드레아 라이만(Adrea Reimann)씨는 아동들이 일찍 다른 종교를 경험하고 교류하는 것은 유치원 설립창시자 세 명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함.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종교 안에서 자라면, 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에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이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이 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도 병행될 예정임.

2017년 11월 25일

출처: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berlin-christen-juden-und-muslime-unter-einem-dach-wie-die-gemeinschafts-kita-religionen-zusammenbringen-will_id_7851825.html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남성 유치원 교사의 증가

남성 유치원 교사는 2006년 이후로 약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교사로 종사하는 남성의 수는 아주 적음.

독일 청소년 연구소(Deutsche Jugendinstitut e. V.)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교사들 중 3.1%가 남성이었고, 2016년에는 5.4%였음.

Boy's Day 행사와 “남자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길”이라는 네트워크 조직 담당 연구원인 미구엘 디아즈(Miguel Diaz)씨는 남자 교사의 증가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여김. 그러나 아직도 어린 아동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남자 교사들이 적은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현상임. 현재까지도 유아교육은 여성들의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존재함.

디아즈씨는 언어에 있어서도 가정과 육아는 여성전담이라는 편견이 있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어머니를 가족어머니(Familienmutter: Familymother)라고 하지만 가족아버지라고는 하지 않고, 일하는 엄마라는 단어는 흔히 쓰이지만 일하는 아빠라는 단어는 따로 쓰지 않음.

15년 동안 가정위탁부로 일하고 있는 메란 아그하다보디씨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많은 독일에서도 육아 관련 일을 여성들이 주로 하는 것이 수입과 연관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함. 아그하다보디씨는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육아나 유아교육 관련 일을 남성의 직업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봄.

디아즈씨는 수입은 남성들이 주로 원하는 직업군과 유아 관련 직종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이 평생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 특히 부모님의 영향 외에 또래들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강조함.

Boy's Day와 Girl's Day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성성 남성성이 강조되는 직업군을 떠

나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려고 함. 이 프로젝트는 여러 다양한 직업군에 성별의 다양성을 추구함.

유아교사의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성별의 다양성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남자 아이들이 여자 교사들이 월등히 많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여자 아이들에 비해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남성 역할 모델의 부재, 학교 성적이 나쁜 점 등을 들 수 있음.

위탁부로 일하는 아그하다보디씨는 또한 다양한 유아교사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남성인 그가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뛰어다니며 음악활동을 함께 한다면, 가끔 그의 일을 도와주는 부인은 아이들과 주로 책을 읽거나 만들기를 하는 등 조용한 활동을 한다고 함.

2017년 4월 26일

출처: <http://www.dw.com/de/mehr-m%C3%A4nnerarbeit-in-kitas-und-kinderg%C3%A4rten/a-38601842>

● 아동발달/부모됨

1. Babywatching 프로젝트, 엄마가 영아를 돌보는 모습을 관찰한 아동의 공감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어떻게 하면 아동의 공감능력과 언어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아동들이 엄마가 영아를 돌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러 발달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무엇보다도 공감능력 부분에서 현저한 향상을 보였다고 뮌헨의 소아정신과 칼 하인츠 브리쉬(Karl Heinz Brisch)교수가 보고 하였음. 언어 발달 영역에서도 향상을 보였고, 공격성과 불안 및 두려움은 반대로 감소하였음. 그 외에도 연구에 참여한 엄마들 또한 자신의 아기에 대한 섬세한 정서가 강화 되었다고 보고하였음.

이는 2년간 프랑크푸르트의 만 3세에서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Babywatching" 연구 결과임. 이 연구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방과후 수업 기관의 아동들 46명이 관찰자가 되어 10명의 엄마들과 영아들을 관찰하였음. 자세하게, 한 엄마가 자신의 어린 영아를 돌보고, 유치원 아동들은 이를 관찰하는 중 교육 전문가가 하는 질문에 아동들은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됨. 이 연구에는 33개의 아동 집단이 참여 하였고, 64명의 교육 전문가가 연구를 위해 훈련받았음.

프랑크푸르트의 심리분석가이며 소아과 의사인 안젤라 켈러-바이스커(Angela Köhler-Weisker)는 연구 결과가 환영 받을 만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외동아들은 엄마가 어린 영아를 돌보는 것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고 말함.

뮌헨대학병원 소아과 부원장이기도 한 브리쉬 교수는 "우리는 현대사회 아동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런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질 것이고 "어느 순간 눈사태처럼 견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였음.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점점 증가하는 아동 및 유치원의 크기와 교사들의 업무과다, 그리고 여러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문제에 있다고 보았음. 많은 영유아들은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어린이집에서 적은 수의 교사들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음. "공감이란 인간적인 것이며, 친구들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 장기간 동안 만족스런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공감능력이 부족할 경우 학교에서나 친구들과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하였음.

오스트리아에서 250명의 초등학생들과 뮌헨의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였음. 브리쉬 교수는 "Babywatching" 프로젝트의 창시자이며, 이미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함.

헤센 주 림부크 시의 마리엔 학교와 그 외 뮌헨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등 여러 도시에서 유치원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이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있음.

2017년 5월 20, 21일

출처:

<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familie/mehr-empathie-durch-babywatching-von-kindern-13603007.html>

<https://www.welt.de/gesundheit/psychologie/article141257526/Babywatching-loest-Entwicklungsspruenge-aus.html>

* Babywatching 관련 링크

<http://www.base-babywatching.de/>

2. 독일 아기들이 다른 나라 아기들에 비해 덜 운다는 연구 결과

아기들이 우는 이유는 주변 환경에서 받는 너무 많은 자극들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생기는 조절력 문제로 인한 것임. 이런 현상이 12주 동안만 일어나는지에 관해 영국에서 연구를 진

행함. 연구자들은 부모들이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에 관해 쓴 육아일지를 바탕으로 한 여러 연구들을 비교함. 이런 방식으로 9개국의 약 8,700명에 달하는 영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후 6주까지 신생아들은 하루 평균 2시간을 울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감소해서, 12주 이후에는 매일 평균 68분 운다고 함. 실제 ‘과도하게 우는 아이들 (Schreibabys: excessive crying infant)’의 경우 일주일에 3일에 걸쳐 최소 3시간을 크게 운다고 하는데, 사실 6주 이후보다 첫 6주까지가 제일 심하다고 함.

심리학 교수인 디터 볼케 (Dieter Wolke)씨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독일 아기들이 평균보다 덜 운다는 것을 밝혀냄. 국제간 비교에 있어서도 독일 아이들이 첫 2주 동안 덜 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일 영아들 보다 더 적게 우는 영아들은 덴마크와 일본 아기들임. 영국, 이태리,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아이들은 평균 이상으로 많이 우는 것으로 나타남. 독일에서는 생후 3-4주의 영아들 중 과도하게 우는 아이들은 전체의 약 7%에 속하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34%에 달함.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유전적 차이일 수도 있고, 부모의 생활패턴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다고 함. 2011년 영국과 덴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런던의 부모들이 코펜하겐의 부모들 보다 영아와의 육체적 접촉도 적고 런던의 아이들이 생후 5주까지 더 많이 운다고 함.

연구팀 대표인 볼케씨에 따르면, 어느 문화의 영아들이 덜 우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것은 영아가 우는 것이 육아 방법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임신기간 중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음.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의료진들이 부모들에게 자신의 아이가 정상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과도하게 우는 아이인지 상담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임.

2017년 4월 3일

출처:

<https://www.welt.de/gesundheit/article163381480/Deutsche-Babys-schreien-weniger-als-andere.html>

3. 1백 60만 명의 아이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점점 많은 독일 아동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해서 살고 있음. 그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급증한 이민(난민포함)에 있다고 봄.

생활하는데 충분한 수입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가 1백6십만 명에 달함. 2015년 12월에는 154만 명이었고, 2년 전에는 150만 명이었음. 이 수치는 중앙 노동부서(Bundesagentur für Arbeit)에 의한 것으로, 부서 대변인은 그

원인이 증가하는 외국인 아동의 수에 있다고 말함. 4월 보고에 의하면, 급증한 난민의 수로 인해 지난 2년간 실업급여에 의존해 사는 아동의 수도 증가하였으나, 실업급여에 의존해 사는 독일 가정의 아동 수는 그와 반대로 감소함.

진보정당 (좌파정당)의 디트마 바르취(Dietmar Bartsch)는 실업급여 가정의아동 수가 증가한 것은 현 정부의 대통합이 불러낸 빈곤의 성적표이며, 어린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무관심과 무능력이 더해진 것이라고 비판함.

중앙정부 사회부에서는 실업급여가 바로 아동빈곤의 척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사회부의 빈곤보고서에 의하면 부모 둘 다 실업자이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 2백만 명이 빈곤에 처해 있음. 한스-보클러 재단(Hans-Böckler Stiftung)의 경제 및 사회연구소(Das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 Institut: WSI)의 연구자들 또한 현재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음. 2016년의 공식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약 15만 4천명의 난민 어린이들이 빈곤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해 봤을 경우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 독일경제의 호황으로 빈곤의 위협에 처한 독일 가정의 미성년자의 수는 2015년에 비해 약 7만 2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난민의 문제로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수치는 약 8만 2천명에서 262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WSI의 계산에 의하면 두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세후 한 달 수입이 1,978유로(한화 약 247만원) 이하일 경우 빈곤이라고 볼 수 있음.

2017년 5월 22일

출처:

<http://www.tagesspiegel.de/wirtschaft/armut-1-6-millionen-kinder-leben-von-hartz-iv/19839620.html>

4. 여섯 명 중 한 명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아동기의 알레르기, 암, 천식, 당뇨와 같은 질환에는 전반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함. 최근 소아과 의사 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독일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아우구스부르크 대학병원 소아과 과장인 미하엘 프뤼발트(Michael Frühwald)교수는 현대 의학에 의해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들을 일찍 도울 수 있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질환 아동 환자 수를 제대로 집계할 수 있음. 이외에도 어린 당뇨환자들의 증가와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환자의 수가 증가함.

소아과 협회에 의하면, 여섯 명 중 한 명의 아동들이, 네 명 중 한 명의 청소년들이 만성질환

으로 소아과를 찾음. 만성질환으로는 알레르기, 천식, 압, 아토피, 만성 장염, 루마티스, 경련, 주의력 결핍 등이 있음.

만성질환 중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아동 비만이나, 미디어 매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여러 심신질환들이 그 예임. 프뤼발트 교수는 이것이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함. 어른들은 스마트폰 사용, 마약, 술 소비 등에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롤 모델이 되어야 함.

또한 그는 심신질환이나 아동비만의 경우 치료과정에서 가족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전문가와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치료과정은 무엇보다도 재정적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에서는 힘든 실정임.

아동 청소년의 만성질환 치료에서는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데, 협회나 기부에 의한 재정적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치료가 힘들. 특히 심리치료사나 작업 요법 등에 드는 비용은 주로 기부에 의한 재정으로 충당됨.

제대로 된 치료가 힘든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것에도 기인함. 또한 심리치료사가 부족해 치료를 받으려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시급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환경이 필요함.

2017년 6월 24일

출처:

<http://www.augsburger-allgemeine.de/wissenschaft/Jedes-sechste-Kind-in-Deutschland-ist-chronisch-krank-id41818456.html>

5. 독일 아동의 여가시간 미디어 활용 - 아동 미디어 연구 2017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에도 불구하고 왓츠앱(WhatsApp) 세대는 전통적인 미디어제품에 돈을 더 쓴다고 함.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더 많이 소비함.

2017년 아동 미디어 연구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여가 시간 활용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와 '야외에서 놀기'가 가장 높게 나타남. 나이가 많을수록 이는 더 중요한 여가 활동이며, 90%에 달하는 아동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또는 밖에서 놀기라고 응답함.

세 번째로 많은 경우가 휴식 취하기인데 이는 연령대가 상승하면서 53%에서 79%까지 상승함. 그 뒤로 스포츠 활동, 그림그리기, 만들기, 플레이 모빌(Play mobil), 장난감 가지고 놀기,

레고, 애완동물 돌보기, 보드게임, 퍼즐 등이 있음.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음악활동을 하는 것’은 11세 아동의 25%에 해당되며, 남아이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관심이 떨어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예상대로 만 4세에서 13세 사이에 64%에서 20%로 감소함.

전자미디어 사용에 관한 질문, 즉 핸드폰 게임, 게임 콘솔, 게임보이 및 닌텐도 등을 사용하는 빈도와 통화는 TV 시청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전자 미디어 사용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디지털 게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의 20%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고 응답한 반면, 만 10~13세의 경우 73%에 달함. 연령이 증가할수록 라디오시청, 유튜브, DVD, SNS, 전화 통화 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짐. 78%에 달하는 만 10~13세 아동들이 이런 이유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자 미디어를 사용함. 책, 잡지 또는 만화 등을 읽는 비율은 69~77%로 모든 연령대에 비슷하였으며 세 번째에 속함.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많은 아동들이 문자(SMS)를 사용함. 질문에 응답한 아동들 중 거의 50%가 이 방법을 사용하며, 점점 많은 아동들이 왓츠앱을 사용함. 만 9세 이후 왓츠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현저히 증가하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글쓰기가 수월해지고, 여가 활동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능력이 향상하며, 사진이나 비디오, 보이스 메시지를 보낼 데이터 용량을 가진 기기를 소유하는 비율도 증가하기 때문임. 만 10~13세의 아동들의 왓츠앱 사용률은 68%이며, 그들에게서 두 번째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임. 첫 번째는 6~13세 모든 연령대에서 전화통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13세 아동들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연령대의 아동 중 7%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음. 만 6세 아동의 20%가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만 10세 아동의 20%는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만 12세 아동의 20%는 태블릿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컴퓨터를 소유한 아이들은 전체의 50%에 달함.

■ 청소년기의 Gender-Pay-Gap

이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가진 돈에 관한 조사도 실시하였는데, 남자 아동들이 -실제 성인 노동시장에서처럼- 같은 연령대 여자 아이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음. 만 4~5세 여아는 한 달에 평균 17유로, 여아는 20유로를 받으며, 만 6~9세의 경우 30유로(여)와 33유로(남)를, 10~13세의 경우 52유로(여)와 55유로(남)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돈의 액수는 용돈 외에 조부모님들이 주신 것, 방학 때 받는 돈, 생일 등 행사 시 받는 돈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나이가 어릴수록 돈 지불에 관해 부모와 상의하는데, 그 비율이 가장 어린 연령대는 전체의 2/3, 6~9세는 1/3, 그 보다 높은 연령에서는 부모들이 돈에 관해 상관하지 않음.

돈 지출 내역 중 용돈으로 받는 돈은 대부분 균것질에 쓰이고, 두 번째로는 잡지나 만화책 같은 인쇄물을 사는 데 씀. 다음으로는 음료, 패스트푸드 또는 과자를 구입하는 데에 씀. 읽을 거리를 찾는데 있어서 거의 70%의 아동들이 스스로 선택함. TV시청에 있어서는 설문대상의 반 정도가 부모와 함께 상의하며, 인터넷 사용, 온라인 접속은 40%, 스마트폰 앱 사용은 28%가 부모와 상의함.

독일의 만 4~13세 어린이는 약 7천2백만 명이며, 연구 조사 인터뷰에는 만 4~6세를 둔 400명의 부모가 참여함. 또한 6~13세 어린이의 경우는 1,600명이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함. 어린 연령대 아동들의 경우 독일어권 1백 40만 아동들이, 6~13세의 경우 5백 80만 아동이 해당함.

2017년 8월 8일

출처: <http://www.zeit.de/wissen/2017-08/kinder-medien-studie-2017-mediennutzung>

6. 많은 부모들이 책 읽어주기를 너무 늦게 시작한다

요즘은 영아를 위한 많은 읽을거리가 있음.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책들은 대부분 책을 만든 재질에 집중하는데, 예를 들면 바삭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표면의 촉감에 중점을 두거나, 누르면 딸랑이 소리가 나는 것 등이 있음. 어떤 책들은 목욕탕에서도 볼 수 있음.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통해 아이들은 놀면서 책과 친해질 수 있음.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아동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읽어주기를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음. 독일 부모의 45%만이 자녀가 태어난 후 첫 해에 정기적으로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며, 28%에 달하는 부모들이 첫 3년 동안 책을 읽어 주지 않음. 이는 독서재단(Stiftung Lesen)에서 수행한 책읽어주기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연구 팀장인 지모네 에미히(Simone Ehemig)씨는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문화가 일찍이 싹트지 않는다고 말함. 그의 말에 따르면 1세 때부터 책을 읽어주면 어린이에게 커다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함.

책 읽어주기 연구에 523명의 부모들이 참여했음. 참여 부모들의 반 이상이 어린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는데, 이는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어린자녀에게 무리한 것을 강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20%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는 자녀가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32%의 부모들은 자녀가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에미히씨는 부모들은 주로 책읽어주기를 “효율적인 관점”에서만 본다고 주장함. 92%의 부모들은 책읽어주기가 아동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함.

부모들이 책 읽어주기에서 간과하는 것은 정서적 경험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때 무엇이 특히 마음에 드는가를 부모에게 물으면 다른 관점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 책을 읽어줄 때의 신체적 접촉, 그리고 재미임.

부모 네 명 중 한 명은 영아를 위한 적합한 책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응답함. 연구조사 가정의 3%는 집에 아동도서가 전혀 없으며, 56%가 1개에서 10개를 소유하고 있음. 책을 선물 받았을 경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부모가 일찍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경우가 증가 할 수 있음.

독서 재단은 지난 몇 년간 “짜이트(Zeit)” 신문사와 독일철도재단(Deutsche Bahn Stiftung)과 함께 독일 전체 책읽어주기의 날을 정함. 책 읽어주기의 날은 매년 11월 17일로 유치원, 학교 그리고 여러 다른 기관에서 수만 명이 책 읽어 주기 운동을 함께 함.

2017년 10월 24일

출처:

<http://www.tagesspiegel.de/wissen/vorlesestudie-2017-viele-eltern-lesen-zu-spaet-vor/20497060.html>

7. 좋은 유치원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킨다

좋은 유치원은 아동의 사회성을 발달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만 4-5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질적으로 우수한 유치원일수록 아동들의 행동 또한 친사회적인 것으로 나타남. 더 중요한 것은 특히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부족한 사회성이 좋은 유치원을 통해 보충되어진다는 것임.

최근 대부분의 교육 관련 연구 조사 결과는 독일 내 학교에서의 성공은 아이의 부모 즉 가정에 의해 좌우되고, 가정에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충하기가 힘들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았음.

독일 경제 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는 독일의 200개 유치원에 다니는 1,7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함. 질문지는 국립교육관련패널(Nationales Bildungspanel: NEPS)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배려심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지에 관한 질

문에 응답함. 유치원 환경의 질적인 면은 그룹크기, 교사 인원 수,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활동, 교사들의 교육수준과 교육자료 여부 등 이상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함.

연구자들은 질적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한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의 아동들을 서로 비교하였음. 질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춘 유치원에는 가정환경 또한 좋은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 이러한 영향 조건은 제외하였음. 그럼에도 질적으로 우수한 환경의 유치원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저자인 게오그 카멜(Georg Camehl)씨는 밝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히 엄마의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읽기, 만들기 작업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임.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룹 또는 단체 활동은 특히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됨. 유치원의 질적 향상은 아동들의 가정 배경으로 인한 발달 상의 어려움을 덜어줌. 이러한 이유로 독일 내 유치원에 대한 질적 기준 평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연구소 카타리나 스피스 (Katharina Spieß)씨는 강조함.

문제는 가정에서 독일어를 쓰지 않는 아동들이 주로 질적으로 낮은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것임. 두 번째 DIW 연구팀의 조사 결과, 이런 아동들의 1/3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아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치원을 다님. 제대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배우는데 적절하지 못한 환경의 유치원을 다니는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2017년 12월 19일

출처:

<https://www.morgenpost.de/politik/article212891873/Gute-Kitas-koennen-Defizite-im-Sozialverhalten-ausgleichen.html>

●● 기타

1. 남성 동성애자 교사가 근무하는 베를린의 한 유치원, 논쟁을 불러일으키다

영유아들의 손을 잡고, 기저귀도 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보통 유아교사가 하는 일임. 베를린의 한 유치원의 유아교사는 이러한 일들을 했을 뿐인데, 부모들은 이 유아교사에 대해 반대 시위에 나섰다. 그 이유는 이 교사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이었음.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교사-학부모 모임에서 유치원 원장은 이 교사를 부모들에게 소개하였

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혔음. 이것을 들은 대부분의 무슬림 부모들은 격분하였고, 동성애자 교사가 일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모을 것이라고 위협하였음.

"그들은 동성애자 교사가 일하는 유치원엔 더 이상 자녀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유치원 원장은 전함. 유치원 원장은 교사 편에 섰고, 반대를 하는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다른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음.

동성애자 교사는 계속 그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 교사에 대한 주변의 불신감은 여전히 존재함. '저 교사가 우리 애를 만지나?' 하는 의심 어린 눈빛으로 부모들이 봐요. 계속 감시 받는 느낌이라 제대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동성애자라고 하면 바로 아동 치한범이라고 몇몇 부모들은 생각하죠. 그들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21세기인 현재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유치원 원장은 말을 이어갔음.

베를린에서 생긴 이 극단적인 경우는 무슬림 부모 사이에서만 아님 아마도 큰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임.

정부 산하 차별퇴치부에서 이루어진 동성애자의 고용 현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귀하의 아들의 교사가 남자 동성애자라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설문조사 응답자 중 4분의 1의 경우가 조금 불쾌하다에서 아주 불쾌하다, 까지 답을 하였음.

동성애자 상담소 소장인 마르셀 드 그로트 (Marcel de Groot)씨는 이번 베를린의 유치원에서 생긴 일이 예외의 경우가 아닐 것이라고 함.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거절은 베를린 사회의 일부에선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그는 말했음.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이 무슬림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보지 않음. "종교가 중요한 곳에서는 동성애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슬림이거나 크리스천이거나 상관없습니다," 라고 설명함. 이외에도 사회적 단속이 심한 특정 환경에서는 동성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함.

베를린의 유치원 경우, 그루트씨는 유치원 운영자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였음. 그는 "운영자가 제대로 대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동성애자 교사가 다른 분야로 옮겨집니다. 근본적으로 유치원에서 교사의 성정체성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며,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과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함.

베를린의 교육지사 역시 이번 사건의 동성애자 교사와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유치원을 지지함. 교육지사인 산드라 쉐레스 (Sandra Scheeres: SPD 정당)씨는 "우리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동성애자 교사를 채용한 유치원 운영자의 행동은 바른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베를린 교육·청소년·가족부는 베를린 라이니켄도르프 (Reinickendorf)의 부모들이 동성애자 교사를 반대 시위를 한 것은 극한 예외적인 경우이고, 이와 비슷한 상황의 경우가 없다고 설명함.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자가 어린 영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교사를 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고 함.

현재 유치원 교사로 종사하는 남자의 비율은 전체의 10%에 해당함. 쉘레스 씨는 "저희는 좀 더 많은 남성이 유치원 교사로 일했으면 합니다. 영유아들에게 역할 모델로서 중요하니까요. 동성이나 이성이나 어느 성적 취향을 가졌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남자 교사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설명함.

2017년 3월 30일

출처:

<http://www.stern.de/panorama/gesellschaft/schwuler-kindergaertner--protest-von-berliner-eltern-7391326.html>

2. 동성애자의 권리 현황: 독일은 오히려 퇴보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의 경우 사실혼 관계만 가능하고, 혼인관계는 허락하지 않았음. 독일보다 앞선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음.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세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독일과는 달리 약 20개국의 나라에서는 이미 모든 이들에게 즉 동성애자들에게도 결혼이 허락됨. 이 중에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가 포함되어있음. 이들 네 국가에서는 결혼한 동성부부가 아동을 입양할 수 있음. 타이완에서도 2016년 5월 이후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허락됨.

동성애자들의 혼인관계를 허락한 선두자는 네덜란드로, 세계 최초로 2001년에 동성애자들에게 혼인관계를 허락함. 그 다음으로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북아일랜드를 제외), 룩셈부르크 그리고 핀란드가 결혼, 즉 혼인관계를 허락함. 스페인과 아일랜드와 같은 카톨릭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에서도 동성애자 혼인관계가 허용됨.

독일과 이웃 국가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공식적으로 결혼, 즉 혼인관계는 할 수 없고, 사실혼 관계만이 가능함.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 했을 때 이 나라들은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북아메리카에서는 캐나다가 2005년 동성애자들의 혼인관계와 입양을 허락하였고,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2005년 전 부터 이를 허용함. 미국에서는 2015년 이후 최고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모든 이에게, 즉 동성애자들에게도 혼인관계를 허용하였는데, 50개의 주 중 14개의 주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의 동성애자들의 권리 현황은 나쁘지 않음.

동성부부가 부모일 경우 - 아이에게는 단점이 없음.

동성의 부모 아이들도 이성 부모의 아이들과 별 차이 없이 발달한다고 국제 및 국내 입양 연구소 (EFZA: Expertise- und Forschungszentrum Adoption) 심리학자인 이나 보벤첸(Ina Bovenschen)은 주장함. 아동의 복지는 가족 형태에 있지 않고, 어떻게 가족이 살아가느냐에 대한 방식에 달려 있고, 이런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동성부부가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밝힘. EFZA 연구소에 의하면, 현재 8개의 입양신청서 중 하나는 동성부부의 경우이거나 솔로인 경우라고 함.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동성부부들이 이성부부에 비해 오히려 부모행동에서 따스함이 더 많음. 연구결과에 의해 확인된 것은 동성부부 가족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따돌림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긍정적 부모역할과 행동에 의해 이것이 평정된다고 함.

아프리카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데,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남아공화국만이 2006년 11월에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할 수 있음. 수단의 경우 동성애는 심지어 사형에 처함.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인 탄자니아, 이디오피아 등은 동성애자들이 14년까지 감옥형이 이루어짐.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극한 상황의 나라들은 아랍권 나라들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라크, 이란,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등의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동성애가 사형에 처하게 되어있음.

동유럽권과 아시아의 경우 동성애자의 권리가 안정적이지 않음.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경우 일상에서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3년 이후 러시아에서는 법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긍정적이거나 심지어 중성적인 의견을 미성년자 앞에서 또는 매체를 통해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500유로까지 벌금형에 처함.

2017년 6월 28일

출처: <https://www.tagesschau.de/ausland/ehe-fuer-alle-weltweit-101.html>

3. 독일의 대가족 현황에 관한 조사

독일 대가족의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됨. 이 연구 결과는 삶에 만족하고 건강한 부모들의 자녀 출산율이 높다는 것임.

독일 경제 쾰른 연구소 (Das Kölner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는 다둥이 가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삶의 원동력이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과 첫째와 둘째의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셋째 출산까지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남.

이상의 연구 결과는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독일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정하는 데 이런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함.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 형성에만 주의를 둘 것이 아니라 대가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지난 수십 년간 독일 내 대가족이 차지하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가고 있는데, 이는 전체 저출산에 68%를 차지하는 부분임. 무자녀로 인한 저출산율의 기여도는 26%밖에 되지 않음.

IW연구소 연구자인 악셀 플린네케 씨는 지난 목요일 베를린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함. 그는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의 직업교육 향상과 취업과 같은 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젊은 부부들이 일찍 자녀 출산을 하는데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가정과 직업 병행의 가능성, 원활한 유치원 등하교 시간 등을 제안함.

다둥이 가족 연합 이사인 엘리자베트 뮐러 씨는 선거 후에 다둥이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이 좀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 하며,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추가 지급, 아동연금수당, 건축 시 아동수당 등을 제안하였음.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둥이 가족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일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족 자녀들이 적어도 중간정도의 교육수준에 도달해야 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녀들이 사회, 직업 생활을 통해 국가에 지출하는 세금과 사회 기여금이 국가에서 이 자녀들에게 교육 및 여러 수당을 통해 지출하는 비용보다 더 많기 때문임.

세 번째 자녀가 기술 교육을 받을 경우, 그 자녀가 평생 동안 국가에게 평균적으로 약 5만 9천 유로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 대학 교육 등의 고등교육을 받을 경우 국가가 얻는 이익은 45만 유로에 해당함. 반대로 세 번째 자녀가 아무런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직업이 없을 경우

에는 반대로 국가는 약 30만 유로의 손해를 보게 됨.

교육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서 또 한 번 강조됨. 이는 다둥이 가정의 가족에게 커다란 숙제이기도 함. 다둥이 가정의 많은 부모들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과 고소득층이지만 다둥이 가정은 사회 소수층에 속하기 때문임.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저학력과 저소득층 부모 또한 다둥이 가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중의 많은 가정들이 이민자들임. 다둥이 가정 중 전통적인 중산층 가정의 비율은 적음.

IW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형태 및 규모는 집안 내력인 경우가 많음. 다둥이 가정의 자녀가 이후 다둥이 가정을 이룰 확률이 두 자녀 또는 한 자녀 가정의 자녀 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독일에는 약 89만 가정이 세 자녀 또는 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음. 이는 전체 가족 형태 중 11%에 속하는 수치임. 네 자녀 이상의 가정은 주로 이민자 가정이고, 네 자녀 가정의 둘 중 한 가정은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음.

다둥이 가정의 큰 문제는 집을 구하는 것임. 큰 도시에는 저소득층 다둥이 가정이 살 만한 아파트나 집들이 많지 않음. 독일의 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평균 4.8개의 방(거실 포함)을 가진 아파트나 집에서 살고 있는 반면, 세 자녀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는 자녀가 적은 가정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5.2개의 방을 가진 집에 거주하고 있음. 세 자녀 가정의 3분의 1이 자신의 주거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랄 만 한 일이 아님.

이와는 반대로 다둥이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삶과 특별한 가족의 삶에 대해 만족함. 84%의 한 자녀 가정의 엄마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반면, 두 자녀나 세 자녀 가정의 엄마들의 삶의 만족도는 더 상승하여 90%에 달함. 한 부모 가정의 엄마들의 삶의 만족도는 위의 수치 보다 약 20%가 하락한 수치임.

아빠들의 경우 행복감은 두 자녀 가정의 경우가 가장 높음. 배우자와 함께 사는 두 자녀 가정의 약 87%의 남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반면, 세 자녀나 네 자녀 가정의 남자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짐.

2017년 7월 9일

출처: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168426927/So-geht-es-Grossfamilien-in-Deutschland.html>

4. 동성애 부부의 아동 입양

“모든 이에게 혼인허락(Ehe für alle: Marriage for everyone)”의 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를린의 한 동성애 부부가 아동을 입양함. 관련 관할청인 템펠-크로이즈 베르크 (Tempel-Kreuzberg)는 혼인신고를 허락했고, 이와 동시에 입양 또한 법적효력을 얻 음. 동성애 부부가 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독일에서 처음 있는 일임.

이는 독일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이에게 혼인허락”이라는 법에 의해 가능한 것임. 동성애 부부도 이로 인해 이성애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아동을 입양 할 수 도 있음. 이 베를린 동성애 부부는 새로운 권리를 바로 실천에 옮김.

“우리 둘 다 같이 부모로써 등록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감동입니다.”라고 42세의 미하엘 코 로코 (Michael Korok)씨는 말함. 이런 비슷한 상황의 동성애 부부들과 어린이들이 법적 변화로 고충이 덜어짐. 미하엘과 카이 코로코 (Kai Korok, 46)씨는 10월 2일 사실혼 관계에서 정식 부부로 혼인신고를 마침. 이 혼인인증서를 가족재판소에 제출했고, 가족재판소는 이 부부가 출생 후 부터 키워왔던 수양아들을 정식 입양할 수 있다고 허락함.

2017년 10월 10일

출처:

<http://www.spiegel.de/panorama/gesellschaft/adoption-dank-ehe-fuer-alle-schwules-paar-aus-berlin-adoptiert-kind-a-1172258.html>

5. 출생신고서에 제 3의 성을 기록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새로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터섹슈얼(intersexual)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르게 표기할 수 있게 됨. 남성, 여성 외에도 출생신고서에 다른 제 3성의 성을 기입할 수 있게 됨. 이는 칼스루에(Karlsruhe)에 위치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수요일 낸 결정으로, 총 8명의 판사 중 7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였음.

자신을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어떻게 이 결정을 실천에 옮길 것인지는 관여하지 않음. 다만 재판소는 다른 한 방법으로 성별 구분 문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제안함. 정부는 재판소의 결정(제 3의 성)을 “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결정으로 독일은 제 3의 성을 공식문서에 기록하는 법안을 도입한 첫 번째 유럽 국가가 됨.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차별금지의 인간 기본 권리와 남성, 여성의 성별 구분 주민등록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한 새로운 법안은 2018년 말까지 마련될 계획임. 어느 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성별 기록란에 “inter(중성)” 또는 “divers(다양함)”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였고, 관할 재판소는 동사무소의 거부가 옳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제 3의 성인 inter를 등록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인간 기본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고 봄. 남성,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처리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새 법안으로 생길 여러 사무적, 재정적 손실은 감안해야 할 일이라고 여김.

출생신고서에 제 3의 성을 inter 혹은 divers로 등록하게 해달라고 청원한 사람은 처음에는 여자로 신고 되어 있었으나 염색체 분석으로 나타난 결과로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중성(간성)임. 이 사람은 X-염색체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고,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분류되는 두 번째 염색체인 X 또는 Y 염색체는 존재하지 않음. 여러 관할청과 재판에서 번번이 거부판결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 3의 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성별에 따른 자아 정체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아 또는 타인을 인식하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남자나 여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정체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독일에는 약 16만 명이 중성을 보유하고 있음. 독일 윤리위원회(Der Deutsche Ethikrat)는 2012년에 이미 성별이 정확히 남녀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남녀가 아닌 다른 성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바 있음.

정치인과 인권위원회 등 여러 사람들이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연방가족부 장관인 카타리나 바르레이 (Katarina Barley)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으로 결정될 새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녹색당의 가족정책 위원인 프란찌스카 브란트너(Franziska Brantner)씨 또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중성을 가진 사람들의 성정체성을 통한 자아 주도적 삶이 새 법안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함.

독일 인권 연구소(Das Deutsche Institut für Menschenrechte)는 “성정체성의 다양함에 관한 법안”이라고 말하며, 이는 “육체적 성 발전의 다양성과 성정체성 그리고 성별 표현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함.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또한 “중요한 행보”라고 칭하였고, 이런 결정이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조할 것이라고 기대함.

2017년 11월 8일

출처:

<http://www.faz.net/aktuell/politik/inland/bundesverfassungsgericht-fordert-drittes-geschlecht-in-geburtregister-15283020.html>

6.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 선지불에 관한 법안 개정

한부모들이 전 남편이나 전 부인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수월하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한부모들이 애타게 입금을 기다리고 있음.

산드라 쉐러레스씨는 사회민주당(SPD)의 정치가이며, 베를린 주정부 의원으로 청소년(아동포함) 및 가족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음. 그녀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함. 정치를 하기 전 그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학업 외에 여성의 집, 고아원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지역의 가족들, 아버지 없는 가정을 도우는 아르바이트를 했음.

쉐러레스씨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아동 빈곤률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지난 한스-뵉클러-재단(Hans-Böckler-Stiftung)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독일의 약 270만 아동과 청소년이 빈곤에 처해 있음. 한 번 사회혜택(Sozialleistungen, 예를 들면 실업급여 등)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특히 청소년 및 아동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며, 한부모 가정 특히 다른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 아빠들임.

2016년 산드라 쉐러레스씨는 이런 아동들을 돕기 위해 새롭게 정책을 만들었지만, 서류 절차 등 행정의 문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쉐러레스씨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각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한부모 가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는지 살펴보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양육비 선지불 법의 개정을 요청함. 기존 법에 의하면,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 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불 하였는데, 이는 6년 간 가능하며, 아동의 나이는 12세 이하여야 함.

쉐러레스씨는 지불기간 연장과 아동의 제한 나이 연장을 요구하였고, 2017년 여름 이 법안 개정이 통과됨. 개정에 의하면,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선지불 청구를 할 수 있음. 한부모 가

정 연합에 따르면, 이 법안 개정으로 지금까지 지원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함. 노르크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에서 만도 이 혜택의 수혜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승하였음. 쉘러레스씨의 생각은 법적으로 통과 되었으나, 현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음. 아직까지도 많은 한부모 가정들이 정부의 양육비 선지불이 입금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 개정된 법안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임.

베를린에서는 넘쳐나는 신청서로 인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청 (Jugendamt)의 공무원들이 상담시간을 차단해버림. 베를린 미테 (Berlin-Mitte)지역은 11월 초부터 양육비 선지불 청구담당 부서를 폐쇄함. 법안 개정 후 여름에는 청구 가능한 부모들에게 선지불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거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

쉘러레스씨는 법 개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러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의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고 말함. 쉘러레스씨는 이런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 2017년 2월 베를린에서만 청소년청 공무원 수를 70명으로 늘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를 제대로 아는 관할 공무원이 부족하고, 일을 할 사무실이 부족하며, 특히 청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민자들로 서류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해 긴 상담이 필요함.

양육비 선지불이 늦어지면, 다른 부분의 일 진행에도 문제가 생김. 청소년청은 선지불에 관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부모에게 선지불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함. 선지불 청구가 많다보니 돈을 되돌려 받는 일은 밀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정부쪽에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실업급여 (독일에서는 하르츠 비어, Hartz IV라 칭함)를 받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새로운 법안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음. 예를 들어 세 아이의 엄마인 이리스 하이엔(Iris Heyen)씨는 올해 44세로 오랫동안 아이를 혼자 키워왔음. 그녀는 서점에서 일했지만, 유치원 시간과 서점에서 일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 서점 일을 그만두고, 유치원 교사 교육을 받고 있음. 일주일에 18시간을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험과 보고서 준비도 병행해야 함. 지금까지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근무시간을 늘리려 함. 아이들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음. 7월에 양육비 선지불 청구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했음. 딸들의 나이가 만 14세, 만 12세로 하이엔씨 같은 경우는 새 법안의 혜택을 받아야 함. 새 법안에 의하면, 각 아이들이 매달 200유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하이엔씨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선지불을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와 비교하여 차액이 지불되고, 극단적인 경우는

선지불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할 수도 있음. 이런 경우는 서류 처리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남. 청소년청에서는 사회혜택을 받지 않는 한부모 가정의 신청서부터 처리하기 때문임. (후략)

2017년 12월 21일

출처: <http://www.zeit.de/2017/53/unterhalt-alleinerziehende-staatliche-hilfen-vereinfachung>

스웨덴

일·가정 양립		
1	육아휴직, 남녀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133p
2	이주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134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부모의 교육비 미납으로 아동이 유치원에서 등원거부 당하는 일은 없어야	136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유아학교 내 평등 보장의 어려움	137p
2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 점점 어려워져 - 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야	139p
3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없다	140p
4	거품 낀 유아학교를 지양해야 한다	141p
5	유아학교(förskola)에 대한 이용권을 확장하려는 야당	142p
6	의무교육 연령을 6세로 하향 조정	143p
7	유아학교의 가장 큰 고충으로 과도한 학급별 인원 수가 꼽혀	144p
8	유아학교에서 사진 촬영 금지	145p
9	유아학교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달라는 현장의 요구	146p
10	교원연합의 새로운 유아학교(förskola) 정책 제안	147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유치원 아동들	148p
2	유아학교 커리큘럼 점검	149p
3	아동 스스로 선택한 테마를 사용하는 교육법	149p
4	유아학교에서 팩트북 읽기의 필요성	150p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유아학교 교사 수 증가에도 여전히 부족	152p
2	유아학교 교장 대상 단기 교육에 대한 불만	153p
3	교사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강조	154p
아동발달/부모됨		
1	유아학교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155p
2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뒤쳐지는 아이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기관 이용 지연	156p

❖ 일·가정 양립

1. 육아휴직, 남녀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1974년, 스웨덴에서는 처음으로 육아휴직이 실시되었음.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남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

시행 첫 해, 99.5%의 육아휴직은 여성들이 사용하였고, 그 이후로는 비록 육아휴직이 여전히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큰 성공이자 승리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적인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음.

공공 보육의 확대 및 개별 조세와 더불어, 육아휴직은 스웨덴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 자녀양육과 커리어 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만약 그러한 기회가 없었더라면 전업주부였을지도 모를 많은 여성들에게 노동시장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음.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장에 나가지 않는 동안은 급여 인상에서 불이익을 보는데, 여성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3배정도 더 길게 집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됨. 업무공백 기간은 또한 고용주가 여성을, 자녀의 유무를 떠나, 안정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라고 여기게 함.

직장생활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을 시작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님. 오히려 반대로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쓴 사람이 또한 지속적으로 가사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비정규직 직장을 갖게 되며, 자녀가 아플 경우에 집에서 자녀를 돌보게 되는 경우도 더 많음. 이는 아동이 성장해서 집을 떠난 한참 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적으로 더 적은 소득수준이나 더 적은 연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남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더 평등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가능한 일임.

육아휴직을 공평하게 분배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2005년생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2013년생 자녀를 둔 부모가 두 배가 많은 14%에 다다랐음.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아주 적게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에서는 실제적인 차이가 거의 없었음. 남성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20일 사용하는 집단이 가장 많았고, 여성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440일 사용한다는 집단의 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14.5개월의 육아휴직에 해당함. 이와 같은 속도로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모가 공평하게 양육휴가를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임.

육아휴직에 있어서 성차와 더불어, 다른 요인으로 인한 차이도 크게 보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직업군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버지들을 위한 휴직 기간을 넘어서는 더욱 정교한 변화가 필요하고, 현재 이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년 2월 1일, 한 진보정당의 평등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단은 더 평등하고 유연한 육아휴직에 관한 제안을 보고서로 제시하였음. 보고서는 다수의 좋은 제안을 담고 있지만, 재결합가정을 위한 제안이었던 아동 보호자의 파트너에게 육아휴직 일수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이었음.

그들이 지적한 현 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는 육아휴직 수당을 적게 받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안전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로 여성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격리시키고 있음.

실무단은 낮은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 육아휴직 일수를 줄이고 대신 수당의 전반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변경을 꾀하고 있음.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격리되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부 중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실무단은 또한 육아휴직이 기업인들에게 더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현재 기업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야 하기에, 곧 실제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를 고대함.

2017년 2월 1일

출처:

<http://www.dn.se/ledare/signerat/matilda-molander-rattvist-ar-att-dela-lika-pa-foraldradedigheten-1/>

2. 이주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스웨덴으로 자녀와 함께 이주하는 사람들은 육아휴직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정부와 다수 정당은 이에 동의했음. 이 제안은 자세하게, 아동이 만 1세가 되기 전에 스웨덴 거주자가 되면 부모들은 480일, 둘째 해에 거주자가 되면 200일, 그 이후는 100일의 육아휴직을 받게 됨.

사회보장위원회 의장인 Annika Strandhäll는 "우리에게 이 제안은 매우 중요한 성평등 개혁입니다. 이는 외국태생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간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휴가일수는 그 동안 스웨덴에서 사용되어 온 육아휴직 일수의 평균을 기초로 산출되었음. 현

재는 자녀와 함께 이주를 할 경우, 그 부모들은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음. 이에 대하여 Annika Strandhäll 의장은 "명백한 과잉지급"이라고 말함.

그녀는 이를 또한 아동과 관련된 개혁의 관점에서도 보고 있음. "우리가 아는 것은, 아동이 신속히 유치원에 등원해서 언어를 배우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함.

정부에 의하면 외국태생의 여성을 노동시장에 편입하도록 하는 더 많은 제안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각 지역의 육아휴직 중인 여성들에게 스웨덴어 수업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단체나 유관 기관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언어교육의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함.

법령은 금년 2017년 7월 1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며, 이는 정부가 의회 다수당과 동의한 이민 정책의 일부임. 따라서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임.

의회의 사회보장위원회 의원인 Emma Carlsson Löfdahl은 제안된 법령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육아휴직 혜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초기에서부터 육아휴직 체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전액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함. 그녀는 또한 법령이 여성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다수당은 법령을 더 구체화시켜 의회에 발의하기를 원하고 있음. 또한 이는 소득이 없어 육아휴직의 기저수준을 제공받는 인원들에게 적용됨. 사회보장위원회 부의장인 Johan Forssell은 "실제적으로, 우리 제안은 임신거주허가를 받은 인원들이 최대 아동이 1세가 될 때 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함. 법령의 내용은 지난 해 가을 실시되었던 육아휴직에 관한 조사내용과 일치함.

한편 야당은 이러한 법령이 아동이 1세가 되는 때부터 일련의 제약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이민협정과 거리가 있는 것임을 지적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2017년 3월 16일

출처: <http://www.dn.se/ekonomi/begransad-foraldrapeng-for-invandrare/>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부모의 교육비 미납으로 아동이 유치원에서 등원거부 당하는 일은 없어야

부모가 교육비를 미납할 경우 아동이 유치원(또는 유아학교)에 등원하는 것을 불허하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존재함. 사회가 부모의 불찰에 대한 불이익을 아동에게 가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저소득층 가정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언제나 존재하며, 모든 부모가 항상 자녀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아님.

이러한 취약 계층의 아동에게 유치원은 매우 중요함. 아동은 유치원에서 여러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게 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

그러나 아동이 유치원에서 등원거부 당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음. 한 신문사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스톡홀름과 예테보리에서만 37명의 아동이 부모가 교육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유치원 등원을 거부당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더욱 많을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으며, 아동에게 최대한 좋은 성장환경을 제공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아동이 부주의한 부모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아동에게도 잔인하고 또 사회에도 건전한지 못한 일임. 등원거부 당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한다면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됨. 예를 들어, 또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매우 괴로운 일임.

교육부에 따르면 50만 명에 이르는 아동이 유치원에 등원함. 이는 1세에서 3세 아동의 83%, 4세에서 5세 아동의 94%에 해당함.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하고, 자녀의 발달을 책임지기 때문임. 하지만 실제로 등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함.

유치원이 단순히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아기 돌봄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것은 예전 이야기임. 오늘날, 유치원은 아동에게 교육의 첫 관문이며 유치원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촉진함. 이러한 도움을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받지 못한다면, 아동 발달이 뒤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임.

모든 부모들은 이를 주의 깊게 인식하고, 아동의 교육비를 요금고지서의 최상단에 올려두어야 함. 또한 교육비 미납이 시스템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교육비를 납입하는

부모들에게 불공평할 뿐 아니라 그들의 교육비 납입 동기를 저해함.

따라서 말피 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교육비가 미납되더라도 아동의 등원은 보장해주고 부모에게 직접 납입을 요구해야 할 것임. 이는 관련기관에 부모의 빚이 늘어나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겠지만 적어도 아동이 유치원에 등원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은 없을 것임.

[1] 스웨덴의 취학전 교육보육기관 피르스콜라(frskola)를 주로 유아학교, 또는 유치원으로 번역함.

2017년 1월 22일

출처:

<http://www.dn.se/ekonomi/maria-crofts-barn-ska-inte-kastas-ut-ur-forskolan-for-att-inte-foraldrarna-betalar/>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유치원 내 평등 보장의 어려움

'평등'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항상 반영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임. 그러나 최근 실시된 학교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많은 유치원들이 이를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음.

다수의 조사대상 유치원에서 평등 및 성에 관련된 체계적인 업무가 부족했음. 구체적으로 절반의 교직원들이 아동들로 하여금 다양한 환경 및 교구를 시도하도록 (특히 자유놀이 상황에서) 잘 안내하지 못했음. 또한 4분의 3에 해당하는 유치원에서 교직원들은 그들이 평등과 관련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직장에서 이와 관련한 이슈를 토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학교조사위원회의 결론은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평등과 관련된 업무와는 잘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음.

학교조사위원회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Siv Silborgsson에 의하면 유치원에서의 업무는 매우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된 조사가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하였음. 그녀는 "평등과 관련된 부분을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원들은 능숙하고 유치원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뷰내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의 업무는 조사를 하는 것이었지 이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찰한 것들은 단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음.

말뫼대학의 Ingegerd Tallberg Broman 교수는 유치원에서의 평등을 주제로 대부분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학교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논의를 함께 해 온 연구자임. 그녀에 의하면 평등은 다른 주제들보다 복잡한 이슈이며, 평등과 성이 오늘날 유치원에서 긴급한 현안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함. 그녀는 "다국어, 이주, 세계화는 현재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평등은 그러한 이슈들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리된 하나의 이슈가 아닌 전체의 일부이며, 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라고 주장함.

그녀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등이라는 주제가 유치원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평등에 관한 의식은 "직업의식의 한 부분이며 또한 교사로서의 정체성의 일부" 라고 설명함.

우데발라(Uddevalla) 지역 한 유치원의 원장 Marie Aronsson은 약 10여 년 전 유치원의 평등위원회를 지정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등 확립에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함. 그리고 학교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보여진 바와 일치하게, 그녀도 이것이 적절한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종종 사람들은 그들이 양육되어 왔던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치원은 더 많은 토론을 필요로 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규범과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함.

우데발라 지역에는 "Shortcut Group" 이라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사람들이 최근 문헌이나 연구를 바탕으로 성 평등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한 학기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짐. Marie Aronsson 원장은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이슈를 모든 수준에서 (중앙관리 수준에서부터 개별유치원 수준까지) 다루도록 하는 긍정적인 유인가가 된다고 생각함. 그녀가 근무하는 Äsperöds 유치원은 학교조사위원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유치원이 체계적으로 평등 관련 이슈를 다루었기 때문임.

그녀에 의하면 "우리는 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성에 대해 생각하고, 학습환경을 살피고 우리가 관찰한 것을 기록하며, 서로를 촬영해서 행동을 관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관습적인 사고 유형에 간혀 있지 않기 위함이고, 이렇게 평등과 관련된 이슈를 그저 흘려보내지 않는 노력은 우리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함.

또한 Marie Aronsson 원장은 부모와의 협력에 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지 못 한다고 말함.

"사실 우리는 평등을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책 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는 부모들과 함께 하고 토론해야만 합니다. 이는 직업정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고 그녀는 설명함.

Ingegerd Tallberg Broman 교수는 "주위를 둘러 보면, 아동을 둘러싼 성차별이나 정형화된 성역할들이 만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적극적으로 모든 자유놀이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들에게 대안적인 선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라고 말함.

그래도 그녀는 학교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나타난 것보다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은 낫다고 생각하며, 평등은 유치원 업무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그녀는 유치원 커리큘럼에 사용된 언어들은 재고될 필요하다고 생각함.

2017년 3월 15일

출처: <http://forskolan.se/svart-fa-koll-pa-jamstalldheten/>

2.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 점점 어려워 - 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야

스톡홀름에서 보육시설에 등록하는 1세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6년에 스톡홀름의 1세아 중 59.5%가 보육시설에 등록하였는데 이는 4년 만에 21%가 늘어난 것임.

스톡홀름의 보육시설 시작 연령의 중위값은 18.7개월임. 등원가능 최소월령인 12개월 아동이 보육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도에서는 0.3%, 그리고 스톡홀름 시에서는 0.2%로 나타났고, 전국 통계는 0.6%임. 이런 구체적인 비율 차이를 제외하고는 1세아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은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스톡홀름 수준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지난 주 교육부는 보육시설의 커리큘럼을 점검하라는 정부 과제를 부여받았음. 교육부 조사관인 막달레나 칼슨은 현재 1세를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어린 아동들을 위한 별도의 커리큘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한다고 주장함.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원장으로서 그리고 운영자로서 어떻게 업무를 조직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연령이 감소할수록, 교육시설 환경의 재조정, 바깥놀이 환경, 그리고 교재교구 선택 등에 더 많은 고려사항들이 요구됨. 거기에서 교육부에서는

어린 아동은 작은 그룹(집단크기)에 배치할 것을 권고함. 그룹에 한 명의 인원만 추가되어도 교우관계의 양이 상당히 증가하며, 이러한 것들이 어린 아동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

4월말에 발표된 아동의 그룹에 대한 통계는 아동의 집단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보임. 그러나 1~3세 아동의 경우 6~12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새로운 권고안보다 더 큰 집단크기를 갖는 경우가 여전히 있음. 스톡홀름의 경우 어린 아동의 그룹 인원은 평균 13.2명임. 막달레나 칼슨에 의하면 종종 자치단체들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 3개월 내에 보육 시설을 배정하는 것이 아동의 반/학년 크기(아동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스톡홀름 학교위원회 위원이자 교육위원회 의장인 올레 부렐은 어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도한 교우관계를 고려해서 10명의 아동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보육시설이 대체로 15명의 아동과 3명의 교사를 기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이 아동그룹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지가 중요함.

올레 부렐에 따르면 스톡홀름은 보육교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자치단체가 보육시설 교직원의 의견을 경청함. 아이들의 입소 보장기간을 지키는 것이 그룹별 인원수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은 아동 수의 그룹 유지를 위해 몇 개월 더 기다려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보육기관이 가능한 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함.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아동의 57.1%가 8월에 보육기관에 다니기 시작함. 전국적으로 월령의 분포는 다른데, 이는 아마도 수용 가능한 인원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17년 5월 3일

출처: <http://www.dn.se/arkiv/stockholm/fler-barn-borjar-forskolan-redan-som-ettaringar/>

3.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없다

야당 복지위원회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보육기관을 선택할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제안함.

스톡홀름 의회에서 정당의 새로운 의료정책을 만드는 안나 스타브링크는 자발적으로 자녀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로 한 부모의 아동들이 의학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아동에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함.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아동은 자발적으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수 없도록 강제될 수 있는 것임. 그녀는 의학적인 원인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아동이 보호받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자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로 한 다른 이들로 인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함.

올해 봄에 스톡홀름의 예바펠릿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홍역에 감염되어 이 이슈가 재점화되었음. 이들 중 적어도 7명은 아동이었는데, 야당의 제안에 의하면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자발적 비접종 아동들은 다른 보육시설로 배치될 수도 있음.

이와 유사한 의견들이 지역수준에서 제안되었을 때 이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역학자 안델스 테그넬가 제시한 의견임. 그는 만약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적어도 다른 아이들을 간과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함.

오늘날 백신접종의 비율은 약 98%에 이룸. 테그넬은 사회가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그는 보육시설들은 예방접종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방안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자발적 비접종 아동들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즉각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2017년 4월 30일

출처: <http://www.dn.se/arkiv/nyheter/ovaccinerade-ska-inte-fa-valja-forskola/>

4. 거품 낀 유아학교를 지양해야 한다

한 유아학교는 갑작스럽게 스웨덴어에서 영어로 사용언어를 바꾸었음. 이 기관은 “글로벌 마인드셋”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아동은 성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부모들은 화를 내고, 사정기관은 교사들이 다시 스웨덴어로 말하기를 요구하는 혼란이 야기됨. 불행하게도, 이러한 식의 허점으로부터 고통 받는 유치원은 이 곳뿐만이 아님.

2011년 발표된 새로운 유아학교 법령의 핵심은 교육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강조될 사안은 베이비시터가 아닌 교사라는 것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학교조사위원회의 연중보고에 의하면, 유아학교들은 전반적으로 “교육과 학습”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하는 수준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음.

또 다른 학교조사위원회의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는 것이 밝혀짐. 3분의 1 가량의 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80 %를 넘는 것으로 보임.

보고서의 많은 부분에서 유아학교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교육과 학습은 간과되고 있음. 학교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성인과 아동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대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종종 한 두 마디의 반복으로 끝난다고 함. 약 20%의 기관에서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지시에 기초한 대화를 하고 있음.

보살핌과 안전이 이렇게 뒤로 밀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친 의욕 때문인 것으로 보임. 교육적 요소에는 보상이 따름. 최근 OECD의 연구는 교육적 요소가 아동의 미래 사회적 유동성을 높인다는 것을 밝힘. 이러한 과제는 제대로 교육받은 유치원 교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는 인원이 매우 적어 전국적으로 교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자신의 “교육과 학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아동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기회도 없는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킴. 결과적으로 아동들은 혼란스럽고 불필요한 과정으로 거품이 낀 유아학교에서 생활하게 됨.

2017년 6월 21일

출처: <http://www.dn.se/ledare/signerat/lisa-magnusson-varning-for-den-svenska-flumforskolan/>

5. 유아학교에 대한 이용권을 확장하려는 야당

야당은 이번 수요일 비스비(Visby) 지역에서 열리는 경제세미나에서 사회적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야당은 장기 정부지원을 받는 부모의 아동들이 유아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연장하고자 함. 이 제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6억 크로나(한화 2240억원 상당)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경제·정치 대변인 울프 크리스터손은 부모들이 원하지 않아 유아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도 유아학교가 필요하고, 따라서 아동 보육에 대한 더 많은 접근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이 제안은 야당이 실행하고자 하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현재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아동을 유아학교에 보내는 것을 의무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부모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는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그들이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유아학교를 이용해야 함. 크리스티손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이 유아학교에서 스웨덴어를 배워서 미래의 학교생활을 대비한다는 것임.

현재 취약지역 출신의 아동들의 학교 적응에 대한 기대수준은 낮음. 하지만 가정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라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음. 이 제안은 사회적 유동성을 높이는 장기적 개혁의 한 종류임.

야당은 사회보장지원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변화를 함께 제안함. 예를 들면, 야당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이 파트타임 업무에 참여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함. 이 제안은 지난 화요일 알메달렌(Almedalen)에서 타 정당도 발표한 바 있음.

2017년 7월 5일

출처: <http://www.dn.se/arkiv/nyheter/m-vill-utoka-ratten-till-forskola/>

6. 의무교육 연령을 6세로 하향 조정

정부는 목요일인 오늘 이번 가을부터 의무교육을 6세부터로 하는 제안사항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이는 의무교육 연령이 1세 앞당겨졌음을 의미하고, 또한 유아학급(Förskoleklass)이 의무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함.

교육부 장관인 구스타브 프리돌린은 이는 모든 아동이 같은 출발점을 가져 이후 학교에서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며, 유치원(Förskola)과 초등학교 교육의 접점에 있는 유아학급(Förskoleklass)은 아동이 셈하고 글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을 제공해 주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모든 과목을 학습함에 있어 밑바탕이 되는 능력들이라고 함.

현재 매년 2% (혹은 2천여 명) 정도의 6세 아동은 유치원(Förskola), 유아학급(Förskoleklass), 혹은 초등학교 중 어느 곳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음. 구스타브 프리돌린은 이제 모든 아동은 유아학급(Förskoleklass)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함.

교원연합회도 정부의 제안을 환영함. 교원연합회의 부회장인 마리아 뤼은 이는 아주 오랜 기간 신경 써 왔던 문제로, 유아학급(Förskoleklass)은 유치원(Förskola)과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일 뿐만 아니라 유아학급(Förskoleklass) 특유의 교육과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함.

그러나 마리아는 의무교육 연령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아학급(Förskoleklass)

의 지위를 높이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유아학급(Förskoleklass)이 학교의 한 형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간과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예를 들자면, 유아학급(Förskoleklass) 교사들은 종종 여가활동센터(Fritidshem)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교육활동계획을 위한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음. 또한 많은 아동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교사들은 법령으로의 제정을 찬성함. 정부는 현재 초안을 의회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법제위원회에 보내는 작업을 진행 중임.

2017년 8월 3일

출처: <http://www.dn.se/nyheter/sverige/regeringen-vill-ha-skolplikt-fran-sex-ars-alder/>

7. 유아학교(förskola)의 가장 큰 고충으로 과다한 학급별 인원 수가 꼽혀

교원연합이 실시한 설문에서 10명 중 7명의 유아학교(피르스콜라) 교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거의” 혹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힘. 가장 큰 고충은 과다한 학급별 인원수인 것으로 나타남.

교사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이라는 질문에 응답했으며 열 한가지의 보기 중 고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선택함. 이 중 “과다한 학급별 인원수”는 총 7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음. 조사에 의하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적어도 21명 이상의 아동으로 구성된 학급을 담당하고 있었음.

교원연합 의장인 요하나 야라 오스트란드는 “설문은 유아학교 교사들의 업무환경의 심각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학급별 아동수를 줄이는 것은 교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의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아동의 안전과 욕구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함.

설문조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임.

- 58%의 교사는 그들이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경우가 거의 혹은 전혀 없다고 응답함.
- 57%의 교사는 계획수립이나 개발을 위한 보내는 시간은 주당 2~3시간이라고 보고하였으며, 17%는 그보다도 적은 시간을 갖는다고 응답함.

설문은 또한 교사들이 교육업무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활동에도 부분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이는 주당 1~2시간 정도였으나, 5명 중 1명은

그러한 시간이 최소한 5시간이라고 응답함. 그러한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임시직원고용, 설거지, 사무업무, 그리고 간식준비 등임. 요하나 야라 오스트란드는 이는 유아학교 교사들의 재능낭비라고 말함.

요하나 야라 오스트란드는 “업무시간 중 일부를 주요 관련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해 보내는 것은 대부분의 직업군에 공통적인 일이지만, 교사들에게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교사들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에 시달리고, 이는 특히 교사가 부족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질적 하락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교사들의 동기도 저해합니다.”라고 말함. 또한 그녀는 유아학교 교사들이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관련 결정권자들에게 기관에 변화를 일으켜 학급별 인원수를 줄일 것을 요구함.

고충 사항에서 2순위를 차지한 것은 56%가 선택한 교육 개발/계획 시간이 부족이었고, 3순위는 교육 외적인 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4순위는 급여로 48%의 교사가 이를 그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음.

2017년 9월 28일

출처: <http://lararnastidning.se/stora-barngrupper-storsta-problemet-i-forskolan/>

8. 유아학교(förskola)에서 사진촬영 금지

보로스 일보는 보로스 지역의 유아학교들이 단체사진 및 개인사진 촬영을 금지할 것을 주창한다고 밝힘. 보로스 유아학교들의 통합운영담당관인 마리 게르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함.

마리 게르딘은 “일단 사진촬영은 매우 시간 소모적인 작업이고, 이는 유아학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원보호 아동을 지키기 위한 것도 부분적인 이유입니다. 단체사진을 촬영하면서 아동의 신원을 완벽히 지켜주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함.

그녀는 어떠한 아동들이 사진촬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외주 촬영업체가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리스트가 최근 발표되었음을 언급함. 예전에는 신원보호 아동을 단체사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한 아동들이 단체사진에서 매년 제외된다면 이는 신원보호 아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게 됨.

이미 사진촬영 계약을 맺은 교육기관의 경우, 연말까지는 촬영을 모두 완료될 예정임.

보로스 일보는 유아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조치를 이해한다고 밝힘. 한 아버지는 아동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아버지는 "저는 단체사진을 찍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쉽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2017년 9월 1일

출처: <http://www.expressen.se/gt/forskola-infor-stopp-for-klassfoto/>

9. 유아학교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달라는 현장의 요구

유아학교(förskola) 교사가 장기 병가 통계에서 최상위에 자리함. 많은 교사들이 떠나거나 병을 얻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행운이라고 말함. 우리는 12명에서 75명의 아동을 돌보고, 이들을 30명과 45명의 두 그룹으로 나눔. 이상적이진 않지만 잘 운영되고 있음.

우리는 교사들 외에 일정 관리와 같은 업무들을 담당하는 교직원도 있고, 또 주방보조원이 있어 주방관리, 식사준비, 그리고 교사들이 시간이 부족해 할 수 없는 여타의 업무들을 하고 있음. 우리는 아동을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수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름. 우리 기관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들에게 결정권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전문가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음. 심지어 단기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임.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즐겁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라는 것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한 그룹에 존재하고 교사들의 수는 부족하다고 느낌.

아동의 그룹 사이즈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을 잘 수행해내는 취학 전 교육기관도 존재함. 교사들은 그들의 소임을 다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태도를 바로잡음. 그러나 이는 오직 양질의 운영과 양질의 리더십이 조화될 때에 가능하며,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우리 건강한 교사들은 한편으로는 현장에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기를 원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정치권에서 미래를 위한 사려깊은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기대함. 이는 반드시 여러 당이 합의를 통해 전국의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1-3세 아동의 경우 6-12명의 아동 그룹 당 2-4명의 교사를, 3-5세 아동의 경우 12-15명의 아동 그룹에 3-5명의 교사를 배치하여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는 우리 교사들이 업무를 양질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조용함, 근접성, 안정성,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래 및 성인들과 함께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즐거움이 필요하기 때문임.

스웨덴의 많은 취학 전 교육기관의 상황은 지속가능성이 없음. 심지어 단기간이라 해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상황은 재평가되고 개선되어서 교사들이 커리큘럼에 명시된 대로 아동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우리는 일부가 아닌, 모든 취학 전 교육기관의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그리고 공평한 교육과 보살핌을 제공하기를 원함.

2017년 12월 1일

출처: <http://lararnastidning.se/losningen-ar-mindre-barngrupper/>

10. 교원연합의 새로운 유아학교 정책 제안

교원연합이 유아학교(förskola)에 관한 정책을 리뷰한지 6년이 지나면서 연합회 의장단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그 중 하나는, 교원연합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규 유아학교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전문영역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임.

유아학교 교사이자 교원연합 의장단인 피아 리젤은 “예를 들자면, 이는 타 연령의 아동을 위한 교사들도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리지 교육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교육개발이라는 용어(개념)도 새로운 정책 문건에는 “계획하고 반영하고 개발하는”시간으로 대체됨. 이는 그 시간들이 유아학교 교사들이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

피아 리젤은 교육개발 시간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교육의 질이나 개발과는 무관한 다양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밝히며, 그 시간이 교육업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교직원 모두에게 할당되고 있다고 설명함.

피아 리젤에 따르면 교원연합회는 유아학교에도 조교에 해당하는 인원이 배치되기를 원함. 유아학교 교사들이 출결리스트, 새로운 원아 등록, 대리교사 채용 등에 관한 업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지원이 요구됨.

교원연합회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학교위원회가 제안한 전국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에 유아학교의 교사 및 원장이 포함되는 것임.

2017년 12월 22일

출처: <http://lararnastidning.se/ny-forskolepolitik-i-lararforbundet/>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유아학교 아동들

스웨덴 교육부는 아동들이 취학전 교육기관에서도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며, 이러한 교육은 이미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음.

솔렌투나에 위치한 한 유아학교(유치원)이 그 예를 보여줌:

다섯 살 알리샤 카메보리는 색색의 플라스틱 낙타의 수를 세고, 바닥의 투명한 플라스틱 매트 위에 늘어놓음. 그리고 익숙하게 “비봇 (작은 로봇)”의 등에 있는 단추를 누름. 그러면 비봇은 알리샤가 프로그래밍한 것을 따라 천천히 구르며, 몇 초 후에 비봇은 숫자 6에서 멈춰 섬.

낙타들은 로봇이 플라스틱 매트 위에서 목표를 계산, 달성하는 것을 도와줌. 이 활동의 본질은 프로그래밍 -알리샤가 로봇의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입력한 일련의 커맨드 -임.

"이는 매우 큰 진전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이 활동이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들은 이를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를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교사인 캐더린 베리만은 말함.

교육부는 학령 전 아동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커리큘럼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것이 5세 아동들이 실제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하지만 아동들이 단순히 손이나 앱을 사용해서 사물을 통제할 수 있음을 배우는데 그치는 것도 아님.

"아이들은 매우 큰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도전이 될 만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라고 캐더린 베리만은 말했음.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2월 취학전 교육기관을 위한 국가 수준의 IT 전략에 관한 제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음. 이 제안에 포함된 내용의 일부는 취학 전 교육기관은 아동들이 디지털화된 일상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아동들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 교사들은 책임감을 갖고 그룹 활동을 수행하여 아동들이 일상의 디지털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자극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있음.

2017년 2월 13일

출처: <http://www.dn.se/arkiv/nyheter/har-lar-sig-smabarn-att-programmera/>

2. 유아학교 커리큘럼 점검

정부는 유아학교들 간의 교육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유아학교의 커리큘럼을 점검하고 개정하라는 과제를 부여함.

교육부 장관인 구스타프 프리돌린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많은 일들이 유아학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된 커리큘럼은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형평성 보장에 실패할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대화된 커리큘럼 개정을 시행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학계와의 협업을 시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함.

2017년 4월 25일

출처: <http://www.dn.se/nyheter/sverige/forskolans-laroplan-ses-over/>

3. 아동 스스로 선택한 테마를 사용하는 교육법

솔렌투나(Sollentuna)의 유아학교(förskola) 교사인 엘리자베스 라슨이 2017년 올라-브리타 브룬(Ulla-Britta Bruun) 상을 수상함. 그녀는 유아학교에서 아동이 스스로 선택한 테마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법으로 이 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아동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법임.

아동은 스스로 테마를 선택하고 계획해서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아동들에게 이를 발표함. 솔렌투나의 비쿠판(Bikupan) 유아학교 교사인 엘리자베스 라슨은 수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해 왔음.

그녀는 올라-브리타 브룬 상을 수상했으며 상금으로 30,000 스웨덴 크로나 (한화 450만원 상당)를 받음. 이는 그녀가 책을 출판해서 다른 유아학교의 교사들에게 그녀의 교육법을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그녀는 교원조합 의장인 요하나 오스트란드로부터 상패와 꽃다발을 받으며 “제가 일하는 방식을 다른 교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꿈이 실현되어서 정말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전함.

그녀의 교육적 접근법은 많은 시사점이 있으나, 그 중 하나는 아동이 스스로의 관심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자유롭게 테마를 선택한다는 것임. 다른 하나는 아동이 같은 그룹 내의 다른 아동들 앞에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교육법은 2006년에 “아동흥미추적”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됨. 그녀는 수년에 걸쳐 200여개가 넘는 다양성을 지닌 주제들을 개발해왔다고 말함. 한 소년은 “빨리 달리기 테마”를 고안해 냈는데, 여기에는 출발점부터 안내 깃발, 유동통제 및 다른 아동에게 안내하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음. 다른 예로는 “놀이방에서의 수영”이라는 테마, 기니아 피그 복장을 하는 “기니아 피그”테마, 그리고 “아랍댄스”라는 테마가 있음.

엘리자베스 라슨은 “가장 좋은 점은 부모를 포함한 성인 그리고 아동 모두가 교육활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아동이 리더십을 기르는 기회를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그녀는 수줍고 조용한 아이들이 처음으로 같은 그룹 아동들의 앞으로 나와 이야기하는 순간이 가장 보람차다고 말함.

2017년 10월 30일

출처: <http://forskolan.se/arbetet-med-barnens-egna-teman-gav-stipendium/>

4. 유아학교에서 팩트북 읽기의 필요성

안나 바크만은 유아학교 읽기영역에서의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 그녀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팩트북의 위상에 대하여 이야기함.

팩트북이 유아학교에서 잊혀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그렇다고 봅니다.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자연과학 팩트북은 많지 않으며, 얼마 있지 않은 책들도 대부분 동물들에 관한 것입니다. PIRLS나 PISA와 같은 보고서(국제학업성취 비교보고서)에서도 보여지듯이 나이가 많은 아동들도 사실기반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마도 이 아이들이 사실기반의 텍스트를 읽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들은 책에서 팩트를 접하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른 논의점은 무엇입니까?

“선행연구는 다른 장르의 책들이 서로 다른 욕구를 충족시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허구적인, 심미적인 지식을 전하는 반면, 팩트북은 객관적인, 사실기반의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동을 위한 많은 팩트북을 들여다보면, 우선순위를 객관성이나 팩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팩트북은 종종 허구, 재미, 그리고 심지어는 실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사실과 허구를 혼동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 무슨 의미인지요?

“예를 들면 사라 세파드가 지은 숲속의 동물들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숲쥐에 관한 정보가 있고, 어떻게 숲쥐들이 땅 아래에 구멍을 파고 살고 있는지에 관한 그림도 있습니다. ‘쥐 유 지원’을 나타내는 구멍에는 벽에 그림이 걸려 있고 또한 생쥐 쳇바퀴도 있습니다. 홀 밖에는 부엉이와 여우에 관한 경고 사인도 있습니다.”

■ 그러한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문학읽기에 관한 연구는 경험이 적은 독자들은 허구적인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해야함을 보여 왔습니다. 저는 어린 아동들은 대체로 독자로서 경험이 적은 편이고 그들이 읽는 책에서 팩트와 허구를 구분할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학교 교사들은 아동들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아동과 함께 무엇이 사실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는 책에서 다루는 현상에 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출처: <http://forskolan.se/fram-med-faktaboken/>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유아학교 교사 수 증가에도 여전히 부족

스톡홀름 지역의 유아학교 교사가 2015년 35%에서 2016년 39%로 증가하였음. 교육위원회 의원인 올레 부렐은 이러한 현상이 유아학교의 더 나은 업무환경과 리더십에 투자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트렌드라고 말함.

시는 유아학교에 유자격 정교사의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올레 부렐에 의하면 현재 스톡홀름에 이미 존재하는 유자격 정교사를 끌어들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스톡홀름의 아동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500-600명의 유자격 정교사가 필요함. 스톡홀름의 유아학교의 교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사 인원 부족은 더 심해지고 있음. 스웨덴 통계청에 의하면 2026년까지 스웨덴에는 65,000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29,000명은 스톡홀름의 인원수 부족을 반영함. 또한 유자격 정교사 5명 중 1명은 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

이러한 인원 10명 중 6명은 다시 교사가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함. 교원조합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근무조건을 원한다는 것임. 야당 시 대표 로타 에드홀름도 급여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표준계약 외에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함.

올레 부렐은 근무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스톡홀름의 급여 수준은 이미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스톡홀름의 교사들이 좋은 대접을 받고, 경력개발을 하며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함.

2017년 3월 30일

출처: <http://www.dn.se/sthlm/fler-forskollarare-men-lararbristen-bestar/>

2. 유아학교 교장 대상 단기 교육에 대한 불만

정부 조사관들이 유아학교(Förskola) 교장을 위한 단기 교육을 제안하였으나 원장들과 연합회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있음.

2019년부터 유아학교(Förskola) 원장은 교장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그들을 위한 교장 교육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교장교육보다 현저히 짧을 것임. 유아학교 교장을 위한 단기교육 제안에 대해 교원연합은 철회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많은 유아학교 원장들도 의문을 품고 있음.

유아학교(Förskola) 원장인 니클라스 야콥손은 교장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두 같은 교장으로 같은 대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교육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반대함.

3년 전 그는 한 지역 두 개 유아학교의 원장이 되었고 37명의 직원을 두고 165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음. 그는 2010년 장기 교장교육을 마쳤음. 니클라스 야콥손은 그것이 유아학교 원장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이었고, 특히 업무환경이나 법률에 관한 문제가 도움이 되었다고 함.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꼽음.

정부의 조사위원인 본 오스트란드는 다른 종류의 기관장들은 각자 다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짧은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예를 들면 유아학교(Förskola)에서는 성적평가와 같이 지휘권을 활용하는 종류의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음.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유치원 원장들이 교장들에 비해 아동과의 활동을 현저하게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으며 긴 시간을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니클라스 야콥손은 이러한 이유에 반대함. 그는 그들이 모두 교육 리더이며, 비슷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함. 또한 유아학교 교장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동이 겪는 불편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함.

심지어 교원연합도 이러한 제안에 매우 비평적이며, 국가에서 교육기간을 대리할 원장을 제외해서 교육기간동안 아동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연합회 회장 요하나 야라 오스트란드와 교원연합의 안-샬롯 가벨린 뤼드만은 교원소식지의 논평을 통해 교장 교육이 몇 주 만에 끝날 수는 없으며,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고함. 한편 고등교육 및 연구부 장관인 헬레네 헬마크 크누손은 이러한 비평에 대한 답변을 거부함.

2017년 8월 16일

출처: <http://lararnastidning.se/kort-kurs-for-forskolans-rektorer-vacker-ilska/>

3. 교사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강조

정부는 국가수준의 학교 디지털화 전략에 관한 결정을 내림. 교사의 디지털 역량은 비전을 성공으로 이끌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강조되었음. 디지털 역량은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임. 정부는 어제 정부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국 교육 디지털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함. 아동과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교육성취 증진과 형평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스웨덴의 지속적인 디지털화 실현에 있어 학교는 중심적인 역할을 함. 정부전략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교사, 학생, 유아학교(förskola)의 교사, 원아 및 원장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예를 들어 교사의 경우, 이는 “교육활동을 위한 디지털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부전략은 밝히고 있음. 예를 들어, 이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디지털 교보재, 프로그래밍 등을 학생의 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는 학교 및 유아학교 교사들이 “교육적 가치와 각 아동의 고유한 필요에 기초하여 디지털 학습 자원을 능숙하게 선택하고 사용하게 됨”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교직원 재교육 및 교사 교육에 새로운 도전이 요구됨. 정부는 학교 교장 및 유아학교 원장들이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고 밝힘.

고용주 연합회인 스웨덴 자치단체 연합(SKL)은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을 함께함. SKL의 대표 베스나 요빅은 성명에서 “SKL이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전략의 계획과 활동목표를 효율적인 실행계획으로 세분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교원연합회는 정부전략에 담겨있는 포부가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교원연합회 회장인 요한나 오스트란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은 스스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학교장 모두 학교의 디지털화 작업을 우선순위로 정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함.

전국 교사 연합회 역시 정부 제안이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행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함. 교사 연합회 회장인 오사 팔렌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당한 교육 및 보

수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당한 양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학습 교보재, 그리고 지원기술을 구매해야 합니다. 교육지원 역시 필요하며, 이 모든 것들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라고 말함.

2017년 10월 20일

출처: <http://lararnastidning.se/larares-digitala-kompetens-viktig-for-regeringens-vision/>

●● 아동발달/부모됨

1. 유아학교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유아학교는 아동의 성장과 양육에 매우 중요하고 주요한 장소임. 취학 전 교육기관의 목표 중 일부는 부모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과 삶에서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임. 유아학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아동이 감정을 경험하고, 통제하고, 표현하는 능력,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 그리고 세상을 탐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들은 모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

공중보건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최근 연구들을 리뷰하여 유아학교가 아동의 정신 및 인지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함. 그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유아학교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이 후 언어와 수학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아학교를 다닌 성인이(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교육수준 및 수입이 더 높았음.

보고서는 교직원의 업무능력 개발 또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음. 교직원의 학력 역시도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음. 유아학교 인력밀도의 효과는 불충분한 과학적 증거로 인해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유아학교에서 학령기 교육으로의 전환점에서 갖게 되는 루틴임. 일부 아동과 가족에게는 학령기 교육으로의 전환은 스트레스, 우려, 그리고 불안정성을 야기함. 이러한 반응들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위기 및 이후 성장과정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의미함. 유아학교에서 학교로의 전환 루틴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전환 루틴은, 예를 들면, 부모들이 아동이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방문해 본다면, 혹은 자녀들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본다면 하는 것들임.

공중보건부 조사관 이다 에릭손은 모든 아동은 학교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필

요로 하므로 유아학교와 학교 모두는 아동의 수월한 전환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루틴을 개발하는 그들의 노력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2017년 6월 14일

출처: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nyheter-och-press/nyhetsarkiv/2017/juni/forskolan-ar-bra-for-barns-psykiska-halsa/>

2.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뒤처지는 아이들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기관 이용 지연

스웨덴 290개의 자치단체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62개의 자치단체가 유니존의 여성 바로미터 설문에 응답하였음. 그 중 79%의 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쉼터의 아동이 단시일 내에 학교에 다니기 위한 명문화된 절차가 없다고 응답했고, 83%의 자치단체가 그에 상응하는 유아학교를 위한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보고함.

가정폭력피해쉼터로 자녀와 함께 이주해 오는 많은 여성들은 종종 학대남성을 피해 다른 도시에서 자리를 잡게 됨. 이 경우 아동을 같은 학교에 남겨두는 것은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자치단체들은 반드시 새로운 학교를 물색해서 제공해 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종종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전국의 130여개 이상의 여성, 여아 및 청소년 쉼터·지원센터 연합회의 사무총장인 올가 페르손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학교교육은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아동이 최대한 일상생활을 유지해서 어머니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은 중요한 일임.

유니존은 자치단체들이 선제적인 입장을 취해 가능한 학교정원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2017년 7월 3일

출처: <http://www.dn.se/arkiv/nyheter/barn-halkar-efter-nar-kommunerna-brister/>

영국

일·가정 양립		
1	직장에서의 승진보다 자녀 양육이 우선인 젊은 아버지들	158p
2	자녀를 동반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Chill-out Room'을 마련한 회사	159p
양육지원		
1	정부의 보육 정책 안내를 위한 웹사이트 'Childcare Choices' 개설	160p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웨일즈의 보육비용, 영국 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161p
2	30시간 무상보육 수혜 대상자에 관한 최근 통계	162p
3	소득증가보다 4배 더 빠르게 증가하는 여름방학 보육비용	162p
4	30시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혼란에 대한 경고	164p
5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추가보육 비용을 강요받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165p
6	잉글랜드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부모의 임금보다 7배 빠르게 상승	165p
7	웨일즈의 10개년 유아교육·보육분야 인력 계획	166p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영국 부모들, 보육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	167p
2	30시간 무상 보육제공을 위해 새로 마련되는 약 18,000개의 보육시설	169p
3	2017년 영국 총선 보육 공약	170p
4	2003-2017 유아교육 및 보육 전반에 관한 분석	171p
5	2017 영국 보육 제공 현황 및 실태 점검 결과	172p
6	스코틀랜드 정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 계획 발표	174p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0-5세 영유아교육·보육과정(EYFS)에 관한 법률 개정안	175p
2	유아교육·보육 현장에 적용가능한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식사 제공 안내서 발간	176p
아동발달/부모됨		
1	유아교육과 발달에 관한 연구(SEED)보고서 발간	177p
2	아동복지(child well-being) 지표로서의 영유아 언어발달	178p
3	유아기 신체활동 증진을 촉구한 상하원공동위원회	180p
4	잉글랜드 유아교육 및 발달에 관한 새로운 연구보고서(SEED) 발간	181p
기타		
1	홍보 부족으로 국민보험 연금 혜택을 놓치는 조부모들	182p
2	조부모의 양육 참여 현황 및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	183p

❖ 일·가정 양립

1. 직장에서의 승진보다 자녀 양육이 우선인 젊은 아버지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자선단체인 'Working Families'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제공 기업인 'Bright Horizons'가 함께 발간한 2017 현대 가족 지표(Modern Families Index)에 의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버지들이 가족의 삶이 일해 의해 영향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덜 일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다수의 직장들이 일과 가정의 더 나은 균형을 위한 아버지들의 바람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영국 전역 2,750명의 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가족'으로 확인되었고, 구체적으로는 10명 중 7명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탄력 근무를 하고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승진을 하기 전에 그들의 양육적 필요를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지난 수십 년간 일하는 어머니들이 직면했던 경력 확장에 대한 장벽들을 현재 아버지들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자녀 양육을 비롯한 가족 관련 책임들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직장 문화와 연관됨.

탄력 근무자들이 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수치는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나 높았고, 남성들은 탄력 근무제의 선택이 그들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5분의 1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고용주가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일에 방해를 주지 않기 원한다고 하였고, 반면 44%는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댄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음.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직업적 요구들로 인해 충분한 운동과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고 하였고, 30%의 부모들이 주기적으로 매우 지친다고 답하였음.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고용주를 만난다면 그들이 더 행복지고,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생산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아버지들의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그들은 자녀 양육의 책임과 일을 더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원한다고 함. 일하는 아버지들의 47%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직장가 가정에서의 요구를 균형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밀레니엄 세대 아버지들의 53%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직위 강등까지도 받아들일겠다고 하였고, 48%는 가족들과 함께 더 나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임금 삭감도 감수할 의사를 밝힘.

2017년 1월 20일

출처:

<http://www.nurseryworld.co.uk/nursery-world/news/1160050/young-fathers-put-childcare-above-job-promotion>

2. 자녀를 동반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Chill-out Room’을 마련한 회사

상당수의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보육 관련 문제로 인해 갑작스런 휴가나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직장 내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웨일즈의 한 IT 회사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옆에 자녀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이 회사는 갑작스런 사정으로 보육 기관에 맡길 수 없거나, 대체 보육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자녀를 회사에 데려올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위해 이른바 ‘Chill-out Room’으로 불리는 방을 마련함.

이 방에는 모니터, 놀이도구, 간식, 숙제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음. 더욱이 이 방은 직원들의 사무실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모들이 언제든지 자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함.

또한 필요할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직원들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직원들이 원격 근무 시 회사에서 개발한 자체 IT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원격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이러한 자녀 동반 출근이나 원격 근무와 같이 탄력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함.

2017년 7월 3일

출처: <http://www.walesonline.co.uk/business/business-news/company-child-friendly-chill-out-13274221>

● 양육지원

1. 정부의 보육 정책 안내를 위한 웹사이트 ‘Childcare Choices’ 개설

정부는 새로운 보육 정책[1]의 시행과 함께 부모들과 보육 제공자들을 위해 웹사이트를 활용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함.

웹사이트 ‘Childcare Choices’ (www.childcarechoices.gov.uk)는 부모들이 정부의 모든 보육 제공에 대한 정보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보육 유형을 찾는 데에 도움일 줄 것임. 특히 이 웹사이트는 부모들이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적합한지를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또한 보육 제공자들은 보육 현장에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관한 지원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음.

이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들은 그들의 수입과 생활환경에 관한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보육 제공에 관한 모든 지원을 살펴볼 수 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 유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보미를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음.

웹사이트에서는 비과세 보육, 30시간 무상 보육(잉글랜드) 혹은 30시간 보육 제공(웨일즈)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정부의 보육 제공 유형들을 비교하고 무엇이 자신의 가족에게 가장 이용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보육 계산기(Childcare Calculator)를 이용할 수 있음.

한편, 보육 제공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그들의 보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과세보육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무엇이 부모들에게 가능한지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보육 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잉글랜드의 보육 제공자들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시행되는 30시간 무상 보육에 관해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가령, 30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정책의 유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보육 제공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한편 웨일즈의 경우 또한 30시간 보육 제공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1] 비과세 보육(Tax-Free Childcare)과 잉글랜드의 30시간 무상 보육(30 hours free childcare, 맞벌이 부부의 3-4세 자녀에게 연간 1140시간(30시간×38주)의 무상 보육 제공), 그리고 웨일즈의 30시간 보육 제공(30 hours Childcare Offer, 주당 30시간 무상 보육을 연간 48주 제공할 계획으로 2017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

2017년 3월 22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government-releases-new-website-to-support-childre/>

❧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1. 웨일즈의 보육비용, 영국 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웨일즈가 영국 내에서 보육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음.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평균 보육비용 비교는 다음과 같음 (단위- £ 파운드):

구분	25시간 어린이집		2시간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클럽활동
	2세 이하	2세 이상	2세 이하	2세 이상	5-11세	5-11세
웨일즈	101.42	102.30	101.03	101.03	55.43	43.13
스코틀랜드	111.37	106.16	105.05	104.53	62.22	55.71
잉글랜드	117.43	113.43	110.68	110.11	68.12	52.80

웨일즈는 영국 내에서 보육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서, 약 100파운드 (한화 약 140,500 원(1파운드=1,405원 기준)) 정도면 25시간 보육 시설이 이용이 가능함. 그러나 문제는 충분한 보육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과 보육 재단(Family and Childcare Trust)에서 실시한 제16차 연례 보육 설문조사에 의하면, 웨일즈에서 2세 이하 영아의 25시간 보육시설 비용으로 주당 약 100파운드 (연 5,300 파운드) 정도가 드는데, 이는 영국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평균 15파운드 (한화 약 21,000 원) 정도 낮은 것임.

한편, 이 설문조사를 통해 웨일즈 지역의 17%는 전일제 직장인 부모들에게 적절한 보육 시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일정 시간 정규 근무를 하는 부모가 아니거나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경우, 이들을 위한 보육 제공이 웨일즈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양질의 보육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무상 보육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별한 교육적 요구나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보육에의 접근성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음.

2017년 3월 2일

출처: <http://www.walesonline.co.uk/news/wales-news/childcare-wales-cheapest-britain-you-12678380>

2. 30시간 무상보육 수혜 대상자에 관한 최근 통계

3-4세 유아의 42%인 약 390,000명이 올 9월부터 시작되는 30시간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됨. 현재 15시간 보육 지원을 받는 유아 가운데 약 520,000명은 추가적으로 15시간의 보육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무상보육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a) 부모 중 한 명 혹은 둘 다 일하고 있지 않음(77%), b) 부모 중 한 명 혹은 둘 다 소득이 최저 임금 하한선 이하임(21%), c) 부모 중 한 명 혹은 둘 다 소득이 최고 임금 상한선 이상임(2%).

현재 실시되고 있는 15시간 보육 지원에 추가로 15시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고, 자녀로 인해 직장을 떠난 부모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임.

이러한 수치는 국가 전반적인 평균 수치이므로 지역에 따라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단 정책이 시행된 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모든 3-4세 유아들은 부모의 직장 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주당 15시간의 보편적 무상보육 혜택의 대상자임. 소득 기준이 30시간 보육 지원 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저소득층 부모는 세금 공제를 통해 보육비의 70%까지, 혹은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를 통해 85%까지 청구할 수 있음.

2017년 4월 21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latest-figures-who-is-eligible-for-30-hours/>

3. 소득 증가보다 4배 더 빠르게 증가하는 여름방학 보육비용

여름방학 기간 동안의 보육비용이 소득 인상보다 4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름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대체 보육을 찾게 됨. 이 기간 동안의 보육비용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방학 기간 보육비용은 주당 평균 125파운드로 전년(2016년) 대비 4% 증가하였음. 노동당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영국 전역에 걸쳐 방학 기간 보육비용이 50% 이상 증가한 반면, 평균 급여는 같은 기간 동안 13%만 인상됨.

주간 평균 보육비용은 북동 지역의 경우 2010년 63.5파운드에서 2017년 132.98파운드로 111% 증가하였고, 이 지역이 방학 보육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기록됨.

가정과 보육 기금(Family and Childcare Trust)이 실시한 방학 기간 보육비용에 대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웨일즈는 주당 117.62파운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0년 58.89파운드에서 2017년 117.62파운드로 비용의 인상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음.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같은 수준임.

이러한 보육비용의 증가는 모든 소규모 사업자들이 직면한 문제들, 이를테면 최저임금과 사업세, 그리고 임대료의 인상과 같은 문제들이 원인이 되고 있음. 더욱이 방학 기간 실시하는 대체보육은 해마다 보육제공자가 다른 변동이 심한 보육 시장임. 그러므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보육에 비해 가격 변동의 폭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음.

저렴한 이용이 가능한,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의 공급은 계속 부족한 상태임. 더욱이 잉글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거나 혹은 공급 가능한 보육 제공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임.

사립 혹은 자발적 보육 영역(예: 방학 클럽)은 지역 당국에서 운영하는 보육 제공에 비해 22%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남. 잉글랜드 부모들은 6주간의 방학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한 아이 당 748파운드의 보육비용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름방학 보육은, 영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아동 인구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음. 이주민에 의해 촉진된 베이비붐으로 인해 앞으로 10년 내에 중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일하는 부모들이 치솟는 보육비용과 낮아지는 급여 사이에서의 문제를 잘 다루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2017년 7월 25일

출처:

<http://www.telegraph.co.uk/education/2017/07/24/cost-summer-holiday-childcare-rising-four-times-faster-earnings/>

4. 30시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혼란에 대한 경고

2017년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3-4세 유아 대상 30시간 무상보육에 대해 교육자선단체인 Pre-school Learning Alliance (PLA)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함. 이 단체에서 잉글랜드의 1,400개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74%가 이 정책의 실행과 관련한 정부의 재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답하였음.

잉글랜드 전역의 200,000명 이상의 부모가 이번 9월부터 보육비용 보조를 받게 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정부 보조금의 액수가 그들의 실제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함. 1,400개 어린이집 가운데 38%는 어린이집 운영을 12개월 후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고, 52%는 음식, 기저귀, 여행 등에 관한 비용을 인상할 것이라고 답하였음. 더욱이 42%는 그들이 예측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무상보육을 위한 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음.

한 예로, 셰필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Karen Simpkin은 이 어린이집에서는 오직 제한된 수의 무상보육 자리만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함. 이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를 돌보는 데에 시간 당 7.50 파운드의 비용이 들지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오직 4.07 파운드이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함.

30시간 무상보육은 2015년 총선 당시 보수당이 제시한 공약으로서, 당시 잉글랜드 부모들은 15시간 무상보육을 제공받고 있었음.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8년부터 3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한다고 공약하였음.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60억 파운드를 한 해에 보육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였고, 교육부는 그 가운데 27억을 2017-18년도 30시간 무상보육에 할당할 예정임. 이로써 어린이집에서는 무상보육 대상 유아 1인당 시간당 평균 4.78파운드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임. 정부는 2019-20년까지 연간 10억 파운드를 추가하여 시간당 4.94 파운드로 지원액을 올릴 방향임. 이 금액은 최근 연구에 의해 드러나 3-4세 유아 평균 보육비용인 3.72파운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2017년 8월 31일

출처: <http://www.bbc.co.uk/news/uk-england-41098769>

5.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추가보육 비용을 강요받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어린이집들이 3-4세 유아 30시간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프랑스어 강좌나 테니스 레슨과 같은 불필요한 과외 활동에 대한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9월 보육비용 명세서를 받은 부모들은 추가 비용 항목에 대해 놀라게 됨. 한 예로, 쉐필드에 사는 37세 Emma Wilkinson의 경우, 일주일에 3일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3세 아들에 대한 비용은 하루 25.72파운드, 연간 거의 4,000파운드 비용이 발생함. 그녀는 이전에 전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았던 급식이나 신체활동에 대한 비용도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9월부터 지불해야만 하며, 과연 3세 유아에게 테니스 레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함. 또한 이미 참여하고 있던 음악과 발음교습(phonics)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됨. 부모들은 생각하기를, 정부는 무상보육 실시를 통해 부모들에게 재정적인 숨통을 트여 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부모들이 그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함.

30시간 무상보육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그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시간당 4.30파운드의 최소한 90%를 어린이집에 전달해야 함.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이것이 실제 운영 비용에 맞지 않는다고 말함. 정부는 어린이집이 추가 활동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선택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함. 하지만 실제로 그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감시하지는 않음. 30시간 무상보육 실시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예측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2017년 8월 5일

출처:

<https://www.thetimes.co.uk/article/parents-forced-to-pay-for-free-childcare-places-in-nursery-schools-3tv5k2zqk>

6. 잉글랜드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부모의 임금보다 7배 빠르게 상승

영국 노동조합회의 (Trades Union Congress, TUC)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이 2008년 이래로 부모의 임금보다 7배나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잉글랜드에서 1세 영아를 둔 부모의 경우, 2008-2016 사이 평균 양육비용은 48% 증가한 데에 반해 평균 임금은 12% 증가함. 이러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도시는 런던으로서, 양육비용은 59% 증가한 반면 임금은 8% 증가함.

3-4세 영유아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30시간 무상보육 지원을 비롯하여, 잉글랜드에서는 2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대부분 1세 영아를 둔 직장인 부모들은 현재 정부로부터 아무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함.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부가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1세 자녀를 주당 21시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2016년 한 해 동안 일반적으로 그들의 임금의 11%를 보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2008년 8%에서 증가한 것임.

한부모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함. 전일제 근무를 하는 1세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 작년 한 해 봉급의 21% 이상(주 21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보육비로 지출하였고 이는 2008년 17%에서 증가한 수치임. 주 40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임금의 40%까지 보육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정부는, 약 200만 가구에 비과세보육을 제공하였고 앞으로 적절한 보육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6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부모들이 육아휴직 후 바로 직장으로 복귀하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일하는 부모들이 육아휴직 후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함.

2017년 10월 20일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money/2017/oct/20/childcare-costs-in-england-rise-up-to-seven-times-faster-than-wages>

<http://www.bbc.co.uk/news/uk-41690221>

7. 웨일즈의 10개년 유아교육·보육 분야 인력 계획

웨일즈 정부는 다음 3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 10개년 보육, 놀이 그리고 유아교육 분야 인력 계획(Childcare, Play and Early Years Workforce Plan)을 발표함.

첫째,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 양질의 새로운 인재 영입. 둘째, 분야 전반에 걸쳐 기준과 기술 향상. 셋째, 경제적 성장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 전반에 걸쳐 역량과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보육비용은 직장인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로서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침. 이번 정부의 지원 계획은 보육 제공자들의 성장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며, 이는 웨일즈의 직장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임.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자들의 사업 지원을 위해 웨일즈 정부는 시범 시행으로서 3개년(17/18; 18/19; 19/20)에 해당하는 100,000파운드를 제공하고 있음.

보육 제공자들이 그들의 운영비용을 맞추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Small Business Rates Relief, SBRR)을 12,000파운드에서 20,500파운드로 늘리기로 함. 또한 SBRR 계획 하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고려될 것임.

시행 첫 해의 핵심 사항은 2019년 9월부터 투입되는 교사들의 자격에 관한 사항임. 새로운 교사 자격은 레벨 1부터 5까지 해당하며 그들의 전문적 기술 향상을 위해 신입 및 기존 교사들을 지원하고 보다 향상된 경력 승진 기회를 제공할 것임.

2017년 12월 18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welsh-government-publishes-childcare,-play-and-ear/>

❖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1. 영국 부모들, 보육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

굿 케어 가이드(Good Care Guide)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부모들로 하여금 등록된 보육 기관을 평가하고 리뷰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서 약 6,500개의 보육 시설 및 그 외 여러 유형의 보육 기관들이 등록되어 있음. 부모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보육과 교사의 질 그리고 시설과 청결에 대해서 1(나쁨)부터 5(우수함) 등급으로 평가함.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9,000개의 부모 리뷰를 분석한 결과, 영국의 부모들은 지난 5년 동안 보육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에는 88.7%의 부모들이 그들이 이용하는 보육 시설에 대해 ' 좋음' 혹은 '우수함'으로 평가를 한 반면, 2016년 조사에서는 82.5%로 낮아짐. 반면 ' 좋지 않음' 혹은 '나쁨'으로 평가한 부모는 2012년 9.3%에서 2016년 12.8%로 증가함.

보모를 채용한 부모의 경우 2012년 89.8%가 ' 좋음' 혹은 '우수함'으로 평가한 반면, 2016년에서 86.5%로 수치가 낮아짐.

■ 부모들이 보육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다음의 이유가 있음:

- 유아의 식단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교사 및 직원들이 낮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함
- 어린이집들이 '보육'보다는 '물질' 지향적이 되어감
-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충분한 학습을 받지 못함
- 배변훈련이 필요한 아동을 거절함
- 교사 및 직원의 높은 이직률
- 좋지 않은 위생
- 작은 방들과 제한된 자극

또한 부모들은 종종 특정한 경우들, 예를 들면 가족의 사망, 질병, 무례함, 안전 수칙 불이행과 같은 경우에 대해 교사들의 연민과 동정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만이 있음.

2017년 영국의 보육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됨. 정부는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30시간까지 확대하고 보육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이러한 제도들이 부모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보육 제공에 대한 부모들의 피드백은 실제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2017년 2월 14일

출처:

<http://www.nurseryworld.co.uk/nursery-world/news/1160305/parents-say-childcare-quality-is-falling>

2. 30시간 무상보육 제공을 위해 새로 마련되는 약 18,000개의 보육시설

직장인 부모를 위한 30시간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새로운 건물 공사와 기존 시설의 확충을 위해 5천만 파운드의 보조금이 투자됨. 이를 통해 9,000개 이상의 보육시설을 추가하게 될 것으로 보임.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투자에 5천만 파운드의 보조금 지원이 더해져 무상보육을 위한 시설 준비에 대한 전체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됨. 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약 18,000개의 추가 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더불어 모든 어린이들이 배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약 5백만 파운드의 보조금이 취약계층 유아를 돕거나 그들에게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될 예정임.

교육 장관에 의해 공표된 12개 기회지역 또한 정부의 자본 투자의 일환으로 5백만 파운드의 혜택을 받을 예정임. 이 지역들은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사회이동성을 증진시킬 목표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이미 7천 2백만 파운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추가적인 재정 지원 혜택을 통해 이 지역에 사는 가족들의 삶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부문에 관한 보조의 경우,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13개의 프로젝트에 최대 5백만 파운드를 분담하여 3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할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a) 특별한 교육적 요구와 장애를 가진 유아의 부모들을 돕는 5개 단체에 150만 파운드 이상 지원, b) 초기 문해력 향상과 가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취약 계층 어린이를 직접적으로 돕는 데에 약 170만 파운드 지원, c) 30시간 무상보육 제공을 위한 도구와 자료를 개발하며 보육제공자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는 기관 및 단체에 100만 파운드 이상을 지원할 예정임.

정부는 또한 개인 사업으로서 새로운 아이돌보미 및 관련 에이전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사업 지원계획(Childcare Business Grant Scheme)을 다시 개시할 예정임.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은 보육사업 창업 비용으로 500파운드 또는 1,000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는 30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하려는 공급자가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임.

2017년 4월 11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families-to-benefit-from-55-million-boost-to-childcare-schemes>

3. 2017년 영국 총선 보육 공약

2017년 6월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과 노동당에서 발표한 보육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음.

■ 보수당

- 회사들로 하여금 탄력적 근무환경을 더욱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유 유아휴직(Shared Parental Leave, SPL)의 이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장려함.

참고) 공유 유아휴직 기간 = 52주 - 출산휴가로 사용한 주 수

공유 유아휴직 급여 제공 기간= 39주 - 출산휴가 급여 지급 주 수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공유 유아휴직 및 공유 유아휴직 급여 대상자일 경우, 어머니가 12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다면, 이 부모에게 남은 공유육아휴직 기간은 40주, 공유육아휴직 급여기간은 27주가 됨. 부모는 이 기간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음. (출처 <https://www.gov.uk/shared-parental-leave-and-pay>)

- 오랜 공백기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를 채용하는 회사들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수월하게 만들 계획임.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한 재정 운영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노동당

- 현행 30시간 무상보육을 모든 2세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보육시스템을 향상시킬 계획임. 일부 보육서비스는 1세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할 방침임.
- 출산휴가 급여 제공을 12개월까지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불공정한 해고에 대하여 여성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 또한 남성에 대한 유급 육아휴직을 4주로 두 배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인상할 예정.

참고) 현재 출산휴가 급여는 39주까지 제공됨. 평균 주당 소득의 90%가 첫 6개월 동안 지급되고, 이후 33주간은 £140.98(한화 약 20만원) 혹은 평균 주당 소득의 90% 가운데 낮은 것이 지급된다. 또한 현재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은 1-2주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140.98 혹은 평균 주당 소득의 90% 가운데 낮은 것이 지급됨.

(출처 <https://www.gov.uk/paternity-pay-leave>)

- 고용에 있어 임신부에 대한 차별을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임.

참고)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의하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은 법 위반행위로 이 경우 고용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

(출처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section/18>)

2017년 5월 18일

출처: <http://www.telegraph.co.uk/women/politics/general-election-2017-party-promising-women/>

4. 2003-2017 유아교육 및 보육 전반에 관한 분석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BERA) Early Years Special Interest Group과 TACTYC: Associ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arly Year 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연구, 정책,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내용은 총 5개 주제로 구성되었음: 1) 전문성, 2) 육아와 가족, 3) 놀이와 교육(학), 4) 학습, 발달, 교육과정, 5) 평가와 학교준비도.

위의 5개 주제 중 '육아와 가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양육(parenting)이 점차 숙련된 역할로 인식되고 있고, 선택의 자유라는 신자유주의 맥락 안에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영역, 즉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음.

노동자 계층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가족에게서 장시간 떨어져 일에 종사해야 하는 반면,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 유아교육·보육 종사자들과 부모들, 특히 양육의 결핍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자 계층의 부모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들의 역할 정체성 안에 내재하는 긴장이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편적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률은 기대한 것보다 낮음. 이 프로그램들이 중산층 부모들의 가치관, 상식, 혹은 전통적 양육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은 관련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

를 보임. 그러나 저소득층에서 일관된 양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은 소수임. 해당 중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아동의 행동발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애착이나 인지발달에 초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들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아동발달의 초기 위험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가 증명됨.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측정 가능한 효과들은 대규모 단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큼. 소규모의 유연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은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생산해 낼 수도 있음.

2017년 5월

출처: <https://www.bera.ac.uk/project/bera-tactyc-early-childhood-research-review-2003-2017>

5. 2017 영국 보육 제공 현황 및 실태 점검 결과

잉글랜드 교육기준청 Ofsted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는 최근 보육 제공 현황 및 실태 점검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주요 통계 수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Ofsted에 등록된 아이돌보미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500명이 줄어든 가운데 43,500명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 8월 31일 이후 전체적으로 24%의 감소를 기록함.

등록된 가정보육자(주로 부모에 해당)의 수 또한 2016년 12월 31일 이후로 100명이 감소하여 10,700명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치는 안정되고 있음. 대조적으로 비가정형태 보육(예: 어린이집)의 수는 2017년 초반 3개월 동안 100개까지 증가하여 27,000곳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 8월 31일 이후로 3% 감소한 것임.

아이돌보미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육 가능자(혹은 기관)의 수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현재 거의 130만여 개의 보육제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80%가 비가정형태 보육 (예: 어린이집)이고, 나머지 20% 가운데 상당수는 아이돌보미임. 다시 말해, Ofsted에 등록된 보육제공의 상당수가 비가정 형태 보육과 아이돌보미인 것으로 나타남.

2017년 3월 31일 현재 Early Years Register에 등록된 보육제공의 현황을 살펴보면 ‘ 좋음’ 혹은 ‘우수함’으로 평가받은 보육제공이 93%를 차지함으로써, 2012년 8월 31일 74%에서 증가한 수치를 보임.

비가정형태 보육의 경우, 가장 최근의 실태 점검에서 95%가 '좋음' 혹은 '우수함'으로 판정 받았는데 이는 2016년 말과 같은 수치임. 아이돌보미는 92%가 '좋음' 혹은 '우수함'으로 판정 받았고 이는 2016년 말 이후 1% 증가한 것임.

2016년 9월 이후, 30시간 무상보육계획이 8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음. 시범 실시 기간 동안 잉글랜드 전역과 시범 실시 지역에서 6%의 보육제공 증가가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보육 장소는 1% 증가를 보였음. 이러한 수치는 30시간 무상보육실시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육 제공의 공급 증가가 있었음을 나타냄.

■ (참고) Ofsted에서 분류한 4가지 보육 형태

- 비가정형태 보육(Childcare on non-domestic premises):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영리 목적 사립 보육 기관으로, 0-5세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이므로 Early Years Register (EYR)에 등록되어 있음.
- 아이돌보미(Childminders): 수당을 받고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어린이를 돌보는 형태의 보육으로서, 0-5세의 영유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는 EYR에 등록하지만 5-7세 유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Childcare Register(CR)에 등록함.
- 가정형태 보육(Childcare on domestic premises): 4명 이상의 영유아를 어떤 한 가정에서 함께 돌보는 형태. 아이돌보미와 마찬가지로 보육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EYR 혹은 CR에 등록함.
- 가정 보육 (Home childcarers): 0-18세의 아동을 전일 혹은 부분적으로 해당 아동의 집에서 돌보는 형태로, 흔히 보모로 이해됨. Ofsted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Voluntary Childcare Register (VCR)에 등록할 수 있음.

2017년 6월 14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care-providers-and-inspections-as-at-31-march-2017>

6. 스코틀랜드 정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 계획 발표

스코틀랜드 정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15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이는 주로 교직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강화, 임금의 공정한 지급, 양질의 근무 조건 제공, 야외 활동을 통한 학습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 실천 계획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발달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스코틀랜드 국민건강보험(NHS Health Scotland)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임.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유아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아동과 비교해 볼 때, 유아교육에 참여한 아동이 언어와 인지 발달이 더 향상된 것을 경험하였음. 또한 공정한 근무 환경은 교사들의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직업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스코틀랜드 정부는 향후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4억 2천만 파운드에서 8억 4천만 파운드로 두 배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이를 통해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성취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봄. 이는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은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출발을 제공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실천 계획의 몇 가지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교직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회들을 정리한 안내 책자 발간 (Action 5)
- 지방정부와 사립유아교육 제공자들에게 최저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지침서 개발 및 제공 (Action 6)
- 출산전부터 3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지침서 보완 및 재발간, 최신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장려 (Action 9)
- 적합한 야외 활동 장소에의 접근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야외 활동, 체육 활동의 활성화 장려 (Action 10)
-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향상시키는 학습과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Action 15)

위의 실천 계획은 유아교육 기관, 대학, 관련 자선단체들로 구성된 자문그룹 (Quality Reference Group)의 자문을 받아 개발된 것임.

2017년 10월 31일

출처:

<https://www.nurseryworld.co.uk/nursery-world/news/1162676/scottish-government-launches-quality-childcare-action-plan>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 0-5세 영유아교육·보육 과정(EYFS)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부는 2017년 3월 3일에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에 관한 법률 규정(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음. 이는 2017년 4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이 규정은 잉글랜드에 있는 모든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자들에게 해당함.

영유아기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EYFS))는 Childcare Act 2006 제39 조에 규정된 용어로서 영유아기의 학습과 발달,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0-5세 영유아 대상의 교육 및 보육 기관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함.

이 규정은 '학습과 발달 요건(The learning and development requirements)', '평가(Assessment)', 그리고 '보호와 복지 요건(The safeguarding and welfare requirements)'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아동의 학습과 발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음.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함: a) 모든 각각의 아동은 독특한 존재로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회복력이 있고 유능하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 b) 아동은 긍정적인 관계들을 통해 강함과 독립성을 배운다. c) 아동은 지지적 환경, 즉 그들의 경험들이 개별적 욕구(needs)에 응당하고 또한 부모와 교사(혹은 돌보미) 사이의 강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 안에서 아동은 보다 잘 배우고 발달한다. d) 아동은 모두 다른 방식과 다른 속도로 발달하고 학습한다. 이 규정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영유아 단계의 모든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다룬다.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96629/EYFS_STATUTORY_FRAMEWORK_2017.pdf

2017년 3월 3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arly-years-foundation-stage-framework--2>

2. 유아교육·보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식사 제공 안내서 발간¹⁾

유아교육 제공자들이 영유아를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메뉴와 조리법의 예가 담긴 안내서가 발간됨. 이는 교육부와 보건부가 영국영양재단(British Nutrition Foundation)을 비롯한 유아기 및 영양 관련 전문가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개발함.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는 양질의 보육의 중요한 부분임. 이 안내서에는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날의 식사와 간식 제공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놓았음. 또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자녀들에게 새로운 음식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도 유용할 것임.

안내서에 수록된 예시 메뉴들은 현장에서 최근 정부가 제시한 식단 권고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정부의 ‘아동기 비만 대책’ 이행에 기여할 것임. 이 대책은 다음 10년 동안 아동기 비만의 획기적인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아기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은 이를 위한 핵심 사항임.

특히 초등학교에 진학한 상당수 아동들이 이미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상황을 볼 때,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의 건강한 식사 제공은 아동의 좋은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발달을 위한 초석이 됨.

0-4세 영유아를 위한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1) 성장, 발달, 건강과 안녕을 돕기 위한 적절한 양의 에너지와 영양소 제공, 2) 과체중과 비만을 일으키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 방지, 3) 아동이 다양한 영역의 식품들을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발달시킴으로써 아동기 후기와 그 이후에 취하게 될 건강한 식습관을 발달시킴.

이 안내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들을 제공할 식품군을 제시하고, 그 날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1일 평균 필수에너지 및 영양소 제공의 90%를 다음과 같이 분배하도록 권장함- 아침(20%), 오전간식(10%), 점심(30%), 오후간식(10%), 가벼운 이른 저녁(20%). 나머지 10%는 하원 후 가정에서 혹은 추가 보육 시 제공되는 음료 혹은 간식에 의해 충당됨. 이는 대략 우유 작은 한 컵과 약간의 과일 정도에 해당함.

1세 미만 영아에 관해서는, 0-6개월 사이 영아를 위한 모유 수유에 관한 설명과 6-12개월

1) 안내서 원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ample-menus-for-early-years-settings-in-england>

유아를 위한 식사에 관한 안내가 들어 있음. 이 시기 영아의 첫 음식 섭취를 위한 안내가 식품 군별로 조언과 식품 예시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이 안내서는 또한 7-12개월, 1-4세 영유아를 위한 봄/여름 주간 메뉴, 가을/겨울 주간 메뉴 예시 표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6개월 이전 영아가 피해할 음식과 월령 및 연령에 따라 7-9개월, 10-12개월, 1-4세 영유아에 대한 전형적인 식사 제공에 관한 예시가 수록되어 있음.

영유아기 식단을 위한 조언 및 실제 적용 가능한 예시 메뉴 등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영유아 식사 제공과 관련한 유용한 참고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2017년 11월 13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healthy-eating-guidance-published-for-the-early-years-sector>

❖ 아동발달/부모됨

1. 유아교육과 발달에 관한 연구(SEED) 보고서 발간²⁾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발달에 관한 연구(Study of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이 연구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투자된 비용에 대한 가치와 영향력을 살펴본 종단 연구로서, 2세 유아 6,000명을 2014년부터 추적 연구한 내용임.

- (1) 첫 번째 보고서(Early education use and child outcomes up to age 3)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유아교육의 이용이 3세까지의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임. 연구에 의하면, 2-3세 유아는 유아 교육 및 보육의 형식적, 비형식적 형태 모두에서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아이돌보미가 어린 유아의 인지 발달과 언어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아이돌보미를 보육의 형태로 취하는 유아의 경우 걱정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2) 보고서 원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arly-education-use-and-child-outcomes-up-to-age-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arly-education-potential-value-for-money>

부정적 정서 증상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반면 자기조절 행동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집단보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 양상(예: 공유하기, 공감하기 등)이 더 높게 나타나고, 또래 문제(예: 비사회적인 행동)와 정서적 증상(예: 걱정과 스트레스)은 낮게 나타남.

그러나 주당 35시간 이상을 집단보육에 참여하는 3세 유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정서적 결과를 보임. 예를 들어 더 쉽게 우울해 하거나 충동적이 되는 양상을 보임. 특히 생애 첫 해부터 그룹보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경우 특별히 이러한 증상이 더 두드러짐.

(2) 두 번째 보고서(Early education: potential value for money)는 컨설팅 회사인 Frontier Economics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유아교육 비용의 장기적인 잠재 가치에 관해 살펴봄. 양질의 유아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3-4세 유아의 향상된 발달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절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이는 양질의 유아교육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 증진이 추후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와, 무단결석, 학교 중도탈락, 범죄, 흡연,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고, 반면 고용률과 수입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또한 비용 대비 보마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일제 보육이 시간제 보육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 7월 12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tudy-of-early-education-and-development-seed#history>

2. 아동복지(child well-being) 지표로서의 영유아 언어발달

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EIF)은 아동의 복지(child well-being)가 영유아기 언어 발달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함. 이에 대한 개관은 다음과 같음.

유아기 언어 습득은 유아의 신체 외 발달(non-physical development) 전 영역 -감정 조절 및 전달, 관계 형성 및 유지, 상징적 사고, 읽기와 쓰기 등-에 영향을 미침. 대다수의 유아가 수월하게 언어를 습득하는 반면 일부 소수의 유아들은 그렇지 못함.

영유아가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영국 전역에서 전체 아동의 5~8% 사이인데 그 중 20% 이상이 저소득층 자녀임. 취약계층 자녀의 높은 비율은 학교 입학 후 학업 성취와 줄

업 후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

연구에 의하면, 낮은 어휘 실력을 가진 5세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독해에 어려움을 가질 확률과 정신건강의 문제를 갖거나 무직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왜냐하면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은 학교교육과 학업성취, 그리고 미래 취업 전망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임.

유아기에서 언어 능력은 학습과 더불어 감정과 행동 이해,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기초를 형성함.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언어 능력은 그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중요한 예측 인자가 되고, 취업 후에는 추후 교육과 훈련, 고용 기회 등에서의 접근 가능성과 높게 연결됨. 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뒤쳐질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삶의 기회가 줄어들고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위험이 있음.

언어 습득의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 관해 문해력과 독해력에서의 문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 반면, 언어 발달 정도로 아동의 행동과 정신 건강 문제 또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언어발달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EIF는 유아기 언어발달이 아동 복리(child well-being)의 지표로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언어발달 문제를 백신이나 비만, 정신건강의 문제와 같이 공공보건 이슈로 다루도록 하기 위함임. 이렇게 함으로써 유아기 언어발달 문제가 (그것이 임상적 장애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영역임을 분명히 할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음.

- 초등학교 기간 동안 언어발달에 대한 모니터링 증진
- 아동의 언어발달이 개인의 생애과정(life-course)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후 연구
- 아동의 언어발달에 목표를 둔 중재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평가
- 언어습득의 어려움(language difficulties)을 측정하고 밝혀내는 것에 관한 보편적 기준과 용어의 적용
- 교육적 상황에서 말하기와 문해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보고서 원문

www.eif.org.uk/publication/language-as-a-child-wellbeing-indicator/

2017년 9월 27일

출처: <http://www.eif.org.uk/publication/language-as-a-child-wellbeing-indicator/>

3. 유아기 신체활동 증진을 촉구한 상하원공동의원회

튼튼하고 건강한 아동기에 관한 상하원공동의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APPG) on a Fit and Healthy Childhood)는 정부의 2016년 아동 비만 대책(2016 Child Obesity Strategy)에 수록된 체육활동의 역할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함. (참고: APPG는 정식 상임위는 아니지만, 의회에 등록된 정식 조직으로서 정파를 초월하여 중요 이슈를 다루고 있음)

새로 발간된 보고서 ‘유아기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in Early Childhood)’에서, 정부의 기존 전략은 국가적으로 깊숙이 자리잡아가는 비만 위기 해결에 있어서 체육활동의 ‘필수적인 역할(vital role)’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 공동의원회(APPG)는 이용가능하고 지속적이며 유익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과 안녕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하며, 영국은 이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고 있다고 주장함.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저소득층 혹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의 경우, 특별히 그들의 체육활동에의 접근과 이용이 불리함을 지적함.

■ 이 보고서³⁾는 특별히 유아기에 대한 많은 조언을 제공함.

- 영유아기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에서 체육활동의 중요성 강조
- EYFS에서 신체발달과 체육활동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건강한 유아기 시상(Healthy Early Years Awards) 계획 구축
- EYFS에 현행 권고사항으로서가 아닌, 신체 발달과 활동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
- 유아기 신체발달 및 체육활동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상위 조직으로서의 전문가 집단 구성
- 관련 정책과 실행을 알리고 추진하기 위한 신체발달 및 체육활동에 관한 TF팀 구성
- 신체활동 분야의 유아기 전문가 훈련을 위한 기금 마련

3) 보고서 원문

<https://gallery.mailchimp.com/b6ac32ebdf72e70921b025526/files/a03e2426-5d83-455f-8d79-1543aee7a802/PhyActinEarlyChildhoodOct17.pdf>

- 모범 케이스 및 풍성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알리기 위한 위한 목록 작성
- 직장 어린이집(nurseries)과 보육 시설(crèches)를 추가 신설

2017년 11월 3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mps-call-for-action-to-promote-physical-activity-i/>

4. 잉글랜드 유아교육 및 발달에 관한 새로운 연구보고서(SEED) 발간

유아교육과 발달에 관한 연구(Study of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SEED) 프로젝트는 잉글랜드에서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어린이집(nurseries)과 preschool과 같은 그룹 단위 유아교육 현장에 초점을 맞춤. 개인 단위의 보육 제공, 즉 아이돌보미의 질은 2015년 SEED 보고서에서 이미 다룬 바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형태의 그룹보육 제공의 질적 평가에 관하여는 “전반적으로 최소한 적합”으로 나타남.
- 잉글랜드의 보육 현장과 교직원의 자격 수준은 지난 16년간 향상되어 왔음.
- 보육의 질은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양질의 보육은 첫째, 교직원 훈련과 개발, 훈련프로그램 및 훈련비용 예산, 혹은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관련이 있음. 둘째, 낮은 교직원 이직률과 원아들 간의 좁은 연령 범위와 관련이 있음.
- 사립 혹은 자원봉사 그룹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양질의 보육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교직원 수준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전반적으로 교직원 대 영유아의 수와 관련이 있었음. 즉 교직원 1인당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적을수록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음.

2017년 12월 7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seed-study-on-quality-in-group-early-years-setting/>

❖ 기타

1. 홍보 부족으로 국민보험 연금 혜택을 놓치는 조부모들

수많은 조부모들이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연금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은퇴했을 때 연간 231파운드 (한화 약 33만 6천원 (1 파운드 = 약 1,452 원 기준)의 가치에 해당하며 20년 은퇴 기간에 걸쳐 약 4,600파운드 (한화 약 668만원)에 해당함.

일을 그만두는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하는 동안 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보험 크레딧(NI credits)이 주어짐. 만약 부모가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가까운 가족 혹은 친척이 대신 해당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음.

가까운 가족 누구든지 국민보험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아동의 조부모라고 볼 수 있음.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매해 그들은 연금의 추가 231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음.

이른바 조부모 크레딧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은 해당 아동을 돌보는 동안에 취업 연령이어야 함. 2016년 9월 말 통계에 의하면 단지 1,300명만이 이 크레딧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남.

영국 보험-연금 회사인 로열 런던(Royal London)의 정책 국장인 스티브 웨브 경(Sir Steve Webb)은 무려 100,000명 이상의 친척들(조부모)이 그들이 이를 인지하고 요구하기만 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정부는 이러한 혜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크레딧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정부는 어머니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국민보험 크레딧을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급적 빨리 알려야만 한다고 주장함.

만약 이전 해 크레딧 요청을 놓쳤다면, 2011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요청할 수 있음. 정부는 2011년에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무려 5,000명 이상이 혜택을 얻게 되었다고 밝힘.

2017년 1월 18일

출처: <http://www.bbc.com/news/business-38654321>

2. 조부모의 양육 참여 현황 및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

손자녀 양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50대 이상 조부모의 5분의 2가 그들의 도움 없으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선단체 Age UK가 10월 1일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을 앞두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기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조부모의 57%가 자신들이 자녀를 도움으로써 자녀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만약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는 자신의 자녀들이 계속 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5%는 자녀들이 근무시간을 줄여야만 했을 것이라고 응답함. 54%는 보육(formal childcare) 이용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라고 함.

정기적인 손자녀 양육에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조부모의 89%는 최소 일주일에 한번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12%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정기적으로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조부모의 22%가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남.

스코틀랜드의 경우, 50세 이상 조부모의 약 34%(약 370,000명)가 정기적으로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조부모 양육이 세대 간 독특한 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스코틀랜드 조부모의 93%는 그들이 손자녀들과의 관계가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음.

비록 조부모 양육자들의 88%가 어떠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이 손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자체로 막대한 유익을 얻는다고 말함. 조부모들이 양육을 통해 가장 큰 유익을 얻는다고 여기는 것 1위는 손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86%), 2위는 가족들을 더 많이 보는 것(77%)으로 나타남.

10명 중 6명은 이러한 조부모 양육이 그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활동적이고 능동적이 되도록 만든다고 말함. 41%는 이러한 양육 활동이 목적의식을 갖게 한다고 말하였고, 18%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함. 또한 4분의 1은 그들의 손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함.

그러나 국가 연금(State pension)을 받는 대다수의 조부모들이 그들이 12세 이하의 손주들

에게 정기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동안 국가 보험(National Insurance)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

2017년 9월 29일

출처: <http://www.gallowaygazette.co.uk/news/scottish-parents-turn-to-granny-nannies-1-4572455>

<http://www.mirror.co.uk/money/mums-dads-kept-afloat-grandparents-11260663>

2017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목록 및 조회 분석

● 연구소 홈페이지 탑재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총 탑재동향 정보: ('18.01.17 기준)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	조회수
1	일본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 픽업 및 임시 돌봄서비스	'17.02.10	1,224
2	일본	엄마에게 휴식과 상담을... 시즈오카 시의 케어 서비스 인기	'17.02.10	879
3	미국	콜로라도 주, 종일제 유치원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법안 제출	'17.02.10	959
4	미국	4세 보육 프로그램 재원 조달을 위해 탄산음료에 세금 부과 고려	'17.02.10	578
5	캐나다	B.C. 주 인가 어린이집 확충과 지원에 대한 요구 다시 거세져	'17.02.10	600
6	캐나다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이 3년 내에 B.C.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연구결과	'17.02.10	555
7	프랑스	아버지의 육아휴직기간은 늘어날 것인가?	'17.02.10	604
8	프랑스	2016년, 프랑스 부모들은 자녀에게 얼마를 지출했는가?	'17.02.10	639
9	독일	기관 운영시간, 30분만 늘어도 도움이 된다	'17.02.10	513
10	독일	부모수당 도입 등 아버지 양육참여를 위한 정책 노력 지속	'17.02.10	691
11	스웨덴	부모의 교육비 미납으로 아동이 유치원에서 등원거부 당하는 일은 없어야	'17.02.10	522
12	영국	직장에서의 승진보다 자녀 양육이 우선인 젊은 아버지들	'17.02.10	507
13	영국	홍보 부족으로 국민보험 연금 혜택을 놓치는 조부모들	'17.02.10	400
14	일본	요코하마 시, 빈집을 활용한 육아 세대 집세 보조	'17.03.14	949
15	일본	다케오 시, '가족 간병 휴가'와 '손자 돌봄 휴가' 제도 신설	'17.03.14	706
16	미국	뉴욕 시 부모들, 보육교사의 임금 인상을 요구	'17.03.14	739
17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보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모의 경력 단절	'17.03.14	466
18	캐나다	토론토 시장, 온타리오 정부의 보육 지원 공약 이행을 촉구	'17.03.14	460
19	캐나다	B. C.주 총선거를 앞두고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의 본격적인 선거 이슈화	'17.03.14	475
20	프랑스	영유아 보육을 위한 특별한 전화 서비스	'17.03.14	556
21	프랑스	프랑스 북부 임시직 부모들을 위한 보육시설	'17.03.14	482
22	독일	외국인을 위한 아동수당, 절반으로 감축	'17.03.14	521
23	독일	Babywatching 프로젝트, 엄마가 영아를 돌보는 모습을 관찰한 아동의 공감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17.03.14	545
24	스웨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유치원 아동들	'17.03.14	508
25	스웨덴	육아휴직, 남녀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17.03.14	513
26	영국	영국 부모들, 보육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	'17.03.14	458
27	영국	웨일즈의 보육비용, 영국 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17.03.14	446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	조회수
28	일본	기후 시, 육아지원 앱 실시	'17.04.11	1,211
29	일본	도쿄 시부야 구, LINE 앱으로 육아 정보를 제공	'17.04.11	775
30	일본	교토 지역 전체가 참여한 즐거운 육아 축제	'17.04.11	809
31	미국	미국, 핀란드의 '아기 상자(Baby Boxes)' 도입	'17.04.11	589
32	미국	시카고,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	'17.04.11	435
33	캐나다	트뤼도 정부, 향후 10년간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에 70억 달러 투입	'17.04.11	468
34	캐나다	B.C.주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보육에 있어 퀘벡식 모델은 '결함이 있는 모델'로 밝혀	'17.04.11	414
35	프랑스	파리 보육시설 배정의 투명성 제고	'17.04.11	451
36	프랑스	폴루즈 시는 보육시설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7.04.11	411
37	독일	독일의 산모보호법 개정	'17.04.11	479
38	독일	남성 동성애자 교사가 근무하는 베를린의 한 유치원, 논쟁을 불러일으키다	'17.04.11	372
39	스웨덴	유치원 내 평등 보장의 어려움	'17.04.11	388
40	스웨덴	이주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17.04.11	372
41	영국	0-5세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EYFS)에 관한 법률 개정안	'17.04.11	466
42	영국	정부의 보육 정책 안내를 위한 웹사이트 'Childcare Choices' 개설	'17.04.11	423
43	일본	교토, 육아정보 전달 서비스 개시	'17.05.16	362
44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보육소 개원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육아세대의 요구 수용	'17.05.16	342
45	미국	워싱턴 D.C., 영아 보육시설(만 3세 미만)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안 제출	'17.05.16	359
46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유치원 입학 연령 기준을 2개월 늘리다	'17.05.16	361
47	캐나다	토론토 시, '보육성장전략' 발표	'17.05.16	399
48	캐나다	앨버타 주, '하루 25달러 보육료 정책' 시행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17.05.16	393
49	프랑스	2017년 보조보육사 평균 임금	'17.05.16	427
50	프랑스	리옹의 보육원 파업, 해결책 없는 시위	'17.05.16	387
51	독일	FDP 정당, 어린이 예방접종 의무화 합의	'17.05.16	446
52	독일	남성 유치원 교사의 증가	'17.05.16	455
53	독일	독일 아기들이 다른 나라 아기들에 비해 덜 운다는 연구 결과	'17.05.16	416
54	스웨덴	유아학교 커리큘럼 점검	'17.05.16	438
55	스웨덴	유아학교 교사 수 증가에도 여전히 부족	'17.05.16	616
56	영국	30시간 무상보육 수혜대상자에 관한 최근 통계	'17.05.16	685
57	영국	30시간 무상보육 제공을 위해 새로 마련되는 약 18,000개의 보육시설	'17.05.16	882
58	일본	군마현 키류시, 6월부터 산모 대상 산후우울증 예방 및 외래 진료 실시	'17.06.14	304
59	일본	여성채용 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여성우대 기업 지원	'17.06.14	302
60	미국	미국 고용주의 38%가 유급 육아휴직 제공	'17.06.14	337
61	미국	스크린 화면에 많이 노출된 영유아,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17.06.14	355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	조회수
62	캐나다	오타와 시, 비인가 방과전·후 프로그램에 대한 6세 미만 아동 이용 금지	'17.06.14	297
63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보육정책 대립	'17.06.14	365
64	프랑스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	'17.06.14	349
65	프랑스	2017년 새롭게 바뀌는 교육정책	'17.06.14	406
66	독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유치원 신고 의무화	'17.06.14	413
67	독일	1백 60만 명의 아이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17.06.14	356
68	독일	30만 명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17.06.14	401
69	스웨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 점점 어려워져	'17.06.14	386
70	스웨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없다	'17.06.14	553
71	영국	2017년 영국 총선 보육 공약	'17.06.14	542
72	영국	2003-2017 유아교육 및 보육 전반에 관한 분석	'17.06.14	812
73	일본	기후 현,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강의 실시	'17.07.12	266
74	일본	가나가와 현, 현에서 운영하는 주택에 육아 세대 입주를 촉진	'17.07.12	238
75	미국	만 4세 유치원 프로그램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민간 자금 지원	'17.07.12	249
76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2017-2018년도 교육부 예산 증가분 사용처	'17.07.12	266
77	미국	장애아동을 위한 교사교육 시범 시행	'17.07.12	266
78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 보육제도 협약 체결	'17.07.12	406
79	캐나다	퀘벡 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추가예산 투입 발표	'17.07.12	337
80	프랑스	대학 내에 문을 연 프랑스 공제조합 운영 보육시설	'17.07.12	359
81	프랑스	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2016년 어린이집 관련 지출	'17.07.12	364
82	독일	동성애자의 권리 현황: 독일은 오히려 퇴보	'17.07.12	408
83	독일	여섯 명 중 한 명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17.07.12	364
84	스웨덴	유아학교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17.07.12	364
85	스웨덴	거품 낀 유아학교를 지양해야 한다	'17.07.12	6,617
86	영국	2017 영국 보육 제공 현황 및 실태 점검 결과	'17.07.12	518
87	영국	자녀를 동반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Chill out Room'을 마련한 회사	'17.07.12	6,950
88	일본	교토,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버지들 교류의 장 마련	'17.08.11	232
89	일본	오이타 현 우사 시, 안전을 위해 보육 시설에 방범카메라(CCTV) 설치	'17.08.11	220
90	일본	가나가와 현, 6개국 언어로 지원하는 '외국인 육아 응원 키트' 호평	'17.08.11	251
91	미국	오레건 주, 가정어린이집 규제 완화 법안에 반발	'17.08.11	204
92	미국	어린이집-유치원 간 연계를 위한 노력	'17.08.11	243
93	캐나다	IMF,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17.08.11	308
94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9월부터 43개 지역에서 무료 Pre-primary care 운영계획 발표	'17.08.11	303
95	프랑스	학교와 어린이집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과정	'17.08.11	278
96	프랑스	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2016년 어린이집 관련 지출 2	'17.08.11	241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	조회수
97	독일	어린이집 자리를 두고 소송을 거는 부모들이 적은 이유	'17.08.11	280
98	독일	여성의 무자녀율 감소 추세	'17.08.11	326
99	스웨덴	유아학교에 대한 이용 권리를 확장하려는 야당	'17.08.11	264
100	스웨덴	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뒤처지는 아이들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기관 이용 지연	'17.08.11	908
101	영국	소득 증가보다 4배 더 빠르게 증가하는 여름방학 보육비용	'17.08.11	918
102	영국	유아 교육과 발달에 관한 연구(SEED) 보고서 발간	'17.08.11	1,521
103	일본	아타미 시, 보육시설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내달 1일 영광 보육시설 개원	'17.09.14	157
104	일본	치바 현 후나바시 시, '임신·출산 지원 계획' 배포를 통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17.09.14	164
105	미국	미시시피 주, 어머니를 위한 직업교육과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17.09.14	153
106	미국	질 높은 보육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다	'17.09.14	187
107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간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예산 관련 양자협약 체결	'17.09.14	211
108	캐나다	앨버타 주 아동서비스부 장관,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보육 현안 논의	'17.09.14	222
109	프랑스	빌뇌브 다스크 시, 방학기간 동안 여가시설 이용에 아동 1인당 평균 500유로 지원	'17.09.14	201
110	프랑스	쁘띠포레 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여가센터 개원	'17.09.14	240
111	독일	어린이집 검색의 디지털화	'17.09.14	199
112	독일	독일 아동의 여가시간 미디어 활용 - 아동 미디어 연구 2017	'17.09.14	301
113	스웨덴	단기 유치원 교장 교육에 대한 불만	'17.09.14	230
114	스웨덴	의무교육 연령을 6세로 하향 조정	'17.09.14	759
115	영국	30시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혼란에 대한 경고	'17.09.14	637
116	영국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추가보육 비용을 강요받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17.09.14	1,015
117	일본	와카야마 현 다나베 시, 시립유치원 4곳에 보육 확충	'17.10.16	114
118	일본	산후조리 모자(母子)지원을 도입하는 정부 지침 발표	'17.10.16	106
119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대학 내에 헤드스타트(Head Start) 시설 도입	'17.10.16	113
120	미국	신시내티 시, 만 3세까지 보육비 지원 확대	'17.10.16	105
121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 E. I.),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예산 증액	'17.10.16	224
122	캐나다	B. C. 주, "하루 10달러 보육료 정책" 시행을 두고 난항	'17.10.16	191
123	프랑스	2018년부터 줄어드는 영유아 육아보조금	'17.10.16	184
124	프랑스	아버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엄마	'17.10.16	174
125	독일	독일 최고의 보육·교육기관 선발 대회	'17.10.16	223
126	독일	독일 대가족 현황에 관한 조사	'17.10.16	183
127	스웨덴	유아학교의 가장 큰 고충으로 과도한 학급별 인원수가 꼽혀	'17.10.16	196
128	스웨덴	유아학교에서 사진촬영 금지	'17.10.16	695
129	영국	조부모의 양육 참여 현황 및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	'17.10.16	333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	조회수
130	영국	아동복지(child well-being) 지표로서의 영유아 언어발달	'17.10.16	480
131	일본	아마가타 가호쿠, 맞벌이 부부 지원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을 함께 돌보는 서비스 시작	'17.11.13	83
132	일본	미에현 츠시, 내년 9월부터 영유아 의료비를 '창구 무료' 형태로 전환	'17.11.13	68
133	일본	가고시마 현 아마미 시, '좋은 육아환경 만들기' 육아체험 워크숍 개최	'17.11.13	75
134	미국	맞벌이 부모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6가지 방법	'17.11.13	102
135	미국	영아 사망률을 40% 감소시킨 신생아 초기 건강 프로그램	'17.11.13	88
136	캐나다	퀘벡 주 어린이집 교직원, 대규모 파업에 돌입	'17.11.13	83
137	캐나다	토론토 시민들, 전액 재정지원 받는 공공 어린이집에 찬성	'17.11.13	149
138	프랑스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와 보육 시설에 갈 수 없다	'17.11.13	96
139	프랑스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보육시설	'17.11.13	132
140	독일	많은 부모들이 책 읽어주기를 너무 늦게 시작한다	'17.11.13	143
141	독일	보육시설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함부르크의 노력	'17.11.13	126
142	독일	동성애 부부의 아동 입양	'17.11.13	122
143	스웨덴	아동 스스로 선택한 테마를 사용하는 교육법	'17.11.13	143
144	스웨덴	교사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강조	'17.11.13	794
145	영국	스코틀랜드 정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 계획 발표	'17.11.13	427
146	영국	잉글랜드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부모의 임금보다 7배 빠르게 상승	'17.11.13	640
147	일본	오키야마 현 와케 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질문에 24시간 대응	'17.12.13	45
148	일본	정부·여당, 보육료 '공정가격' 시설 무상화 추진, 고액 시설에는 지원금 상한 설정	'17.12.13	52
149	미국	부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기관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	'17.12.13	53
150	미국	유아 수학교육의 중요성	'17.12.13	80
151	캐나다	B. C.주 집권 신민당, 내년 2월 이후 '보편적 보육 정책' 구체화 의견 밝혀	'17.12.13	59
152	캐나다	신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	'17.12.13	59
153	프랑스	파리 9구, 보육시설 입소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시작	'17.12.13	56
154	프랑스	자폐증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17.12.13	69
155	독일	종교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	'17.12.13	59
156	독일	출생신고서에 제 3의 성을 기록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17.12.13	60
157	스웨덴	유아학교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달라는 현장의 요구	'17.12.13	790
158	영국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식사 제공 안내서 발간	'17.12.13	297
159	영국	유아기 신체활동 증진을 촉구한 상하원공동의원회	'17.12.13	462
160	일본	오키야마 현 쓰야마 시, 상업시설 내에 육아지원시설 개설	'18.01.10	17
161	일본	우라야스 시, 치바 현에 친정이 있는 산모에게도 산후관리 제공	'18.01.10	11

번호	국가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2	미국	자녀가 있는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시설과 보육서비스 필요	'18.01.10	9
163	미국	미네소타 주, 가정 방문 프로그램 확대	'18.01.10	11
164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정부, 영유아 교사의 급여 인상 위해 2800만 달러 투입	'18.01.10	24
165	캐나다	2017년 캐나다 보육비용, 인플레이션보다 높게 올라	'18.01.10	18
166	프랑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교 및 보육시설 이용 제한은 바람직한가?	'18.01.10	23
167	프랑스	보육서비스 수급의 경제적 딜레마	'18.01.10	26
168	독일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 선지불에 관한 법안 개정	'18.01.10	22
169	독일	좋은 유치원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킨다	'18.01.10	30
170	스웨덴	교원연합의 새로운 유아학교 정책 제안	'18.01.10	27
171	스웨덴	유아학교에서 팩트북 읽기의 필요성	'18.01.10	145
172	영국	웨일즈의 10개년 유아교육·보육 분야 인력 계획	'18.01.10	77
173	영국	잉글랜드 유아교육 및 발달에 관한 새로운 연구보고서(SEED) 발간	'18.01.10	120

● 국가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탑재 수

국가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탑재 수

지역	국가	탑재 정보 수
합계		173
아시아	일본	27
	미국	25
미주	캐나다	24
	프랑스	24
북유럽	독일	27
	스웨덴	22
	영국	24

● 최다 조회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1-5순위

최다 조회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1-5순위

순위	국가	제목	조회수
1	영국	자녀를 동반하여 출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Chill out Room'을 마련한 회사	6,950
2	스웨덴	거품 긴 유아학교를 지양해야 한다	6,617
3	영국	유아 교육과 발달에 관한 연구(SEED) 보고서 발간	1,521
4	일본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 픽업 및 임시 돌봄서비스	1,224
5	일본	기후 시, 육아지원 앱 실시	1,211

●● 주제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분류

주제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분류

주제	국가별 해당 주제 수							합계
	아시아	미주		북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일가정 양립	5	4	1	2	1	2	2	17
양육지원	16	4	-	4	3	-	1	28
저출산	-	-	-	-	1	-	-	1
유아교육·보육 비용지원 및 재정	2	5	16	4	2	1	7	37
유아교육·보육 기관/질	3	5	4	10	5	10	6	43
유아교육·보육 교사	-	2	1	1	1	3	-	8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	2	2	3	1	4	2	14
아동발달/부모됨	-	3	-	-	7	2	4	16
기타	1	-	-	-	6	-	2	9
합계	27	25	24	24	27	22	24	173

2017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2017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398 7700 팩스 02-398-7798